

국립국어원 2016-01-1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28-01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 -

연구 책임자
김영일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중도 시각 장애인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6년 05월 ~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연구 책임자: 김영일(조선대학교 교수)

연구 기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 책임자 김영일
공동 연구원 김정호, 강완식, 박성수
백혜련, 이승철, 오태민, 류현
연구 보조원 손민희, 김명한, 문희원

<주관 연구 기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진>	
책임 연구원	김영일(조선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김정호(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박성수(강원명진학교 교사)
	백혜련(장애여성열린네트워크 대표)
	이승철(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오탈민(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교사)
	류 현(인천해광학교 교사)
연구 보조원	손민희(엑스비전테크놀로지 팀장)
	김명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문희원(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국문 초록>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

이 연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점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점자 실용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자 교육의 이론적 근거 제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실제 조사, 우리나라 점자 교육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 등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 목표에 적합하게 문헌 조사, 초점 집단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은 읽기와 쓰기의 일반적인 이론 이외에도 중도 시각 장애인의 심리 적응을 다루는 재활 상담 이론과 뇌의 가소성 등에 관한 신경생리학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실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점자 지도사와 점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 집단 면담과 설문 조사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이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초 과정, 숙련 과정, 전문 과정 등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반영한 점자 지도사용 교수 자료와 점자 학습자용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점자 학습 교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점자 읽기와 쓰기의 지도 순서, 점자 정보 단말기와 전통적인 점자 필기구의 효과성 비교, 점선 따라가기의 전형 순서 등 점자 교육의 실제와 이론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어: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Abstract>

The Standardization of Braill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User-oriented Braille Literacy Curriculum:

The Development of a Braille Literacy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bases by developing a braille literacy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backgrounds, investigated the practice in braill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nalyzed the needs for braille literacy among instructors and learner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and proposed a braille literacy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This study employed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 surveys, and expert meeting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theories of the curriculum were based on the general theories of reading and writing as well as those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and neuroscience; (2) the braille literacy curriculum must be developed to suit current states of different organizations and agencies; (3) the braille literacy curriculum were designed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and, (4) the braille literacy curriculum consisted of basic, proficient, and professional courses.

The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n instructor's manual and a learner's workbook should be written based on the braille literacy curriculum proposed in this study; (2) different types of teaching materials and aids for promoting the tactile sensitivity of individuals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 should be developed; and (3) empirical studies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to investigate some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appropriate order of braille reading and writ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braille devices, and different dot formation for tracking.

Key words: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 braille, curriculum

목 차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목표	5
3. 용어 정의	5
4. 연구 방법	5

제 2 장 점자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점자 교육의 원칙	9
2. 점자 읽기 교육	12
3. 점자 쓰기 교육	24
4. 선행 연구 고찰	26

제 3 장 외국과 우리나라 점자 교육의 실제

1. 미국의 점자 교육	31
2. 일본의 점자 교육	35
3.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54

제 4 장 점자 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1. 초점 집단 면담	75
2. 설문 조사	129

제 5 장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1. 성격	153
2. 목표	154

3. 내용 체계	157
4. 교수·학습 방법	164
5. 평가	17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75
2. 제언	175

참고 문헌	177
-------------	-----

부 록

1. 부록 1	181
2. 부록 2	191
3. 부록 3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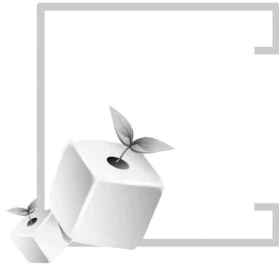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3-1> 시각 재활 치료사의 지도 영역과 세부 내용	33
<표 3-2> 점자 학습 지도 안내서 세부 내용	45
<표 3-3> 교재의 특성과 종류	60
<표 3-4> 교재의 구성과 내용	63
<표 4-1> 점자 지도사 면담 참여자 특성	75
<표 4-2> 집단별 점자 학습자 면담 참여자 특성	76
<표 4-3> 점자 지도사 면담 도구	77
<표 4-4> 점자 학습자 면담 도구	78
<표 4-5> 점자 지도사의 기본 정보	129
<표 4-6> 점자 학습자의 기본 정보	130
<표 4-7> 모집 및 자료 수집 단계별 조사 대상 비율	132
<표 4-8> 점자 지도사의 점자 교육 목표에 대한 의견	133
<표 4-9> 수준별 점자 교육 실태	134
<표 4-10> 점자 교육의 수준 구분 실태	134
<표 4-11> 공식적 교재 사용 여부의 실태	134
<표 4-12> 교재의 출처에 관한 실태	135
<표 4-13> 교재 미확보 시 교육 자료 확보 방안	135
<표 4-1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내용 실태	136
<표 4-15> 점자 교육 시 집단 구성에 대한 실태	136
<표 4-16> 주별 점자 교육 실시 횟수	137
<표 4-17> 1회당 점자 교육 시간에 대한 실태	137
<표 4-18>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 편성 실태	137
<표 4-19> 점자 읽기·쓰기 지도 순서	138
<표 4-20> 점자 정보 단말기 지도 실태	138
<표 4-21> 점선 따라가기 점형에 대한 실태	139
<표 4-22>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별 제공 현황	139

<표 4-23> 점자 교육 평가 기준의 실태	140
<표 4-24> 평가 기준	140
<표 4-25>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의 교육 종료 결정	140
<표 4-26> 점자 교육 목표에 대한 요구	141
<표 4-27>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목표에 관한 요구	141
<표 4-28> 수준별 점자 교육에 대한 요구	142
<표 4-29> 점자 교육의 수준 구분에 대한 요구	142
<표 4-30> 점자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144
<표 4-31> 점자 교육 시 집단 구성 형태에 대한 요구	145
<표 4-32> 중도 시각 장애인의 주별 점자 교육 실시에 대한 횟수에 대한 요구	145
<표 4-33> 1회당 점자 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146
<표 4-34>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 편성에 대한 요구	146
<표 4-35> 점자 읽기·쓰기 학습 순서에 대한 요구	147
<표 4-36> 점자 정보 단말기 학습에 대한 요구	147
<표 4-37> 점선 따라가기 점형에 대한 요구	148
<표 4-38> 기초 재활 영역에 대한 요구	148
<표 4-39> 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	149
<표 4-40> 점자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요구	149
<표 5-1> 기초 과정 내용 체계 표	158
<표 5-2> 숙련 과정 내용 체계 표	159
<표 5-3> 전문 과정 내용 체계 표	159

그림 목 차

<그림 5-1> 교육의 목적,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들 간의 관계	155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점자는 촉각의 특성에 적합하게 고안된 문자이다. 1784년 세계 최초의 시각 장애 특수 학교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당시,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가르친 문자는 점자가 아니라 일반 문자를 양각화한 것이었다. 정안인 교육자들은 일반문자를 양각화해 가르치면 시각 장애 학생들이 문자를 자유롭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촉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였다는 것이 점자의 발명과 시각 장애 교육의 역사가 입증해 준다.

시각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통합하여 뇌에 전달하므로 선중심의 상징 체계가 적합한데 비해, 촉각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뇌에 전달하고 지각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점 중심의 문자 체계가 적합하다. 브라유(Louis Braille)가 점자를 처음 발표하였을 때 대부분의 정안인 교육자들은 시각 장애인이 일반 문자와 다른 별도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때문에 점자는 브라유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파리 맹학교에서 공식적인 문자로 채택된 것이다(김영일, 2010; 박순희, 2014; 임안수, 2008; 홍성계·김영일·김호연, 2011).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하는 매체이다. 신경생리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점자 읽기는 단지 촉각 정보 처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매우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수반한다(Hannan, 2006). 또한 뇌는 가소성이 있으므로 어느 연령기에 점자를 학습하더라도 점자 사용은 뇌를 활성화시키며, 시각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받아들여더라도 보다 정교한 인지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시각 장애가 비록 일반문자 사용의 곤란을 초래하더라도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체 매체이다.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참여 및 직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점자를 의사소통의 한 가지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 가입 당사국은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제9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점자 등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하여야 한다(제2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 가입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

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점자 사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며, 교육 단계별로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4조).

2014년 국립국어원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시각 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시각 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은 ‘시각 장애인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자’를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고, ‘디지털 정보 환경에 부합하는 점자 규범 정비와 기술 개발’을 임무(mission)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 연구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점자 소통 원활화를 위한 점자 생활 환경 구축’ 및 ‘디지털 지향 점자 기술 개발’이라는 주요 추진 과제 3개를 선정하였고, 주요 추진 과제별로 세부 과제를 3개 또는 4개씩 제시하였으며, 세부 과제별로 5년간 연도별로 추진할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다.

‘점자 연구 및 실용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4개의 세부 과제 중 하나는 ‘점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반 정비’이며,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은 이 세부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에 수행할 세부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2014년 전국의 1~4급 시각 장애인을 장애 등급, 지역 및 성별을 유층으로 하여 표집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41.6%만 점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88.9%가 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영일 등, 2014).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의 90%가 중도 시각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한글 점자를 반포한 지 90년이 되는 2016년은 ‘점자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이 법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이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사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중도 시각 장애인이 실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점자를 학습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면서 효과적으로 점자를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연구 목적 및 목표

이 연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점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점자 실용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외국과 우리나라 점자 교육의 실재를 조사한다.

셋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가 되는 점자 교육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한다.

넷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3.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는 ‘점자 지도사’와 ‘점자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점자 지도사’는 공식적인 양성 과정 또는 검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점자 교육자가 아니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부 또는 지회, 한국시각 장애인여성연합회 등의 지부 또는 지회, 시각 장애인 복지관, 점자 도서관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에서 점자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 ‘점자 학습자’는 실명 시기, 중복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생애 발달의 어느 단계이든지 간에 시각 장애가 발생하여 시각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활 교육의 일부로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거나 설문 조사 당시 학습하고 있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4.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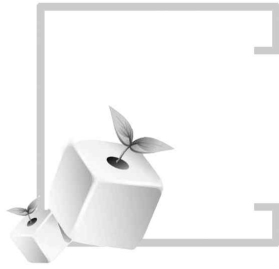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이다. 점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점자 교육 실재를 조사하기 위해 단행본, 학술지,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였다(제2장 참조). 또한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자 교육 교재를 수집하여 교재를 분석하였다(제3장 참조).

둘째, 면담 조사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점자 지도사와 중도 실명 후 점자를 학습한 점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제4장 참조). 초점 집단 면담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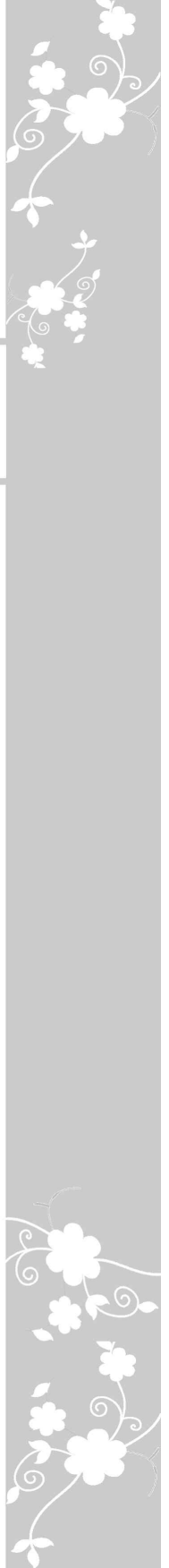
셋째, 설문 조사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실태와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제4장 참조). 설문 조사는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점자 지도사와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점자 학습자를 각각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부록 1>과 <부록 2> 각각 참조).

넷째, 전문가 협의회 개최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시안을 마련한 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 자문위원단은 시각 장애를 전공하는 특수 교육, 사회 복지, 재활 상담 분야의 전문가 4인과 시각 장애 특수 학교 교사, 점자 지도사, 장애인 복지관 점역·교정사 등 현장 전문가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부록 3> 참조).



제 2 장

점자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점자 교육의 원칙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교육할 때 유념할 교육 원칙은 선-집중·후-완화 원칙, 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 우선 원칙, 진단적 교수(diagnostic teaching) 원칙, 개별화 원칙이다. 점자 교육의 각 원칙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김영일, 2010; Wormsley, 1997).

1) 선-집중 · 후-완화 원칙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교육할 때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완화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기의 집중적인 지도는 한 회기의 지도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회기의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회기 시간은 3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며, 한 회기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학습자가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학습자는 전에 취하지 않던 자세와 위치에서 손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므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점자를 지도하는 도중 학습자가 목을 자주 돌리는지, 어깨를 구부리는지, 한숨을 크게 쉬는지, 실수를 더 많이 하는지, 피곤하다고 불평하는지 등에 대해 교수자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교수자는 휴식 시간을 자주 허용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교실을 잠깐 걷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점자 학습에 집중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한 회기의 시간 길이보다 지도 횟수의 빈도와 규칙성이 더 중요하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처음 점자를 지도할 때에는 매일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점자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장기간 지도하는 것보다 2~3개월을 목표 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일 또는 적어도 이틀 간격으로 점자를 지도한다.

학습자가 점자를 익힐수록 점자 지도사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 결국 학습자가 새로운 읽기 매체인 점자로 자신의 읽기·쓰기 관련 요구를 충족할 만큼 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자 지도사는 점자를 간헐적으로 지도하여도 될 것이다.

2) 기능 문해 우선 원칙

기능 문해란 읽기·쓰기 매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초 문해(basic literacy)란 읽기·쓰기 매체를 학습과 직무 수행에 활용하는 것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처음 점자를 지도할 때 기초 문해보다는 기능 문해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리 등(Harley, Truan, & Sanford, 2003)은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시계, 온도계, 전열 기구, 측정 도구 등에 있는 점을 읽을 수 있다.
- 엘리베이터, 빙고나 카드, 기타 게임 도구 등에 적힌 점자 숫자를 읽을 수 있다.
- 의약품, 식품, 의복 등에 표기된 점자를 읽을 수 있다.
-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점자로 읽을 수 있다.
- 식단, 요리 방법, 사용 설명서 등을 점자로 읽을 수 있다.
- 편지, 일기, 가계부 등을 점자로 쓸 수 있다.
- 짧은 이야기와 노래 가사를 점자로 읽을 수 있다.
- 점자 도서를 읽을 수 있다.
- 컴퓨터 및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진단적 교수 원칙

진단적 교수란 평가와 교수를 병행하는 것이다(Koenig & Holbrook, 1989).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진단과 교수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 도구는 거의 없다. 점자 지도사가 읽기 관련 평가 도구, 시각 장애 관련 평가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진단적 교수는 평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지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읽기 지도의 전 단계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반복하고, 평가를 통해 지도 방법을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

4) 개별화 원칙

점자 지도사가 점자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과 선천적 시각 장애인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습자는 대부분 중도 시각 장애인이므로 읽기 경험이 있고, 기본적인 문해 기술(literacy skills)을 습득하고 있을 것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언어의 상징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생각과 말을 문자나 점자와 같은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글자와 소리의 관

계에 관한 음운론, 문법, 독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Crawford & Elliott, 2009).

중도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중도 시각 장애인들 간에도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중도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인은 시각 장애 발생 연령, 장애 발생의 급성 여부, 기능 시각 수준, 예후, 시각 이외의 건강 문제, 점자 학습 이전의 문해 기술, 점자 학습에 대한 동기, 점자 및 시각 장애에 대한 태도 등이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시각 장애와 관련된 여러 변인을 고려하여 점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가 발생한 연령이 높을수록 개념 발달, 음운론, 문법 등 인지·언어적인 내용보다는 손과 손가락의 기민한 운동, 촉지각 민감도,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전략 등에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시각 장애가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학습자는 충격, 분노 등 심리적으로 아직 점자를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점자뿐만 아니라 보행과 일상생활 기술 등 시각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적응 기술 등을 학습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과중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시각 장애가 점진적으로 발생한 학습자는 저하되는 시력을 사용하여 목자를 읽어 오면서 읽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해 왔을 수도 있다. 현재의 기능적인 시각으로 목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이더라도 점자를 제2 문해 매체(secondary literacy medium)로 습득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자주 하는 직업을 가진 학습자, 목자를 읽을 때 빨리 눈의 피로를 느끼는 학습자, 시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는 학습자 등은 특히 점자를 습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자를 지도할 때 학습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촉각이 둔하므로 점자 읽기를 지도할 때 기능적인 접근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헨리크스와 무어하우스(Henrichs & Moorhouse, 1969; Harley, Truan, & Sanford,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표준적인 점자의 두 점 사이 간격이 2.2mm인데 당뇨병이 없는 시각 장애인은 그 간격이 1.6mm인 경우도 식별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시각 장애인은 그 간격이 최소한 2.5mm가 되어야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뇨가 있는 시각 장애인은 개별 점을 촉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확대시켜 주거나 점 자체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질병의 종류, 사고 유형에 따라 체력과 지구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점자를 학습하기 어려운 학습자도 있을 수 있다. 학습자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주 졸거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점자 지도사는 건강기록부를 검토하고, 학습자와 면담하며, 다른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아 점자 지도 방법을 조절한다. 지도 목표를 낮추든지, 수업 시간을 짧게 하든지, 수업 시간에 휴식을 자주 허용하든지, 수업과 수업 간의 시간 간격을 넓히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적용한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현재 문해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점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습자가 똑같이 25세에 급성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더라도 읽기 수준, 독서에 대한 흥미, 일상생활 및 직업에서 요구되는 읽기의 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시각 장애 발생 이전에 독서를 많이 하였고, 읽기 및 철자 수준이 높았으며, 학업이나 직무 수행을 위해 독서를 자주 하였던 학습자는 시각 장애로 인해 목자를 읽을 수 없게 되어 상실감도 크게 느끼겠지만 일단 점자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점자를 학습하게 되면, 기존의 읽기 관련 기술 등이 점자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시각 장애 발생 이전에 독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읽기 관련 기술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음운 지식 등 기초 읽기부터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점자를 지도할 때 학습자의 점자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학습자는 아직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충격, 불안, 우울, 분노 등 정서적인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학습자가 시각 장애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인 반응은 곧바로 점자 학습에 영향을 준다. 점자는 시각 장애와 관련되어 습득해야 할 기술이므로, 시각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점자를 학습할 동기가 부족할 것이다. 점자 학습 이전에 습득한 읽기 기술이 우수하고, 손과 손가락의 정교성과 촉지각의 민감도가 높은 학습자일지라도 시각장애 및 점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점자 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점자 지도사는 특히 점자 지도 초기 단계에 이러한 심리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점자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점자 읽기 교육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읽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점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점자 읽기 학습에 대한 동기를 우선 강화하고, 적절한 몸 자세와 순조로운 손·손가락 운동 및 예민한 촉지각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점자 기호를 지도하고, 단어 재인과 읽기 유창성을 촉진시키며, 학습을 위한 점자 읽기 전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점자 지도사가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읽기를 교육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기술하고자 한다(김영일, 2010; Wormsley, 1997).

1) 점자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 강화

점자를 처음 학습하여야 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은 점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Harris, 1987). 점자는 ‘전맹들’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습자는 점자를 배우는 것이 자신을 이제 완전히 맹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점자 읽기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각 장애로 인해 점자를 배워야 한다는 현실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과연 새로운 읽기 매체인 점자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하므로, 특히 첫 시간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점자 지도 시 일어날 수 있는 가설적인 상황으로서 점자 지도사가 학습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제시한다(Ponchillia & Ponchillia, 1996).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씨(37세)는 2년 전 녹내장으로 인해 완전히 실명했다. 그는 아직도 시력 상실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전 친척으로부터 소개받아 시각 장애인 복지관을 알게 되었고,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그가 점자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개별화 재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최씨는 점자 지도 첫 시간에 점자 지도실에 오지 않았다. 최씨를 기다리던 점자 지도사는 10분 이상을 기다려도 최씨가 오지 않자, 복지관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대기실에서 최씨를 발견하였다. 점자 지도사는 최씨에게 점자 수업 시간인데 왜 점자 지도실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최씨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점자와 지팡이는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나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점자 지도사는 대답했다.

“물론, 최 선생님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습자들도 처음에는 최 선생님처럼 힘들어하지요. 오늘은 억지로 하고 싶지 않군요. 그러나 최 선생님은 점자를 배울 수 있고, 점자를 배워 두면 분명히 주유소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방에서 점자에 대해 간단히 알려 주겠습니다.”

최씨는 “그만 두시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고함쳤다.

오후 늦게 최씨는 점자 지도사를 찾아와 오전 일에 대해 사과하였고, 다음날 아침 점자 수업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점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감정에 공감을 나타내 주고, 학습자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점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점자의 실제적인 효용을 시연해 줄

필요도 있다. 끈기 있게 기다려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점자 지도를 미룰 필요도 있다 (Harley, Henderson, & Truan, 2004).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한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다양한 단서를 민감하게 지켜봄으로써 학습자가 점자 학습에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점자 지도사는 점자에 대해 계속해서 열의와 관심을 보이면서 학습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점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점자 학습을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로 여기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학습자에게 역할 모델로 소개한다. 역할 모델은 가능한 한 연령, 성별 등 학습자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적합하다. 점자의 유용성에 대해 점자 지도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신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간 다른 중도 시각 장애인이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 점자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적합한 역할 모델을 찾기 위해 같은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과거 점자 지도를 받았던 시각 장애인, 현재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점자 지도 이외에 다른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각 장애인, 다른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는 시각 장애인 등을 널리 알아본다. 학습자와 역할 모델이 직접 만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전화를 통해 서로 연락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다른 시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직무 수행을 위해 점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점자 표시 읽기, 친구들 연락처를 점자 주소록으로 정리해 두기, CD 제목을 점자로 적어 보관하기 등을 관찰하게 한다. 침술원을 운영하는 시각 장애인이 고객 정보나 임상 일지를 점자로 기록해 두고, 각종 점자 의학 서적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 등을 관찰하게 한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 관련 보조 공학 기기를 소개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점자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북돋아야 한다. 최신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분량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낼 수 있는 첨단 기기가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점자를 지원하는 보조 공학 기기 활용을 통해 시각 장애 발생 이전에 종사하던 직업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 읽기를 지도하면서 재활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할 필요도 있다. 학습자가 시각 장애에 대해 계속해서 분노하고 거부한다면 점자를 비롯한 시각장애와 관련된 다른 어떤 자립 생활 훈련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에게는 상담을 병

행함으로써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점자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점자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조차 점자 읽기 속도가 단시일 내에 증가하지 않으면 점자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 읽기 속도는 목자 읽기 속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두 배 또는 세 배 느리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해 줌으로써 읽기 속도가 해당 학습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더욱이, 중도 시각 장애인은 촉각 민감도가 낮아 어려서부터 점자를 사용해 온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 비해 읽기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Trent & Truan, 2003). 실명 이전 목자를 효율적으로 읽었던 학습자는 점자를 느린 속도로 읽어야 하는 자신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점자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열의와 관심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점자뿐만 아니라 다른 듣기 매체도 사용하게 하고, 점자와 듣기 매체 각각의 유용성을 설명해 준다.

2) 올바른 점자 읽기 자세 형성

학습자가 점자를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읽도록 점자 읽기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습자의 앉는 자세와 책의 위치 등 올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학습자는 점자 자료를 읽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한다. 점자를 읽을 때 곧게 앉지 않으면 빨리 피곤하게 될 것이다.

점자 자료를 놓을 책상은 학습자가 곧게 앉았을 때 허리 또는 팔꿈치 높이가 적절하다. 책상 높이가 팔꿈치보다 높을 경우 학습자의 아래팔과 위팔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이하가 되며, 두 손을 책 위에 편평하게 둘 수 없게 되므로 독서를 오래 할수록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된다(Ponchillia & Ponchillia, 1996; Wormsley, 1997).

학습자는 가능한 한 책상에 가까이 앉고, 점자 자료는 학습자가 팔꿈치를 몸 가까운 쪽 책상 가장자리에 위치했을 때 점자 자료의 가장 윗줄이 학습자의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학습자와 점자 자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학습자가 점자 자료를 읽을 때 두 팔을 책상 위에 둘 수 있으며, 이러한 팔의 위치는 장시간 독서하는 데 유리하다. 자료는 학습자 몸의 전면과 평행하고 학습자의 아래팔과는 수직이 되도록 놓는다. 예를 들어 점자 자료를 시계 방향으로 너무 멀리 회전시켜 두면 /마/를 /나/로 잘못 식별할 수 있다. 학습자 몸의 전면과 자료를 평행하게 두지 않으면 점자 읽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점자 자료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두꺼운 고무판 등을 점자 자료 밑에 놓아둔다. 점자를 읽기 위해서는 두 손을 빠르고 협력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점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일 경우 낱장 점자 자료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낱장 자료가 미끄러지면 점자 식별에 방해가 된다.

3) 순조로운 손과 손가락 운동 촉진

점자는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Foulke, 1991; Lowenfeld, Abel, & Hatlen, 1974; Ponchillia & Ponchillia, 1996; Wormsley, 1997). 왼손과 오른손 간에 점자 읽기 효율성의 차이는 없다(Nolan & Kederis, 1969). 개인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 손이 다른 쪽 손보다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으나, 점자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점자를 읽을 때 두 손을 사용하더라도 각 손의 역할은 서로 달리한다. 왼손은 현재 읽는 줄의 중간 부분까지 읽고, 오른손이 이어받아 그 줄의 오른쪽 후반부를 읽는 동안 왼손은 다음 줄의 위치를 확인해 둔다. 오른손이 다 읽은 다음 왼손이 다음 줄을 읽기 시작함으로써, 학습자는 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읽을 수 있다(Mangold, 1982; Swenson, 1999; Wormsley, 1997).

점자를 읽기 위해 각 손의 둘째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엄지를 제외한 다른 세 손가락들도 둘째 손가락과 함께 현재 줄을 따라 점자 위에 두도록 지도한다(Swenson, 1999; Wormsley, 2004). 엄지를 제외하고 모든 손가락을 점자 줄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들여쓰기한 부분, 중간에 정렬된 제목, 각 줄의 끝, 기타 점자의 공간 배열 등 효율적으로 점자 자료를 훑어 읽을 수 있게 한다. 한 손가락이 지각할 수 있는 지각 범위는 점자 한 칸 넓이에 불과하므로,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하고 각 손가락의 촉각 민감도(tactile sensitivity)를 증가시켜 두면 페이지 양식, 각 줄 시작의 상대적인 위치 등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점자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전면 부드러운 피부 부위로 읽도록 지도한다. 점자를 손가락 끝으로 읽는다고 흔히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배겨 있거나 손톱이 길어 점자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의 굳은살과 손톱은 점자를 읽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점자는 손가락의 마

지막 마디의 전면, 즉 손가락의 말관절과 손톱이 없는 쪽 손가락 끝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읽는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가 손가락으로 점자 줄을 가볍게 접촉하도록 지도한다. 점자를 잘 읽는 시각 장애인은 손가락을 점자에 가볍게 접촉하고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면서 손을 이동하는 데 반해, 점자를 서투르게 읽는 시각 장애인은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어 점자를 누르고 손 운동의 속도도 느리며 운동 패턴에 있어서 변화가 빈번하다(Foulke, 1991). 점자를 읽을 때 손가락에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점자를 더 잘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이 점에 접촉하는 한, 접촉이 강하지 않더라도 점자를 읽을 수 있다. 점자를 처음 읽는 학습자는 점자 읽기에 익숙하지 않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점을 너무 세게 누르는 경향이 있다. 가벼운 접촉이 촉각 식별과 읽기 속도를 증가시킨다. 가벼운 접촉을 촉진하기 위해 첫째, 점자 교육 초기 단계에는 수업을 짧게 하고 휴식을 자주 제공한다. 둘째, 수업 중 필요할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긴장 이완 기법을 적용하게 한다. 셋째, 점자 위에 색깔 있는 분필을 놓고 손가락에 가능한 한 분필 가루가 적게 묻도록 점자를 만지게 한다.

학습자가 현재 줄을 순조롭게 따라 읽고, 다음 줄을 정확하게 찾도록 지도한다. 가능한 한 손가락을 위아래로 문지르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점자 읽기를 처음 학습하는 시각 장애인도 손가락을 위아래로 자주 문지르는 경향이 있다. 점자 읽기 교육의 초기 단계에 학습자의 그러한 습관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점자줄 따라가기는 학습자가 줄을 잃지 않으면서 손을 순조롭게 이동하고, 손가락을 가볍고 정확하게 점자에 접촉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다(Harley, Truan, & Sanford, 2003; Mangold, 1978; Swenson, 1999; Wormsley, 2004). 점자 지도사는 자신의 손등 위에 학습자의 손을 덮어 놓은 상태로 순조로운 점자줄 따라가기 손운동을 시연해 준다. 종이 위에 볼펜이나 연필을 가로로 놓고 나서 학습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구부려 볼펜이나 연필을 덮으면서 손가락 마지막 마디 전면이 종이에 닿게 한 후 줄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게 한다. 다음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점자줄을 따라 두 손을 이동하도록 한다. 이때 점자 기호를 식별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점자는 촉각을 매개로 지각하며, 그러한 촉각은 운동을 요구하므로 점자 기호를 식별하지 않고서도 순조롭게 손을 이동하는 점자 줄 따라가기 연습이 필요하다. 점자 줄 따라가기 활동을 실시할 때 처음에는 점자 지도사가 학습자의 손가락 끝을 자신의 손으로 안내해 주거나 점자 줄 위에 자를 경계로 놓고 학습자가 점자 줄을 잃지 않도록 보조해 줄 필요도 있다.

점자 한 줄 따라가기를 지도한 다음, 여러 점자 줄 간의 이동을 지도한다. 처음에는 두 손을 동시에 현재 줄의 오른쪽 끝까지 이동하게 한 다음, 다시 왼쪽 끝으로 돌아와서 두 손이 다음 줄로 함께 내려가도록 지도한다. 다음에는, 두 손을 오른쪽 끝까지 함께 이동하게 한 다음 오른손은 정지해 있고 왼손만 이동하여 다음 줄 왼쪽 끝을 찾게 하고, 오른손이 다시 왼손과 합류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손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줄의 중간까지 함께 이동한 후 오른손만 오른쪽 끝까지 이동하고 그동안 왼손은 다음 줄 시작 부분을 찾게 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점자 줄 따라가기 연습을 하는 도중 학습자가 실수를 되풀이하면 촉각 민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에게 휴식 시간을 준다. 손가락의 촉각이 무뎠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손과 손가락에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게 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Wormsley, 2004).

점자 줄 따라가기와 점자 줄 간 이동을 지도하기 위해 처음에는 2-5점으로 된 점자 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각 줄은 빈칸 없이 2-5점을 찍고, 줄과 줄은 두 줄 또는 한 줄씩 비워 둔다. 학습자가 점자 줄 따라가기에 익숙해짐에 따라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빈칸을 두고, 점자 줄과 점자 줄 사이에 빈 줄을 두지 않으며, 2-5점뿐만 아니라 1-4점 또는 3-6점을 군데군데 두는 등 다양한 점자 줄 따라가기 연습 자료를 제작한다. 2-5점을 사용한 다음에는 1-2-4-5점, 1-3-4-6점, 1-2-3-4-5-6점 등 점의 형태를 단계적으로 달리해 가면서 점자 줄 따라가기와 점자 줄 간 이동을 지도한다.

4) 손가락의 촉각각 개발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촉각이 예민한 것은 아니다. 촉각은 훈련과 활용을 통해 점차 개발시켜야 한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촉각각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먼저, 학습자가 두 손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사물을 조작하도록 지도한다. 시각 장애인은 자칫 사물의 일부만을 만지고 나서 그 사물을 전부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경과 사물을 탐색하는 데 손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중도 시각 장애인은 손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생소할 것이다. 시각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는 한 눈을 대신해 손을 사용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사물의 모양, 크기, 촉감, 온도 등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물의 속성을 손으로 만져가며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점자 지도사는 상대적으로 큰 촉각 자극을 식별한 후 점차 작은 자극을 식별하도록 학습자를 지도한다. 모양, 크기, 촉감, 온도 등이 서로 다른 자극을 변별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촉각 민감도를 개발한다. 이러한 촉각 민감도 개발을 통해 결국 점자의 '점'이라는 촉자극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점자 지도사는 다양한 촉자극을 수반하는 사물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촉각 변별력을 개발한다. 각종 옷감, 사포, 아교 먹인 모래, 알루미늄, 합판, 이쑤시개, 빨대, 단추, 동전, 끈, 면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촉각 민감도를 증진시킨다. 이때 게임이나 활동을 고안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물 중심의 촉각 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점자를 활용한 촉각 훈련을 실시한다. 사각형, 원, 삼각형 등 각종 도형을 크기와 수, 위치를 달리해 점자로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비교하며 분류하게 한다(Stocker, 1987). 한쪽에 걸쳐 제시된 점자 도형의 수 세기, 가장 큰 도형 또는 가장 작은 점자 도형 찾기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점자 줄 따라가기 활동에서와 같이 다양한 점자 도형 자료를 제작하여 여러 가지 점자 도형을 만져보고 식별하게 한다.

점자 기호 식별을 훈련시키기 위해 점자 읽기 자료를 제작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Wormsley, 1997).

- 2-5점을 한 줄 제시하되 규칙적으로 빈칸을 둔다.
- 2-5점을 한 줄 제시하되 불규칙적으로 빈칸을 둔다.
- 1-3-4-6점을 한 줄 제시한다.
- 1-3-4-6점을 한 줄 제시하되 빈칸을 사이사이에 둔다.
- 1-2-3-4-5-6점을 한 줄 제시한다.
- 1-2-3-4-5-6점을 한 줄 제시하되 빈칸을 사이사이에 둔다.
- 1-3점, 4-6점, 1-6점, 3-4점 등을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1-3점, 4-6점, 1-2점, 2-3점, 4-5점, 5-6점 등을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1-3점, 4-6점, 1-2점, 2-3점, 4-5점, 5-6점, 1-6점, 3-4점 등을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1-6점, 1-5점, 3-4점, 2-4점, 3-5점, 2-6점 등을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1-6점, 2-4점, 1-5점, 5-6점, 1-2점, 3-5점, 2-6점, 1-3점, 4-6점, 1-3점, 3-4점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1-3점, 1-6점, 2-4점, 1-5점, 5-6점, 1-2점, 3-5점, 2-3점, 4-5점, 2-5점 등을 각각 한 줄씩 제시한다.
- 두 칸을 단위로 빈칸을 하나씩 두고 두 칸 중 첫 칸은 1-2-3점, 다른 칸은 1점 2점 3점 중 두 점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줄을 제시한다.
- 두 칸을 단위로 빈칸을 하나 두되 첫 칸은 1-2-3-4-5-6점을 모두 찍고, 다음 칸은

한 점을 제외한 다양한 조합의 5점을 찍은 줄을 제시한다.

- 각기 다른 개수의 점으로 구성된 줄을 제시한다.
- 1-2-3-4-5-6점, 4-5-6점, 1-2-3점, 1-2-3-4-5-6점의 순서로 찍은 줄을 제시한다.

5) 단어 재인 지도

학습자가 점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손과 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기초적인 촉각 변별력을 보이면 점자 기호를 지도한다. 먼저 점자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시키고, 정자와 약자 등 점자 기호를 암기하게 한다.

점자 한 칸은 가로로 2점, 세로로 3점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 칸 내 점의 각 위치마다 고유 번호가 있으므로 위치별 점 번호를 알려준다. 즉 첫째 줄의 위에서 아래로 각각 1점, 2점, 3점이며 둘째 줄의 위에서 아래로 각각 4점, 5점, 6점이다.

점자 한 칸의 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물을 활용한다. 점자 지도사는 달걀, 탁구공, 바둑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점자 모양(점형)을 제시하여 각 점의 번호를 말하게 한다.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에서 제작한 ‘점자 학습 보드’를 활용하여 각 칸에 들어가는 점자 알을 다르게 배열함으로써 점자 구성에 대해 이해시킨다. 또한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에게 점자 번호를 불러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점형에 맞게 사물을 배열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자가 점자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점자는 결국 손가락을 통해 지각하여야 하지만, 점자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각을 활용하여 점자를 보게 할 필요도 있다(Foulke, 1991). 어떤 사물을 사용하든지 간에 한 칸 내 왼쪽과 오른쪽 점들 사이와 한 칸과 연이은 다른 칸 사이의 간격을 약간 차이가 나도록 배열한다.

학습자가 점자 한 칸의 구조와 각 점의 위치를 이해하면, 점자 기호를 암기하게 한다. 점자 기호에는 정자와 약자가 있다. 정자를 먼저 지도하고 나서 약자를 지도한다.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003)에서 개발한 “성인용 점자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초성 자음, 된소리 표, 기본 모음, 종성 받침, 복모음, 아 빼기 약자, 약자, 약어, 숫자, 문장 부호 등의 순서로 점자 기호를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자 기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 초성 자음과 받침은 모양이 같으나 위치가 다르다. 즉, /ㄴ/, /ㄷ/, /ㅁ/, /ㅋ/, /ㅌ/, /ㅍ/, /ㅎ/ 등은 초성을 아래로 이동시키면 각각 받침이 된다. /ㄱ/, /ㄹ/, /ㅂ/, /

- ㅅ/, /ㅈ/, /ㅊ/ 등은 오른쪽 점들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각각 받침이 된다.
- 초성 이음은 항상 생략한다.
- /애/, /에/, /와/ 등 이중모음은 목자와 달리 별도로 기호가 있다.
- ‘아 생략 약자’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나이’, ‘다음’, ‘마을’, ‘바위’, ‘자유’, ‘카이로’, ‘타올’, ‘파인애플’, ‘하였습니다’ 등과 같이 /아/를 포함하는 음절에 받침이 없고, 다음 음절이 본래 초성 이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아/ 생략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성’, ‘정’, ‘청’ 등 자음 /ㅅ/, /ㅈ/, /ㅊ/, /ㅍ/, /ㅑ/ 다음의 약자 /ㄱㅇ/은 /ㄱㅇ/으로 대신한다.

한 줄 전체를 같은 글자로 하되, 글자와 글자 사이에 한 칸씩 빈칸을 둔 점자 자료를 만들어 학습자에게 읽기 지도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ㄴ/, /ㄷ/, /ㄹ/, /ㅂ/ 등과 같이 두 점을 사용하는 자음을 연습시킨다. 점의 수, 점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달리한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학습자에게 손가락으로 느끼는 점자의 번호를 말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글자가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각 칸에서 느끼는 점자 번호를 말한 후 사용되지 않은 점자 번호가 무엇인지도 말하게 함으로써 점자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한다.

다음에는 각기 다른 두 글자로 된 자료를 사용하여 읽기를 지도한다. 두 글자를 번갈아가며 제시한다. 학습자가 90% 정확하게 식별할 때까지 두 글자를 임의의 순서로 배열하면서 읽게 한다.

서로 반대되는 모양의 글자 읽기를 연습하게 한다. /아/와 /야/, /어/와 /여/, /오/와 /요/, /우/와 /유/, /으/와 /이/가 각각 서로 대조된다. 자음에 있어서도 /ㄷ/과 /ㄹ/, /ㄱ/과 /ㄷ/, /ㅍ/과 /ㅎ/이 각각 서로 대조된다.

글자 단위로 읽기를 지도한 후 단어 단위로 읽기를 지도한다. 특별히 연습시킬 필요가 있는 글자가 있을 경우 그러한 글자가 나오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를 각각의 점자 줄에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읽기 연습을 하게 한다. 글자 수, 음절 수, 각 단어에서 특정 글자가 나오는 순서 등을 고려해 가면서 읽기 자료를 만들어 사용한다.

점자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할 경우 처음에는 줄과 줄 사이에 한 줄씩 비워둔다. 각각의 점자 줄 안에서도 글자 또는 단어 사이에 처음에는 빈칸을 자주 두다가 점차 빈칸 수를 줄인다.

단어 단위 읽기 지도를 위해 단어 카드를 사용한다. 목표로 설정할 단어는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과 관련된 것을 선택한다. 단어 카드는 왼쪽 모퉁

이를 잘라내어 학습자가 점자 단어를 거꾸로 두고 읽지 않도록 미리 방지한다. 어느 쪽 모퉁이를 잘라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6) 점자 읽기 유창성 증진

학습자가 점자 기호를 익혀 단어를 재인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점자를 유창하게 읽도록 지도한다. 점자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따라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반복 읽기, 예측하여 읽기, 훑어 읽기 등이 있다. 또한 학습자가 점자를 읽을 때 손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뒤로 되풀이해서 간다든지 하는 습관을 점자 지도사가 교정해 주는 것도 학습자가 점자를 유창하게 읽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 읽기 전략이란, 학습자가 점자 지도사의 낭독 또는 녹음 자료를 들으면서 점자 자료를 따라 읽는 것이다. 학습자가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점자 지도사는 읽는 속도를 조절한다. 점자 지도사는 규칙적이든지, 불규칙적이든지 읽는 것을 간헐적으로 중단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 단어를 읽게 한다. 따라 읽기를 위해 녹음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음색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자는 속도를 늦춘다. 다음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녹음 자료를 듣지 않고 이미 한 번 읽은 자료를 다시 읽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 자료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킨다.

소리 내어 읽기도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길이가 짧고, 단어가 쉬우며, 내용이 흥미 있는 읽기 자료를 선정한다. 명시, 인기 가요 가사, 콩트, 수수께끼, 학습자가 외워 읽을 수 있는 노래 등이 적절하다.

반복 읽기도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이다. 학습자가 2-3회기의 점자 지도 시간에 걸쳐 1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글자 수의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글자 수에 기초하여 학습자가 도달할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는 학습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읽을 수 있는 평균 글자 수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다. 현재의 읽기 속도에 기초하여 5분간 읽을 길이의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 자료를 읽게 하고 평균 읽기 속도를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가 자료를 다 읽고 나면 자료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읽는 도중에는 교정하지 않는다. 같은 자료를 5~6회 반복해 읽게 하며, 각각 읽기 속도를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한다. 목표에 도달하거나 학습자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면 반복 읽기를 멈춘다. 목표에 도달한 경우 강화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읽기 속도 목표를 낮추거나 휴식을

제공한다. 동일한 목표를 5~6회 달성한 학습자의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에 적합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게 한다. 다음 목표는 읽기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되, 학습자가 성공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도록 고려해야 한다(Wormsley, 1997).

예측하여 읽기란 독자가 단어의 일부 글자를 읽으면서 그 단어를 예측하여 읽는 것이다. 점자를 유창하게 읽는 사람은 처음 몇 글자만을 읽고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데 익숙하다고 한다(Kusajima, 1974; Wormsley, 1997, 재인용).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점자 읽기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측 기술을 지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빈칸 채우기(cloze) 절차이다. 학습자의 흥미와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택한다. 처음과 마지막 문장은 완전하게 제시하되 그 사이에 오는 문장들은 단어 또는 글자를 빈칸으로 둔다. 각 단어의 마지막 글자를 빈칸으로 두고, 점차 익숙해지면 단어의 마지막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빈칸으로 둔다. 각 문장에서 다섯 번째 단어마다 빈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규칙 없이 특정 품사나 주요 단어를 선택하여 마지막 몇 글자를 빈칸으로 할 수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기본적인 인자·언어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므로 문맥을 단서로 한 예측하여 읽기가 가능할 것이다.

점자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점자 읽기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학습자가 점자를 읽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점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의 연령, 관심, 직업 등에 적합한 점자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각종 점자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도서관 회원 가입 절차를 안내한다. “점자새소식” 등 점자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여 읽도록 소개한다. 혼자서 점자를 읽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점자 읽기 유창성이 증가하므로 학습자의 자기 보고에 기초하여 점자 읽기에 할애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한 가지 지도 전략이다.

위아래로 문지르기(scrubbing)와 역행하여 읽기(backtracking) 행동을 교정한다. 점자 읽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행동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위아래로 문지르기가 역행하여 읽기보다 훨씬 더 점자 읽기 유창성에 심각한 문제이므로 위아래 문지르기 행동은 즉시 교정해 준다.

훑어 읽기 전략도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한 페이지 또는 그 이상의 점자 자료를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점자 지도사가 제시하는 단어를 찾도록 한다. 찾아야 할 단어를 활동마다 달리한다(D’Andrea, 1997).

7) 생활과 학습을 위한 읽기 전략 지도

학습자에게 다양한 읽기 방법을 지도한다. 모든 자료가 점자로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점자 자료를 구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지만 일상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점자로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은 점자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방법은 각종 녹음 자료, 인쇄물 음성 변환 기기(예: VoiceMate)를 활용한 듣기, 컴퓨터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듣기, 직접 사람과 마주 앉아 읽는 대면 낭독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방법마다 효용성이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각각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면 낭독을 할 경우 시각 장애인이 읽기 목적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점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종이에 출력된 점자 자료뿐만 아니라 점자 정보 단말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자료 유형에 따른 기본 양식과 읽기 전략을 지도한다. 일상생활과 직업을 위해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 약관, 신문, 각종 서류, 백과사전 등 수많은 종류의 자료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은 자료마다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는지 누군가의 설명이 없다면 알 수 없으므로 점자 지도사는 우선순위가 높은 자료의 기본 양식 등을 학습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주된 양식을 점자로 출력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점자로 출력하기 곤란하다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학습자의 손가락을 안내해 가면서 자료의 시각적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림, 그래프, 지도, 사진 등 각종 시각적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 지도 등 각종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두드러질 전망이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에게 각종 시각 자료 읽는 법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도표의 경우 줄과 칸의 제목을 각각 나열해 준 다음, 내용상 중심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줄 또는 칸을 순서대로 다시 읽어 주며 해당하는 내용을 읽게 한다. 그림이나 사진 등의 경우 중요한 것과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읽도록 지도한다.

3. 점자 쓰기 교육

점자 쓰기는 일반적으로 점자 읽기와 병행하여 지도한다. 점자 쓰기 지도는 점자판, 점자 타자기,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점자 쓰기 도구 지도와 철자법, 작문 등 일반적인 쓰기 기술 지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들은 주로 점자판을 사용해 왔고, 점자 타자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 점자 정보 단말기가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점자 쓰기를 지도할 필요도 있다. 이 절에서는 점자판을 사용한 점자 쓰기 지도만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점자판(slate board)은 점간(slate)과 점필(stylus)이 별도로 필요하다. 노트용 점자판과 수첩용 점자판 등은 점자판과 점간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점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점자판 쓰기의 장점은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점자를 쓰는 데 있어서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그러나 점자판 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하므로 처음에는 쓰기를 배우기가 어렵고, 점자를 쓰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뒤집어야 하며, 점필 사용과 점간 이동에 있어서 정교한 소근육 운동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점을 한 점 한 점 찍어야 하므로 쓰기 속도가 정안인의 묵자 쓰거나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한 점자 쓰기보다 더 느리다.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손을 안내하여 점자판과 점필을 만져가면서 점자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점자판에는 점자지(braille paper)를 고정시키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는데 점자지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바닥면과 덮개에 뿔족한 점이 두 개씩 있다. 점자판은 점간을 고정하도록 양쪽에 9쌍의 구멍이 있다. 점간은 32칸으로 된 두 줄 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점 칸 중에서 11번째, 21번째, 31번째는 다른 칸과는 달리 움푹 파여 각 줄에서 칸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점간은 점자판에 있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밀받침이 있다.

다음에는 점자지 끼우는 법을 지도한다. 점자판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점자지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점자판 왼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남은 점자지 부분을 접는다. 접힌 점자지를 좌우로 뒤집어 접힌 부분이 오른쪽 위에 오도록 한 다음, 점자판 위의 뚜껑을 열어 점자지의 가장자리와 점자판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잠금장치를 닫는다.

학습자에게 점필 쥐는 법을 지도한다. 점필은 거의 대부분 오른손으로 쥐는다. 점필 윗면이 집게손가락의 둘째 및 셋째 관절 사이 손가락 전면이 닿도록 집게손가락으로 점필 위를 감싼다. 점필을 바로 쥐는 경우 다른 손가락의 보조 없이 집게손가락만으로도 점필을 공중에서 들고 있을 수 있다.

점자판의 쓰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점자 읽기와 마찬가지로 점자를 쓸 때 1-2-3점을 먼저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Ponchillia & Ponchillia, 1996). 점자 읽기 교육을 통해 이미 점자 기호를 습득한 학습자에게 점자판으로 점자를 쓸 때에는 점자를 반대로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 학습자는 혼란스러워 한다. 따라서 점자판 쓰기의 방향이 점자 읽기

의 방향과 반대이지만 1-2-3점이 먼저 온다는 점은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가 동일하다고 설명하면 학습자는 점자판 쓰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점 번호를 암기해 둔 학습자는 점자판으로 쓸 때 1점이 먼저 오므로 오른쪽 위에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점필은 수직으로 누르도록 지도하며, 너무 힘을 세계 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도한다. 힘을 세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찾아 수직적으로 점필을 누름으로써 점자가 찍힌다. 학습자가 오른손으로 점필을 사용할 때 왼손 집게손가락은 점필의 아랫부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찍고자 하는 점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오른손은 왼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서 점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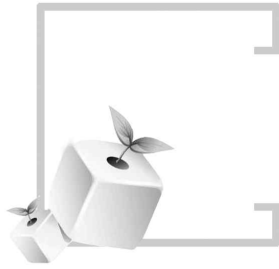
4. 선행 연구 고찰

Buchel, Price, Frackowiak & Friston (1998)은 선천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적 기억과 경험이 시각 중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PET로 뇌를 촬영한 결과, 녹음된 단어 청취는 시각 장애인의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반면 점자 읽기는 시각 장애인의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중도 시각 장애인의 시각 중추 활성화가 선천 시각 장애인의 활성화 정도보다 높은 결과가 중도 시각 장애인의 시각적 기억, 경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Burton 등(2002)도 점자 읽기 과제 수행 시 시각 중추가 활성화하는지 조사하였다. FMRI 영상 촬영 결과, 선천 시각 장애인이든지 중도 시각 장애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점자를 읽을 때 시각 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uchel, Price, Frackowak, & Friston (1998) 등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Burton 등의 연구에서는 선천 시각 장애인의 시각 중추 활성화 정도가 중도 시각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urton 등은 중도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읽는 손과 같은 쪽 시각 중추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반면, 선천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읽는 손 반대쪽의 시각 중추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urton 등(2003)은 이와 같이 상충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중도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일종의 모양으로 정보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점자 읽기는 선천 시각 장애인이든지 중도 시각 장애인이든지 간에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키지만, 중도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모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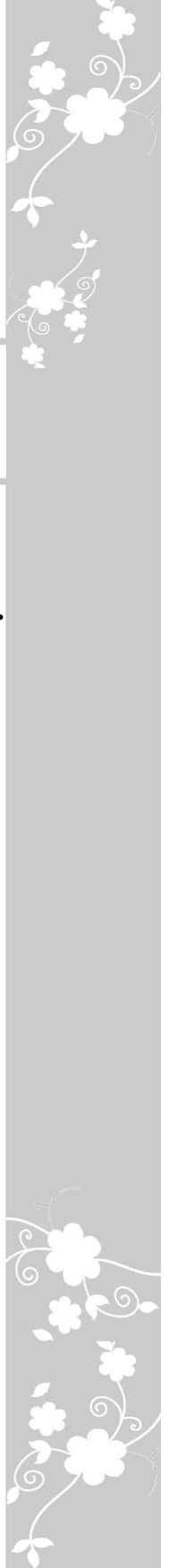
중도 시각 장애인과 선천 시각 장애인 간에는 시각적 독서와 촉각적 독서 간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뇌의 활성화에 있어서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다.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구역이 촉각 자극에 반응하는 구역보다 넓기 때문에 촉각 기억 용량이 작아 촉각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x, 1995). Rex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촉각 기억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점자를 학습하고 유지하는 데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뇌는 그 자체를 재조직할 수 있으므로 시각 중추의 활성화는 촉각 기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과 우리나라 점자 교육의 실제



1. 미국의 점자 교육

1) 점자 교육 전달 체계

(1)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미국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는 크게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시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주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06년에 설립된 뉴욕의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Inc.)와 1921년에 설립된 뉴욕의 '미국 맹인 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을 들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시각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공공 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는 민간 재활 시설 약 300개소, 저시력 센터 약 200개소, 점자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 지원 시설 약 250개소, 컴퓨터 훈련 기관 약 100개소, 안내견 학교 14개교 등이 있어 미국 시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에 관한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Moore, Huebner, & Maxon, 1997).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는 연방정부 보훈성 산하 맹인 재활 병원과 보훈 병원 부속 맹인 재활 진료소, 시각 장애 노인들을 위한 자립 생활 센터, 주 재활국이 나 맹인 재활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시각 장애인이 된 개인이 적응력과 자립 생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훈성 산하 맹인 재활 기관들은 재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시각 장애 노인을 위한 자립 생활 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는 「재활법」을 근거로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직업 재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시각 장애 노인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자립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국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정부 산하의 재활국 또는 맹인 재활국이다. 미국의 24개주에는 모든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국이 주-연방 직업 재활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다른 26개 주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만을 관장하는 시각 장애인 재활국과 다른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업을 관장하는 재활국이 병존하고 있다(Rumrill, Jr., & Scheff, 1997).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국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은 주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재활국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활국이 별도로 설립된 것은 1893년 코

네티켓 주를 비롯해 주-연방 직업 재활 사업이 시행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 단위 기관이 1943년 「바든-라 폴릿법」의 통과 이후 연방 정부의 직업 재활 예산을 배정받아 시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유래한다(Cavanaugh, 1999).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각 장애 재활국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은 「재활법」 개정 시기를 전후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각 장애인 재활국은 일반 재활국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하며, 시각 장애가 보다 중증이고, 시각 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내담자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더 드는 대신 고용이라는 재활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vanaugh, Giesen, & Pierce, 2000; Rumrill, Jr., & Scheff, 1997).

맹인재활국은 본부 및 지역별 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맹인 재활국 산하의 크리스 콜 재활센터(Cris Cole Rehabilitation Center), 켄터키 주 맹인 재활국 산하의 맥다울 센터(Mcdowell Center) 등을 들 수 있다. 크리스 콜 센터는 텍사스 주 오스틴 시에 소재하며, 텍사스 주 맹인 재활국 재활 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시각 장애인을 평가하고, 개별화 재활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며, 고용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직업 적응 훈련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재활 기관 서비스 전달의 주요 과정은 내담자의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진단 및 평가, 적격성 판정, 개별화 고용 계획 작성, 훈련 실시, 취업 알선, 배치, 추수 지도 등이다. 재활 기관에서 흔히 시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보조 공학 평가 및 훈련, 자립 생활 훈련, 직업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직무 적응 훈련, 직업 준비 훈련, 직업 배치, 보행 훈련, 지원 고용 등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은 이러한 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점자지도 전문가

미국에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시각 재활 치료사(vision rehabilitation therapist)이다. 시각 재활 치료사는 과거 재활교사(rehabilitation teacher)가 2000년 이후 개칭된 것이다. 재활 교사의 현대적인 기원은 1880년대 무운(William Moon)이 펜실베이니아 가정 방문 지도 협회를 설립하고, 맹인들에게 점자성경 읽기를 지

도한 것에서 발전했다고 한다(Ponchillia & Ponchillia, 1996). 재활 교사의 주요 업무는 시각 장애인들의 고용, 자립 생활,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가정에서 보상 기술과 보조 공학을 지도하는 것이다. 재활 교사가 지도하는 구체적인 교수 영역은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시각 재활 치료사는 대학의 학사 과정이나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서 재활 교육을 전공하고 35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시각 재활 치료사는 중도 시각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 기술을 지도하며, 직업 재활과 관련하여 경제 활동 연령의 시각 장애인이 자립 생활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1> 시각 재활 치료사의 지도 영역과 세부 내용

지도 영역	세부내용
의사소통 체계	점자, 묵자 쓰기, 녹음 기술, 전자 도서 사용, 컴퓨터 사용 등
개인 관리	머리 손질하기, 위생, 의복 보관, 의료적 측정, 사회화 기술 등
가정 관리	조직 및 명찰 붙이기, 수선 및 집 관리, 예산 및 장부 기록하기 등
일상생활 활동	요리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안전 수칙, 돈 보관 및 관리 등
여가 생활	취미, 목공예, 도자기 공예, 운동 등
시각장애의 사회 심리	자아 개념, 정체감 형성, 장애에 대한 태도, 심리적 적응 등
건강관리	개작된 의료 장비의 평가, 교수 및 훈련
기초 보행 기술	안내법, 상부 및 하부 보호법 등

출처: <http://www.acvrep.org>

2) 점자 교육 교재

(1) Touch And Tell

Touch And Tell 은 Betty Duncan이 1974년 개발한 기초 수준의 점자 지도서이다. 이 자료는 본래 아동들의 촉각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을 위해 읽기 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이다.

Touch And Tell 은 세 권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1권과 2권은 모양, 크기, 점 간격 등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자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권에는 점선 따라가기를 비롯하여 촉각 훈련을 위한 자료를 제시한 후 알파벳을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 Illinois Braille Series

Illinois Braille Series 는 현재 제2 개정판이 보급되고 있다. 초판은 1933년 Raymond

Dickinson, Margaret Howse, Anna Johnson L. W. Rodenberg 등이 개발하였다. 이 교재가 출판된 1933년은 미국과 영국이 영어 점자 표준을 합의한 바로 다음 해이며, 이 책은 표준화된 영어 점자를 시각 장애인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교재는 1960년 점자 규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1992년 현대 언어를 고려하고 점자 쓰기 연습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 다시 개정되었다. 이 교재는 총 2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약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 ABC's of Braille

ABC's of Braille 은 1973년 Bernard Krebs 가 개발한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서이다. 이 지도서는 우선 점자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기초 수준의 점자를 익힌 다음 자기 주도적으로 점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자기 나름의 진도를 정해 풀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4) Read Again

Read Again 은 이미 일반 문자를 사용하고 있던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미국맹인인쇄소(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 지도서는 각 차시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가장 먼저 점으로 된 도형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였고, 단계에 따라 점자를 소개한 후 점자 읽기 연습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5) The Braille Connection: A Braille Reading And Writing Program for Former Print Users

The Braille Connection 은 기존의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재인 Read Again 과 The McDuffy Reader 을 통합시킨 점자 교육 교재이다. The Braille Connection 은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자용 교재가 각각 개발되어 있으며, 목자본과 함께 점자본이 보급되고 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점자 읽기 준비
- 알파벳 점자, 점자판 쓰기 및 숫자
- 대문자 표기와 주요 문장 부호
- 숫자와 단위
- 문자 표기와 단어

- 한 칸 약자
- 두 칸 약자
- 5점 전치 약자
- 기타 두 칸 약자
- 점자 타자기 쓰기 등
- 축어

2. 일본의 점자 교육

1) 점자 지도의 실제

(1)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점자 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7월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각 장애 유관 기관에 설문지를 보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8개소였다. 응답자는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고, 응답자의 연령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점자 지도 경력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으로 편차가 많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6명이었다. 응답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는 재활센터 직원 2명, 시각장애학교 교사 2명, 시각 장애인협회 직원 1명, 점자도서관 직원 1명, 병원 직원 1명, 대학교 직원 1명이었다. 소속 기관·단체의 소재지를 보면 2개소는 도쿄이고, 나머지 6개소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일본의 점자 교육 실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1. 점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중도 시각 장애인을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2. 수업 방법은 1 대 1 형식입니까, 집단 형식입니까?
3. 통신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4. 점자 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 장애인은 개인용 컴퓨터나 음성 사용이 가능한 주변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5.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측면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6.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학습자 개인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6-1. 선천성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 간 점자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성별, 연령 및 시각 장애 원인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각각 무엇입니까?
- 6-3. 시각 장애 이외의 장애를 수반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 지도 시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다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9.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에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는 무엇입니까?
- 9-1. 주로 사용하는 교재(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9-2. 주로 사용하는 교구(도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9-3. 주로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의 장점, 단점 및 보완 방법은 각각 무엇입니까?
- 9-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를 위해 새로운 교재나 교구를 개발한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지도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1. 점자 학습의 기간과 빈도는 각각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0-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환경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11-1. 평가는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 11-2.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습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11-3. 점자 학습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도구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1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2) 조사 결과

(가) 교육 대상 모집 방법

일본에서는 점자 교육 대상 중도 시각 장애인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복지협회와의 협력, 각종 홍보활동, 홈페이지, 소개 등을 통해 교육 대상인 중도 시각 장애인을 모집하고 있다. 소속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나) 교육 집단 구성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실시할 때 집단 구성은 주로 일대일 형식이었다. 초급 이후에는 목적과 수준에 따라 집단 형식의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곳도 있었다.

(다) 통신 교육 실시 여부

이 연구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을 통신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 점자 교육 실태 조사에 응답한 8개 기관/단체 소속 점자 지도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을 통신 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라) 보조공학 기기 활용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교육을 실시할 때 후쿠시마 현립 맹학교와 국립신체장애인 재활 센터 그리고 병원에서는 음성기반 보조 공학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머지 기관에서는 점자 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음성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필요성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단순한 학습의 의미를 넘어 문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 기록, 독서, 서류를 시각 장애인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 점자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에서 고려하여야 할 학습자 개인 특성

일본의 점자 지도사는 시력 이외에 다른 장애 여부와 특성을 파악하고, 손끝의 예민한 감각을 학습자와 함께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점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점자 교육 면에서 선천성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의 공통점은 점자만의 독특한 규칙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손끝으로 읽는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 간의 차이점은 선천성 시각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중도 시각 장애인보다 일찍 교육을 시작하여 읽는 속도가 빠르고, 중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손끝의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 읽기 속도는 빠르지 않으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배경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별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은 흥미나 관심의 차이 정도, 앞으로 활용할 방법과 목적 의식 그리고 시각 장애인과 점자 지도사가 이성일 경우 손가락 접촉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접촉하는 것 등이다. 연령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점자 습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 기간이나 수업 구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각 장애 이외의 장애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은 다른 장애의 유형, 손끝의 감각에 따른 신경 상태, 그리고 학생의 시력 상태에 따른 실내의 밝기나 책상의 배치 등 환경을 편하게 조성하는 것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시각 장애 이외의 장애를 수반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손끝의 감각이 약할 경우에는 왼손 대신 오른손으로 읽는 방법, 크고 선명하게 나온 블록 교재를 이용하는 방법,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부위로 읽게 하는 방법,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뚜렷한 말투로 말하는 것,

전혀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손가락 점자를 훈련하는 것, 지적 장애에 대해서는 과제를 쉽게 바꾸어 주기도 하고 6까지 숫자를 세지 못하는 경우나 몸이 항상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기울어진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 점자 교육 내용

일본 점자 지도사들은 점자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어, 하이쿠, 탕카, 유행가 가사, 동화 등 흥미 있는 내용 읽기, 점자 그림 읽기, 일기나 편지 작성하기, 점자 타자기, 점자 스티커, 컴퓨터를 활용하여 점자 쓰기 등을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아) 점자 교육 방법

점자 지도사마다 점자 교육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점자의 구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느껴졌다. 일본 점자 지도사들이 사용하는 점자 지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점자 학습기를 가지고 점자 구성을 이해하게 하고, 두 글자 단어를 만들게 한다. 그런 후 학습자와 점자 지도사가 교대로 단어를 작성하여 퀴즈 형식으로 서로 문제를 낸다. 점자 도입 단계에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에 흥미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점자 교육의 진척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점자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점자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혼란을 초래하고 '점자는 어렵다'고 하면서 점자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읽기와 쓰기 중 어느 한 쪽에 중점을 두고 점자 교육을 진행한다.

- ② 점자 지도사마다 자신이 교육하면서 사용하던 텍스트(이해하기 쉬운 글자부터)를 읽게 한다. 50음을 청음부터 읽게 한 후 탁음, 요음, 특수음, 한 단락의 문장, 단위, 숫자, 알파벳 등을 읽게 한다. 퍼킨스 타자기로 쓰기 연습을 하게 한다.
- ③ 점자 읽기부터 교육한다. 즉 점을 만지는 방법부터 지도한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하나씩 늘려 나간다.
- ④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교재를 사용하면서 50음을 한 글자씩 만져서 읽도록 지도한다. 시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확대목점자를 사용하고, 시력이 목자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지름 1cm 정도의 자석이나 구슬을 사용하여 점자의 형태를 머리 속에 이미지로 그리게 한다. 만지는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단계에서 점자판을 사용하여 점자 쓰기를 지도한다. 점자를 쓸 때에는 읽을 때와 글자가 반대가 되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점자 쓰게 하는 쪽이 습득하기 쉽고, 성취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점자를 쓴 다음에는 반드시 스스로 읽어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⑤ 점자 읽는 방법부터 지도하고,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서 점자 쓰기 연습을 시작한다. 일대일이므로 학습자 개개인의 속도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 ⑥ 점자 쓰기는 퍼킨스 타자기를 사용하면서 50음, 단어, 역 이름, 인사말, 동화 등 조금씩 길고 어려운 것으로 확대한다. 점자 읽기도 짧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소리 내어 읽게 할 때도 있다. 점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면 많은 분량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게 한다. 하루에 40페이지 정도를 꼭 읽게 한다.
- ⑦ 축독 연습용 텍스트를 사용한다. 음식 시리즈나 꽃 이름 시리즈 등 읽고 즐거운 단어만을 나열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 일기 형식의 메모 등 점자를 쓰는 데 익숙해지도록 한다.
- ⑧ 점선 따라가기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옆으로 가는 움직임만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강화 한다. 점자를 123점과 456점의 반 칸씩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123점을 중심으로 글자 읽기를 시작한다. 같은 글자 찾기, 두 글자 단어 읽기 등을 일찍부터 도입한다. 한 칸 띄운 읽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읽을 수 있었던 글자를 사용한 짧은 문장을 수시로 읽게 한다.

(자) 점자 교육 교재와 교구

일본에서 점자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교구는 점자 학습기, 점자판, 점자 큐브, 표준점자

기, 휴대폰용 점자기, 퍼킨스 점자 타자기 등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점자 지도 매뉴얼”과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입문”이 대표적이다. 점자 지도사가 직접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고, 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서적 등을 점자로 제공하기도 한다. 점자 지도사들이 제작하는 교재는 글자 도입 → 글자 형태 확인 → 단어 예시 → 짧은 문장을 사용한 50음, 탁음, 숫자, 요음, 특수음, 알파벳, 부호 순으로 학습하도록 교재를 구성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의견은 다양했다. 몇 가지 교구에 대한 평가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점자 학습기는 점자 모형을 만지면서 사용할 수 있어 도입하기 좋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점자 학습기는 현재 판매되지 않고, 점자를 구성하는 버튼이 깨지기 쉽다.

퍼킨스 점자 타자기는 읽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쓴다는 점이 장점이다. 퍼킨스 점자 타자기는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고 무거워 들고 다니기 힘들다.

점자판은 휴대하기가 편하고, 부피도 크지 않으며, 구입할 때도 보조 범위 내에서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적다. 반면, 좌우 반대의 인지가 어려운 학습자가 사용하기 어려우며, 종이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종 교재는 점이 지워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문이 적고, 처음 접하기에는 점자 크기가 작으며, 종이 부피가 크고, 점자가 뜨거워지기 쉬우며,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이 예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를 위해 새로운 교재나 교구를 개발한다면 넓은 점 간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의 크기와 재질, 버튼 형식으로 누르기 쉬운 모형, 누구라도 쓰기 쉬운 것, 싸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단계별로 실력 향상을 실감할 수 있는 구조, 개인의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재, 현재의 정보로 최신화해 나가는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실시 전략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우선 중도 시각 장애인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놀이와 같은 형식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수업을 계획·실행한다. 일대일 형식의 수업뿐만 아니라 집단 형식의 수업도 효과가 있다.

점자 교육은 매일 실시하고, 교육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빈도가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숙제를 내어 점자를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환경은 점자 지도사와 학습자가 일대일로 마주보고 지도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집단으로 낭독하여 서로 도우며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카) 점자 교육 평가

점자 교육 평가를 위해 점자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 기관뿐이었다. 점자 교육 평가 빈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부터 단위별 및 기간별로 상황을 보며 수시로 평가한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습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어 글자와 단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점자로 표현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점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 등이었다. 점자 학습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도구나 방법은 읽기 속도, 일기 작성, 문장에 대한 이해도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습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여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타) 기타 의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의 점자 지도사들이 제시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도 시각 장애인은 대부분 점자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점자 교육을 거쳐 실용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 것 같다. 그것은 IC레코더, 개인용 컴퓨터, 플렉스토크 등 다른 정보 통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 점자는 순간적인 메모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시각 장애인이 대부분 교육을 희망했다. 요즘 점자를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을 보면 점자에 몸담아온 직원으로서 쓸쓸함을 느끼곤 한다. 점자의 훌륭함을 계몽하고 옛날처럼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중도 시각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셋째, 개개인의 능력이나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알맞는 교재나 지도법이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

넷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습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계속하겠다는 의지

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점자 습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억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개개인에게 맞춤형의 지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컴퓨터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점자를 처음으로 배우는 기간에는 점자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점자의 필요성이나 학습 의욕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개인에게 맞는 교재를 준비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응용성이 교사에게 필요하다.

2) 일본의 점자 지도 교재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자 교육 교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촉독 지도 매뉴얼』 과 문부성이 발행한 『점자 학습 안내서』 이다. 일본의 주요 점자 교육 교재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촉독 지도 매뉴얼』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촉독 지도 매뉴얼』 은 ‘지도를 시작하기 전’ 항목에서부터 시작하여 12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를 시작하기 전’에서는 먼저 점자 학습자와 점자 지도사의 위치, 촉독의 지도 방법, 손가락으로 읽기와 점자 읽기 속도, 교재 구성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단계]에는 촉지각 평가법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점자에 대한 개요와 만지는 방법, 점선 따라가기, 점 따라가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2단계]부터는 1단계에서 학습한 8글자의 복습, 단어, 문장 읽기 연습을 비롯하여 히라가나 등 실제로 점의 위치를 변형시켜 가며 점자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2단계]가 되면 본격적인 읽기 연습으로 들어가 청음만으로 문장 읽는 연습을 하도록 짜여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촉독 지도 매뉴얼』 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1. 대상자
2. 지도사의 위치
3. 촉독의 지도방법
 - ① 수직 수평 운동에 따른 촉독
 - ② 형태 잡기 지도
 - ③ 틈 잡기 지도

- ④ 차이 알아보기 지도
- 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며 이동하기 지도
- ⑥ 추측하며 읽는 지도
- 4. 손가락으로 읽기
- 5. 점자 읽기 속도
- 6. 교재 구성
 - ① 한 글자 교재와 두 글자 교재
 - ② 각 단계의 유의 사항

점자 촉독 내용 일람-기록표

[1단계] 촉지각 평가: 점자의 개요, 만지는 방법

줄 따라가기(교재 1): 줄의 설명, 따라가는 방법

줄 따라가기(교재 2): 빈칸이 있는 줄 따라가기

점 따라가기(교재 3): 점 따라가기, 점의 흔적

촉독 8글자: 메(16점)(교재 4), 우(14점)(교재 5), 레(1245점)(교재 6), 후(1346점)(교재 7), 니(13점)(교재 8), 아(1점)(교재 9), 이(12점)(교재 10), 나(13점)(교재 11)

[2단계]

1단계에서 학습한 8글자를 복습, 단어, 문장 읽기(교재 12)

타(135점)(교재 13): 123점과의 비교, 가운데 점이 오른쪽으로

키(126점)(교재 14): 123점과의 비교, 하단 점이 오른쪽으로

스(1456점)(교재 15): 오른쪽 우선 글자, 위 가로선(두 점)을 확인한다.

리(125점)(교재 16): 위2단 오른쪽 위가 겹쳐되어 불안정하다.

[3단계]

사(-6점)(교재 17): 123점과 비교, 아래 두 점이 오른쪽, 135점, 126점, 156점과 구별

케(1246점)(교재 18): 오른쪽 밑에 떨어져 있는 점에 주목하기

예(124점)(교재 19): 12점과 14점과의 결합, 위의 2단이며, 오른쪽 아래가 겹쳐됨.

미(12356점)(교재 20): 오른쪽 위가 없는 글자

[4단계]

하(136점)(교재 21): 위 왼쪽 점, 아래 가로 선

코(246점)(교재 22):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첫 글자, 틈에 주의

라(15점)(교재 23): 위의 2단, 작은 경사, 12점과의 혼동 주의

치(1235점)(교재 24): 오른쪽을 향한 삼각형,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

[5단계]

시(1256점)(교재 25):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운데 선, 126점, 156점과의 혼동 주의

쿠(146점)(교재 26): 위 가로선, 아래 오른쪽 점

츠(1345점)(교재 27): 위 가로선, 오른쪽, 왼쪽
오(24점)(교재 28): 오른쪽에서 작은 경사, 아이우에오 완성

[6단계]

노(234점)(교재 29): 오른쪽에서 '~노(의)'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됨.
로(245점)(교재 30): 이 두 단, 왼쪽 위가 없음, 124점, 125점, 256점과 혼동 주의
카(16점)(교재 3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큰 경사, 13점과 혼동 주의
모(23456점)(교재 32): 왼쪽 위가 없음

[7단계]

마(1356점)(교재 33): 왼쪽, 오른쪽, 가로선. 135점이나 156점과의 혼동 주의
N(356점)(교재 34): 이 단 없음, 아래 두 단
토(2345점)(교재 35): 가운데 가로 선, 234점과의 혼동 주의
누(134점)(교재 36): 이 단 가로선, 아래 단 왼쪽

[8단계]

세(12456점)(교재 37): 왼쪽 아래가 없음
루(145점)(교재 38): 이 두 단, 왼쪽 아래 없음, 124점, 125점, 145점, 1245점, 245점과의 혼동 주의
네(1234점)(교재 39): 왼쪽 다, 오른쪽 위, 1456의 반대
헤(12346점)(교재 40): 오른쪽 가운데가 없음

[9단계]

와(3점)(교재 41): 아(1점)이 내려간 형태
히(1236점)(교재 42): 왼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워(35점)(교재 43): 오(24점)이 내려간 형태
소(2456점)(교재 44): 왼쪽 가운데와 오른쪽 전부, 1235점과 반대

[10단계]

유(346점)(교재 45): 오른쪽 아래, 하단 가로선
테(12345점)(교재 46): 왼쪽 아래가 없음
요(345점)(교재 47): 오른쪽, 오른쪽, 왼쪽. 234와의 혼동 주의
무(13456점)(교재 48): 왼쪽 가운데가 없음

[11단계]

호(2346점)(교재 49): 오른쪽, 왼쪽 아래 가로선
야(34점)(교재 50):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점을 확실하게 식별
작은 츠(2점)(교재 51): 왼쪽 가운데, 작은 츠. 축음
-(25점)(교재 52): 가운데 가로 선. 장음 기호

[12단계]

읽는 법(교재 53): 청음만으로 문장 읽기, 마침표 소개

(2) 『점자 학습 지도 안내서』

『점자 학습 지도 안내서』는 1975년에 문부과학성이 시각장애학교에서의 점자 지도를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교재로서 1995년과 2013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점자 학습 지도의 위치 평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점자 학습 지도의 의의, 교육 과정, 점자 학습 지도 등이다. 제2장은 점자 읽기와 쓰기 학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점자 학습의 준비, 동기 부여, 언어 회상 구조와 점자 학습, 점자 학습 지도의 계획과 평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점자 학습의 기초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촉운동 통제 학습과 촉각에 따른 변별 학습, 도형의 변별과 구성 분해 학습, 점 위치 평가와 6점의 명칭 학습 등이다.

제4장은 점자 촉독 학습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양손 읽기 동작 제어, 점자 촉독 구성 학습, 게시적인 점자 읽기 학습, 문절 의식과 띄어쓰기 학습 등이다. 제5장은 점자 쓰기 학습을 시작하는 장으로서 읽기와 쓰기 관련 학습, 점자 타자기, 점자판 등을 이용한 쓰기 학습, 일본어 점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띄어쓰기 학습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6장은 일본어 점자의 각론으로서 점자표기법의 체계적인 학습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타 쓰기 형식과 시험문제와 정답 쓰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7장은 과목별 교과 학습 시 지도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8장은 중도 시각 장애인 및 목자 사용자에게 대한 점자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9장은 점자 사용자에게 대한 한자·가나 혼합 문장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목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자에 대한 학습 내용과 방법, 목자 표기에 대한 변환 학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10장은 점자 사용 환경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점자 사용 환경의 디지털화 개요와 기초적 학습(점자 데이터 읽기와 쓰기, 발전적 학습) 점자를 이용한 입출력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점자 학습 지도 안내서』의 세부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3-2〉 점자학습 지도 안내서 세부 내용

제1장 점자 학습 지도의 위치 평가

제1절 점자 학습 지도의 의의

제2절 교육 과정과 점자 학습 지도

제2장 점자 읽기와 쓰기 학습

제1절 점자 학습의 준비도와 동기 부여

제2절 언어 회상 구조와 점자 학습

제3절 점자 학습 지도의 계획과 평가

제3장 점자학습의 기초

제1절 촉운동 통제 학습

제2절 촉각에 따른 변별 학습

제3절 도형의 변별과 구성 분해 학습

제4절 점 위치 평가와 6점의 명칭 학습

제5절 점자 학습의 기초로서의 구어체 학습

제6절 상징 기능의 학습과 점자 학습으로의 동기 부여

제4장 점자 촉독 학습

제1절 양손 읽기 동작 제어와 점자 촉독 구성 학습

제2절 계시적인 점자 읽기 학습

제3절 문절 의식과 띄어쓰기 학습

제5장 점자 쓰기 학습으로의 도입

제1절 읽기와 쓰기 관련 학습

제2절 점자 타자기를 이용한 쓰기 학습

제3절 점자판 휴대용 점자기를 이용한 쓰기 학습

제4절 점자 기호 쓰기 학습

제5절 띄어쓰기 학습

제6절 문장 구성과 표기 기호 학습

제6장 점자 표기법의 체계적인 학습

제1절 단어 표기법 학습

제2절 띄어쓰기 학습

제3절 표기 기호 사용법 등의 학습

제4절 문장 종류에 따른 쓰기 학습

제5절 기타 쓰기 형식

제6절 시험 문제와 정답 쓰기

제7장 교과별 지도상의 유의 사항

제1절 국어

제2절 점자 수학 기호

제3절 점자 이과 기호 지도

제4절 점자 악보 지도

제5절 영어 점자 지도

제6절 정보 처리용 점자 지도

제8장 중도 시각 장애인 및 목자 사용자에게 대한 점자 학습 지도

제1절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학습 지도

제2절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학습 지도 방법

제3절 목자 사용자에게 대한 점자 학습 지도 방법

제9장 점자 사용자에게 대한 한자-가나 혼합 문장 학습

제1절 점자와 목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2절 목자에 대한 학습 내용과 방법

제3절 목자표기에 대한 변환 학습

제10장 점자 사용 환경의 디지털화 관련 학습

제1절 점자 사용 환경의 디지털화 개요

제2절 기초적 학습(점자 데이터 읽기와 쓰기)

제3절 발전적 학습(점자를 이용한 입출력)

부록 점자 기호 일람

3) 일본에서의 점자 지도법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점자 지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점자 지도법

(가) 문부과학성 방식의 점자 지도법

일본어 점자는 한글 점자와 같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음과 모음이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왼쪽의 123점의 조합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을 정도이다. 거기에 오른쪽의 456점 조합이 더해지면 일단 50음과 요음이 완성된다. 두 칸을 사용하여 단어를 만들 경우에는 앞 칸은 탁음이나 반탁음 등을 나타내며, 뒤 칸은 50음이나 요음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문부과학성이 발행한 “개정 점자 학습 지도 안내서”에서는 도입기의 점자 지도법을 아래와 같은 계층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왼쪽 반 칸 3점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로 세로 1열씩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왼쪽 반 칸 3점으로 이루어지는 8가지 조합을 토대로 6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왼쪽 반 칸만 사용하는 8개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셋째, 왼쪽 8가지 조합 중 어느 한 가지에 오른쪽의 8가지 조합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조합하면 그 글자의 형태를 즉시 판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두 칸을 사용하는 점자의 앞 부호가 주어지면 그 유형에 분류되는 점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중 하나가 임의로 주어지면 두 칸을 사용한 단어의 유형을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점자 지도 시 일반적인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양손 읽기 지도를 중요시하며, 양손의 읽기 속도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둘째, 손가락의 줄 따라가기, 줄 옮기기의 동작 학습을 어떤 페이지에서나 중요하게 다룬다.

셋째, 점 위치의 식별 학습을 충분히 하며, 글자 지도로 쉽게 이행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연습 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학생이 습득하는 내용에 맞게 연습 교재를 보충 자료로 제공한다.

다섯째, 점 위치의 식별 이후의 교재에서는 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서로서 123456점의 글자를 이용한다.

일본의 점자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처음부터 양손 읽기를 도입하는 것이며, 손가락의 줄 따라가기, 줄 옮기기의 동작 학습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 위치의 식별 학습을 충분히 한 후 글자 지도로 이행한다는 점이다. 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3456점을 사용하고 있다. 점자 학습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촉운동의 통제, 식별 능력, 촉공간의 형성, 점의 위치 부여와 양손의 분업 및 협조, 배열 순서, 전후·상하·좌우의 방향 결정, 기준이나 틀을 단서로 한 위치 결정 등이다.

일본에서는 점자를 지도할 때 음성 언어의 분해 및 구성, 상징 기능, 구어의 발달 상황, 점자에 대한 흥미 및 관심 등도 필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점자 읽기 속도와 관련해서는 입문기의 기본적인 읽기 학습을 마친 시점에 2분간 150칸 정도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 교과를 지장 없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1분간 300칸 정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1분간 450칸 정도, 그리고 바람직한 속도로는 1분간 600칸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나) 타동 슬라이딩 방식의 점자 지도법

타동 슬라이딩 방식의 점자 지도법은 1986년에 개발된 것이다. 이 방법은 입문기의 학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도록 요구하면 점자를 읽을 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점의 배치 관계를 촉운동 감각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타동 슬라이딩 방식의 지도법에서 ‘타동’이란 지도하는 사람이 점자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손가락을 들어 점자 위를 슬라이드 시켜 가며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손가락의 위치를 교정 받으면서 적절한 촉운동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초기에는 손가락의 힘 조절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타동 슬라이딩 방법으로 점자를 학습하면 점자 지도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점자 위에 손을 대고 있어야 하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점자 위에 손을 얹으려고 할 때 점자 지도사는 학습자의 손을 조절해 가며 점자를 읽을 때 발생하기 쉬운 손가락 위치의 이탈을 교정하여 촉운동 감각만으로 옆으로 이동하며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본에는 “타동 슬라이딩법: 시각장애 유아동 점자 촉독 지도 프로그램” 안내서가 보급되어 있어 그것에 따라 점자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타동 슬라이딩법을 이용하여 점자 지도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지적 수준은 4세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직선을 원활한 촉압으로 따라가서 끝점에서 멈출 수 있는 촉운동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공간 개념이 있어야 한다.

넷째, 1점과 123456점을 찍고 나서 각각 읽게 하면 점자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수 있는 점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타동 슬라이딩 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처음에는 B5 크기의 점자책 한 줄을 10~15초 정도의 속도로 읽게 한다.

둘째, 초등학생인 경우 도입 단계에는 촉압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점자 지도사가 반드시 손가락을 들어 준다.

셋째, 한 글자 읽기 지도와 이미 배운 글자를 이용한 단어 읽기, 구절 읽기를 병행하며 지도한다. 처음 한 글자만으로 아행에서 와행까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운 글자로 만든 단어 읽기를 병행하며 학습을 진행한다.

넷째, 타동 슬라이딩을 이용한 지도에서는 1분간 120칸 읽을 수 있는 것을 종료 단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 때까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점자를 읽지 않도록 하며, 단독으로 학습하게 하지 않는다.

다섯째, 오른손부터 지도한다. 오른손 읽기를 1분에 100칸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왼손 읽기를 도입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손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법

(가) 하라다식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독 지도법

하라다는 목자를 배우고 난 후 시각 장애인이 된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자 사용이 어려워진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독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 수평 운동에 따른 촉독(가로 세로 읽기)을 권장한다. 점자를 읽을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런 움직임에 어려움이 많은 것에 주목하여 만든 것이다. 이 지도법에서는 1점과 4점이 점(1점)인지 선(1-4점)인지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도법으로서 가로 방향과 더불어 세로 방향의 움직임도 도입한 촉독법이다.

손가락을 가능한 한 세워서 14, 25, 36점을 1단씩 아래로 내려가며 점인지, 선인지를 확인하면서 형태를 파악하여 가장 아래 36점까지 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둘째, 형태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6개의 점의 조합을 모두 기억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형태와 이름을 연결시켜 가며 형태를 파악하게 한다.

셋째, 틈이나 차이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점자는 돌출되어 있는 점뿐만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틈도 중요하다. 틈을 읽는 것이 점자를 인식하는 단서가 되므로, 학습자에게 점 위치를 알려주지 말고 점 사이의 틈의 유무를 단서로 점의 조합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하면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글자 사이의 이동이 중요하므로 한 글자 한 글자의 이동이 능숙하지 못하면 한 칸 띄어 있는 점자는 읽을 수 있으나 연속된 것은 읽을 수 없다. 실제 교육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정확하게 한 칸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지나쳤다, 덜 갔다, 손가락이 기울어져 있다” 등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

다섯째, 추측해서 읽도록 지도한다. 점자를 읽을 때 한 점을 잘못 읽어 엉뚱하게 읽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을 보충하는 지혜가 추측 읽기이다. 문장 경험이 풍부하면 추측하면서 점자를 반은 머리로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빠른 시간 내에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주로 읽는 손가락을 결정한다.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먼저 어느 한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어느 손가락으로 읽도록 하느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것과 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읽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오른손으로 점자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읽는 손가락은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쓰기보다 읽기가 중심이 되는 사용법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왼손만 고집하지는 않고 읽기 쉬운 손가락으로 읽으면 된다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곱째, 점자 읽기 속도를 증진시킨다. 점자를 배우는 많은 중도 시각 장애인들이 읽기 속도가 느려 점자를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노력이나 보유하고 있는 감각의 상태에 따라 점자 읽기 속도가 좌우되지만 개인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자 1페이지(목자 300글자 정도)를 1시간 정도에 읽도록 한 후 차차 시간을 단축시켜 30분, 15분, 10분, 5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한다. 중년 또는 노년의 중도 시각 장애인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받을 경우 1페이지를 읽는 데 10분에서 5분을 목표로 정한다. 점자 읽기 속도가 빨라지면 수직, 수평운동의 읽기 방법에서 되도록 수직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평운동으로 읽도록 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진다.

(나) 칸식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독 지도법

칸(1988)에 따르면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읽기 속도는 1분간 평균 90글자가 대략적인 완성 값이다. 그 습득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로서 20대에 100글자, 30~40대에 80글자, 50대에 60글자를 목표로 설정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읽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문제이다. 고령으로 인한 학습 의욕의 저하 또는 당뇨병 등이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 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점 배치를 기초로 한 점자 습득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점자 지도 도입은 쓰기부터 하기 때문에 점자를 점 배치 패턴으로 학습한 후 촉독 단계에서 상하 운동이 더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셋째, 지도 시간이 부족한 문제이다. 시각 장애 센터나 시각 장애 학교에서 하는 이료 과목 중심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점자 학습의 시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점자 읽기 시간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자의 습득은 언어의 습득처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에 따라 읽기부터 시작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초기의 점자 훈련과 지도는 읽기부터 시작하는데 왼쪽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연속되는 글자를 수직 읽기를 통해 50음도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6개월에서 1년간의 훈련을 통해 1페이지를 10분에서 5분 정도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자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첫째, 점의 조합을 이해하면서 글자를 확인하게 하며, 둘째,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하며 이동을 하게 하고, 셋째,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인하며 문장 형태로 읽어가며 줄을 따라가게 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에서는 시각적인 경험과 그림 등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점 또는 세로 선과 가로 선의 구분을 하게 하여 점자를 가로 2점(점 또는 가로 선) 세로 상·중·하 3단으로 분해하여 점을 파악하고 조합하여 글자로 확인해 가는 수직읽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하라다 방식에 준거).

수직 운동은 손가락을 세워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읽는 것이다. 손가락을 되도록 세워 1단씩 점과 선, 점이라면 왼쪽에 있는 점인지 오른쪽에 있는 점인지를 확인하며 형태를 파악하고, 이름을 붙여 나간다.

수평 운동은 손가락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동하며 읽어 나간다. 점자를 읽는 것은 이 운동이 중심이다. 글자 사이의 이동을 중요시 하면서 손가락의 이동을 원활히 하면 세 글

자 이상의 단어도 읽을 수 있다. 한 글자의 점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확인한 다음 아래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 위의 점을 확인하며 한 글자 정도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수직 수평 운동이 점자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점자 지도사는 한 글자씩의 이동에 대해 지나쳤는지, 덜 갔는지를 알려 준다.

점과 점 사이의 틈 읽기는 틈을 읽는 것이 점의 조합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틈의 유무를 통해 말을 해 주지 않아도 점의 조합과 위치를 인식하게 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인할 때에는 머리로 읽을 생각으로 많이 추측해 보게 한다. 둔한 촉각을 보충하는 강점은 추측 읽기에 있다.

(다) 일본점자도서관판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법

일본점자도서관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징적인 단체 중 하나이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다치바나, 마쓰타니에 의해 만들어진 “점자 입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을 위하여”라는 독학용 점자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1995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점자 학습을 하고자 하나 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독학용으로 만든 교재이다. 이 교재의 기본적인 편집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비게이션 즉 검색과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 독학서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독학하는 데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의 경감과 동시에 가능한 한 학습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하여 검색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둘째, 지도하는 글자의 범위를 제한했다. 독학서이면서 입문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록한 글자는 50음 탁음 반탁음, 요음, 요탁음, 요반탁음, 숫자, 특수음, 알파벳 및 자주 이용되는 기호의 일부로 구성했다.

셋째, 촉감을 배려한 UV 점자를 채택했다. 점자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는 점자를 읽을 때 세게 눌러가며 읽거나 같은 페이지를 반복하여 읽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종이에 출력한 점자는 빨리 지워진다. 종이에 출력한 점자로는 지속적인 학습이 어렵고 의욕도 떨어진다. 따라서 UV 인쇄의 점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 점의 모양과 품질을 달리한 점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업자 선정이 과제가 되고 있다.

넷째, 점자 크기를 고려했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읽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점자 크기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점자의 크기가 해외의 점자에 비해 중도 시각 장애인이 읽기에 작아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저자는 이 교재에서 퍼킨스 타자기로 찍은 점자에 가까운 크기의 점자를 채택하고 있다. 용지 크기는 A4로 1줄 30칸을 레이아웃 원칙으로 선택했다. 실물을 현미경으로 측정한 점자 크기는 지름 1.8mm, 높이 0.35mm, 세로 점 사이 2.3mm, 가로 점 사이 2.3mm, 칸 간격 3.8mm 등이다. 이것은 퍼킨스 타자기로 찍은 점자 크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페이지 수는 점자와 양각으로 표시했다. 페이지 수 표시는 점자로 찍은 숫자 이외에 목자를 점선으로 인쇄한 점선 글자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크기는 세로 18mm, 가로 11mm~14mm 정도이다.

여섯째, 점자와 목자를 동시 표기했다. 이 교재는 독학서라고는 하나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쉽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모든 점자에 가나 표시를 하였다. UV 점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점자와 목자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곱째, 음성 설명을 추가했다. 네비게이션 테이프에서는 검색을 고려하여 알림음의 도입과 줄 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손가락 이동방법은 “하라다식 촉독 지도법”을 채용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테이프에서는 6점 번호로 하는 설명은 피하고 6점 구성을 세로 3점, 가로 2열로 소개한 다음 상중하, 좌우로 설명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1) 근대의 점자 교육

(1)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맹학교는 1898년 평양에 설립된 평양맹학교였다. 평양맹학교는 미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인 홀(R. S. Hall) 여사가 설립한 광혜의원에서 시각 장애인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홀 여사는 시각 장애인 소녀들을 병원의 간호사로 키워내고자 교육을 시작하였다(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 2004).

홀 여사가 소개한 점자는 뉴욕식 점자로서 4점형이었다. 그녀는 뉴욕 점자를 조선의 언어에 맞게 점자 교본을 만들어 기도서와 십계명을 표기하고 교육하였다.

(2) 송암 박두성과 훈맹정음

제생원 맹아부는 일본의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민간 사회사업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경성고아원을 빼앗아 설립한 기관이다. 제생원은 고아, 맹자(시각 장애인), 아자(청각·언어장애인) 교육을 전담하는 3개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맹아부는 1913년 4월 1일부터 수업을 개시하였다. 맹아부의 실질적인 수업은 침안업과 일반 교과로 이루어졌다.

제생원 맹아부 초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은 맹아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한글 점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루이 브라유가 개발한 6점식 점자를 도입하여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과 검증을 반복하면서 발전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평양의 홀 여사와 논의하면서 뉴욕 점자를 6점식 점자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도입하고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점자를 개발하였다. 실제 맹아부의 학생들과 다른 시각 장애인에게 실험과 검증을 거쳐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을 발표하였다.¹⁾

제생원 맹아부는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을 통해 교과 과정과 생활에서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46년 10월 임시 입법 위원에 대하여 맹인이 훈맹정음으로 투표하는 것을 공인시킬 것을 요구하여 채택되었고 이후 국회의원 투표에서도 점자로 투표하였다.

(3) 해방 후 점자 교육

제생원 맹아부를 필두로 시작된 점자 교육은 점차 시각 장애인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1946년 10월 기독교애린선교단은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하고 교육 사업, 점자 도서 출판, 장학 사업, 농축 훈련 및 직업 교육, 기숙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1950년 10월 부산 피난 당시 부산에 부산라이트하우스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은 기존 건물의 전소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라이트하우스는 점자 도서를 출판하였고, 다양한 자료를 점역하였으며, 점자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해방 이후 점자 교육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 2004).

한국 전쟁 이후 열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 장애인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하였지만 미국해외맹인원조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Overseas Blind)이나 한국

1) 박두성, 한글점자에 관하여. 성서한국 제2권 제2호, 대한성서공회, 1956.4. p10~19, 재인용

맹인국제원조고문회(Advisory Committee for International Aid to Blind in Korea) 등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시각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점자 잡지 발간, 맹학교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제생원 맹아부가 해방 후 서울맹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 지역에 맹학교가 설립되거나 직업 보도 시설이 설립되어 시각 장애인 교육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상황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주로 보급된 점자 도서는 성경책이었는데 박두성 선생은 6.25 당시 소실된, 본인이 점역한 성경을 대신하여 1955년부터 성경을 다시 제작하였다.

2) 점자 교육 환경의 변화

(1) 점자 도서관 설립과 점자 도서 제작

1959년 4월 1일 한국맹인국제원조고문회(Advisory Committee for International Aid to Blind in Korea)는 국내 최초의 시각 장애인 도서관인 한국맹인도서관을 개관하였다(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4). 도서관에서는 맹인 대학생들의 교재를 점역하였고, 대출을 위한 다른 도서들도 점역 출판하였다. 이후 한국맹인도서관의 점자 도서들은 연세대학교로 이전되었다가 1984년 6월, 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으로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69년 12월 한국점자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점자 전화번호부, 동양 의학 대전 등을 점역 출판하였으며, 1979년 2월 국내 최초로 점자 도서관 인가를 받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점자 도서관은 점자 도서 제작과 대출을 통해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보급과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점자 도서관은 맹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반 소설책과 점자 악보, 의학 서적 등을 점역하거나 외국에서 기증받아 구비하는 등 시각 장애인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중도 시각 장애인 교육 기관 설립 : 한국맹인재활센터

안과 의사이면서 타자기 개발자인 공병우 박사가 1960년 3월 설립한 서울맹인부흥원은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글 점자와 타자, 보행, 일상생활, 직업 훈련까지 교육하는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 기관이었다. 교육 기간은 총 6개월이었으며 1970년 5월 서울맹인지

도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71년 8월 한국맹인재활센터를 발족하고 1972년부터 2년간의 교육 기간으로 재활 훈련을 시작하였다. 한국맹인재활센터는 1982년까지 총 12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문을 닫았다(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04).

한국맹인재활센터는 중도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점자, 보행, 일상생활을 거쳐 직업 훈련으로 나아가는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의 체계를 정착화시켰으며, 이후 시각 장애인 교육은 한국맹인재활센터의 교육 포맷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맹인재활센터가 재활 훈련 기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자 해외 기관 견학과 함께 직원의 해외 연수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맹인재활센터가 문을 닫은 후 직원들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센터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에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3)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의 확대와 현황

(1) 시각 장애인 서비스 제공 체계로서의 점자 교육

한국맹인복지협회는 1957년 설립되었으나 중간에 구심점을 잃고 유명무실하다가 1981년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에 서울시립노원시각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법인의 명칭을 '한국맹인복지연합회'로 변경(1992년)하고 점자 도서관, 심부름 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였다(<http://www.kbuwel.or.kr/Intro/History>).

연합세계선교회는 한국의 시각 장애인을 지원하면서 1975년부터 시각 장애인학생 스폰서부를 설립하고 1980년대부터는 점역 사업을 본격화했다. 1990년 서울시각장애자재활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의원 단체인 연합세계선교회가 철수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서울시각 장애인 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http://www.bokji.or.kr/sub/sub01_06.php).

이후 실로암시각 장애인 복지관, 성북시각 장애인 복지관 등 시각 장애인 복지관들이 설립되면서 복지관을 통한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하상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송파인성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 장애인 관련 전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광역시와 도에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되어 복지관을 통한 재활 훈련이 보편화되었다.

복지관의 재활 훈련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복지관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점자, 보행, 일상생활 교육의 틀에서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는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이 추가되는 추세였다. 전반적으로 일괄적인 형태의 재활 훈련이 진행되면서 중도 실명 시각 장애인 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전국 15개의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관 재활 훈련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직업 훈련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훈련을 담당하였다. 시각 장애인 직업군인 안마와 침술을 교육하는 기관이나 맹학교로 진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시각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점자와 보행을 익히도록 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 활용과 다양한 문화 활동 경험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각 장애인의 욕구가 변화하면서 복지관의 재활 교육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실명의 원인이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 감각의 문제로 점자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점자 학습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학습자 및 교육자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재활 훈련 방식에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활 훈련과 점자 도서와 녹음 도서 위주로 진행되던 시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전자 도서와 음성 프로그램, 보조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증가는 서비스 전달 체계와 내용 전체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셋째,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 복지관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관 평가 등 외형적이고 성과 위주의 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시각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이다.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조직을 통한 교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에 17개 지부와 192개 지회 조직을 관할하고 있다. 각 지부와 지회는 중앙회의 지침에 따른 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자와 보행,

일상생활,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부와 지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활 교육 항목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점자 교육 및 시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모든 지부 또는 지회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공모 사업은 매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행하던 지부나 지회가 당해 연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예산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으며 직원들이 기본적인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교육 내용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나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4) 점자 교육 교재

점자 교육은 학습자의 상황이나 점자 지도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에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점자 지도는 점자 기호와 약자를 정리한 간단한 교재나 자료를 통해 점자 학습 자체에 중점을 두었는데,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나 10대 이전에 시각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점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촉각이 예민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20대 이후 중도 시각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촉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점자 학습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아래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 재활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점자 교육 실재를 살펴보았다.

(1) 교육 기관별 교재의 특성 분석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총 7개 재활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점자 교육 교재를 수집하였다. 현재 자체 교재를 활용하여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재를 수집하였으며, 다른 기관에서 교재를 구매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하였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와 지회의 경우 자체 교재가 아닌 중앙회와 지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혼용하거나 해당 시도에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점자 지도사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제외했다. 교재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맞춰 점자 지도사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의 교재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 교재 7종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교재의 특성과 종류

번호	교재명	기관 종류	수준	인쇄형태	제본형태	페이지*
1	교재A	A시각 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링제본	20
2	교재B	B시각 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링제본	15
3	교재C	C시각 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링제본	18
4	교재D	D시각 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책제본	48
5	교재E	E시각 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링제본	12
6	교재F	F장애인 복지관	기본	단면인쇄	책제본	15
7	교재G	한시련 지부/지회	기본	단면인쇄	스테이플러제본	10

*표지와 방식을 제외한 실제 내용 기준

각 교재별 특성과 기관별 점자 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교재 A: A시각 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A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1980년대부터 점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정규 점자 교육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총 교육 기간은 16주 4개월로 진행하다가 최근 수시 교육 형태로 전환하였다. 점자 수업 시간을 개인별로 조정하여 주 4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개인의 일정과 진도에 맞춰 조정한다. 점자 지도사를 지원하는 보조 교사가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시각 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글 교재 외에 영어 점자 교재와 무학자를 위한 한글 익히기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학, 과학 등 추가 점자 학습이 필요한 시각 장애인의 경우 중고등학교 점자교과서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나) 교재 B: B시각 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B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6년차 신생복지관으로 개관 초기부터 점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전맹 시각 장애인 직원이 점자 교육을 담당하면서 다른 기관의 점자교재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지도사가 추가 내용을 점역하여 활용하였다. 점자 교육은 1인당 주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으며, 학습자가 고령층이 많아 점자를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시 교육을 원칙으로 개인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였다.

개관 2년차에 점자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해당 지역과 관내 지회 점자 교사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점자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점자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16년 현재 점자 교육을 직업 재활 기초 교육으로 편입하여 직업 훈련을 위한 기본 훈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자 교육 기간은 개인별, 직업 훈련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다) 교재 C: C시각 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C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4년차 신생 복지관으로 점자와 보행,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관 후부터 재활 교육에 대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점자와 보행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와 일상생활을 사회 문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점자 교육 시간은 주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차와 개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었다. 점자 교육 과정은 수시 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점자 출판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정규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점자 도서관이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점자 도서의 대출과 도서관 이용 지도를 통해 점자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글 점자 외에 영어 점자까지 지도하고 있다.

(라) 교재 D: D시각 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D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1990년대부터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전, 후반기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수시 교육을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주 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점자 교육을 진행하며 개인의 진도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한글 점자 교육과 영어 점자 교육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학과 과학 점자를 지도한다. 기관의 특성으로 점역 과정이 활성화되어 있어 개인의 필요한 자료와 점자 도서 제공이 용이하다.

(마) 교재 E: E시각 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E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1990년대부터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자와 보행, 일상생활과 컴퓨터, 사회 적응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점자 교육은 주 2시간에서 30시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개월 정도의 기본 교육 과정이 끝나면 자유롭게 자신의 진도에 맞게 점자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점자를 익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글 점자와 영어 점자 및 개인이 필요로 하

는 점자를 익힐 수 있다.

(바) 교재 F: F장애인 복지관 정규 교재

F장애인 복지관은 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아니나 시각 장애인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다. 자체 점자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점자 도서, 전자 도서 제작과 학습 자료의 점역과 출판, 개인 점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복지관은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독학 교재를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CD에 점자교본의 이용 방법과 학습 방법을 녹음하여 제공하였다. 현재는 「점자 세상」(<http://www.braillekorea.org/>)에서 온라인 강좌로 진행하고 있다. 「점자 세상」은 F장애인 복지관이 운영하는 점자 학습 사이트로, 점자 학습과 점역 프로그램 제공, 점역·교정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한글과 영어, 수학, 음악 점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사) 교재 G: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지회

전국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와 지회에서는 해당 지역 시각 장애인을 위해 재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자 교육의 경우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과 교재를 사용하거나 지부에서 제작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도사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제작하여 일시적,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재 G의 경우는 지방의 지부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형식과 내용은 앞의 교재 A의 구조와 내용을 차용하고 있다.

지부와 지회의 경우 재활 교육을 위해 중앙회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재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는 아니며 지방 자치 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재활 교육 예산 지원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교재별 내용 분석

점자 교재 7종은 점자 교육과 관련하여 기관의 교육 방향과 방법을 담고 있다. 각 교재의 내용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재의 구성

각 교재는 교육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교재별 구성과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교재의 구성과 내용

페이지	교재A	교재B	교재C	교재D	교재E	교재F	교재G
1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2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3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4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5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촉각 훈련	자음 (초성/종성) 쌍받침	자음 (초성/종성)
6	자음 (초성/종성)	자음 (초성/종성) 쌍받침	자음 (초성/종성) 쌍받침	모음	자음과 모음	모음 단어 연습	모음/이중 모음
7	쌍받침 모음/이중 모음	모음 단어 연습	모음 단어 연습	자음	겹받침	이중 모음 뎨'ㅣ'용법	뎨'ㅣ'용법 'ㅏ'생략
8	뎨'ㅣ'용법 'ㅏ'생략	이중 모음 뎨'ㅣ'용법	이중 모음 뎨'ㅣ'용법	자음(된소리)	'ㅏ'생략	'ㅏ'생략	한 칸 약자 두 칸 약자
9	한 칸 약자 두 칸 약자	'ㅏ'생략	'ㅏ'생략	받침	한 칸 약자	한 칸 약자 두 칸 약자	약어 문장 부호
10	약자 연습	한 칸 약자 두 칸 약자	한 칸 약자 두 칸 약자	문장 연습	접속사와 숫자	약어 문장 부호	숫자와 기호 영어 알파벳
11	접속사 문장 부호	약어(접속사) 문장 부호	약어(접속사) 문장 부호	받침(겹받침)	문장 부호	문장 부호 숫자와 기호	-
12	문장 부호 숫자와 산수 기호	숫자와 기호 영어 알파벳	숫자와 기호	문장 연습	알파벳	숫자와 기호	-
13	숫자와 산수 기호 영어 알파벳과 활용 기호	문장 읽기	영어 알파벳과 단위	문장 연습	-	영어 알파벳과 단위	-
14	활용 기호	문장 읽기	문장 읽기	이중 모음 뎨'ㅣ'용법	-	문장 읽기	-
15	문장 읽기	문장 읽기	문장 읽기	뎨'ㅣ'용법 문장 연습	-	문장 읽기	-
16	문장 읽기	-	문장 읽기	문장 연습	-	-	-
17	문장 읽기	-	문장 읽기	문장 연습	-	-	-
18	문장 읽기	-	문장 읽기	약자	-	-	-
19	문장 읽기	-	-	문장 연습	-	-	-
20	문장 읽기	-	-	문장 연습	-	-	-
21	-	-	-	문장 연습	-	-	-
22	-	-	-	약자	-	-	-
23	-	-	-	문장 연습	-	-	-
24	-	-	-	문장 연습	-	-	-
25	-	-	-	문장 연습	-	-	-
26	-	-	-	약어(접속사) 문장 부호	-	-	-
27	-	-	-	문장 부호 영어 알파벳	-	-	-
28	-	-	-	문장 연습	-	-	-
~	-	-	-	~	-	-	-
48	-	-	-	문장 연습	-	-	-

<표 3-2>에서 보듯이 각 교재는 유사한 순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이 대두되기 전에는 촉각 훈련 없이 한글 점자의 기호를 익히는 과정으로 점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7개 기관의 교재는 공통적으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증가가 두드러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것으로, 기존의 자음과 모음, 약자 위주로 간단하게 구성된 한글 교본에서 촉각 교육 부분을 첨부하여 수정·제작되었다.²⁾

(나) 촉각 훈련의 특성

7개 교재의 촉각 훈련은 5개 교재가 5페이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2개 교재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온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 줄 전체를 온점으로 구성하거나 빈 칸을 두어 점자의 칸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예시 3-1> 점자 칸의 촉각 익히기

```

::: ::: ::: ::: ::: ::: ::: :::
::  ::  :::  ::  :::  :::  :::  :::  ::
  
```

점자 한 칸의 감각을 익힌 후 1,4점과 2,5점, 3,6점의 높이를 비교하는 촉각 훈련을 진행하는데, 점자는 점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자 한 칸 내에서 점이 차지하는 높이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때 점의 개수도 중요하므로 1,2,4,5점과 2,3,5,6점의 차이를 구별하고 점이 두 개인 경우와 네 개인 경우의 촉각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또한 1,3,4,6점과 같이 온점과 높이는 같으나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연습도 함께 진행한다.

<예시 3-2> 점자 칸 안의 높이 익히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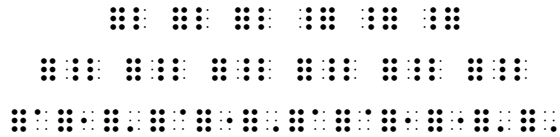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점자는 왼쪽 1,2,3점과 오른쪽 4,5,6점이 모여 6개의 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점자 칸의 좌우에 위치한 점을 구분하는 연습도 중요하다. 특히 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 높이와 좌우 위치가 중요한데, 한글 점자에서 자음이 주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촉각

2) 한글점자 기호를 나열한 10페이지 이내의 교본과 자음과 모음, 약자의 기호를 암기할 수 있도록 카세트테이프 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는데, 카세트테이프는 2000년대 중반까지 판매 및 공유가 이루어졌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음성파일(mp3)로 유통되거나 시각 장애인들이 공유하기도 했다.(연구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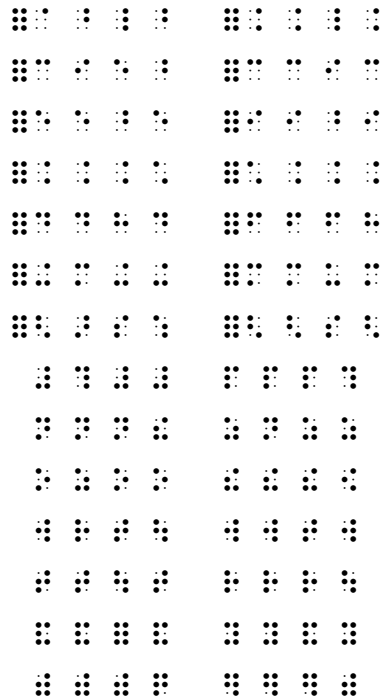
훈련에서 이와 같은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예시 3-3> 점자 칸 안의 좌우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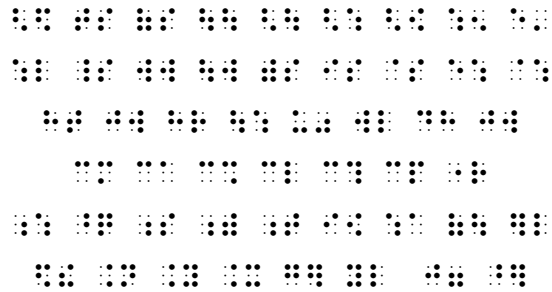
2페이지부터 4페이지(5개 교재)는 본격적으로 점자의 모양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교재도 2~3페이지를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점자는 한 칸에 63개의 점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음과 모음, 약자, 숫자, 부호 등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에서 점들이 구성하는 길이, 기울기, 직각, 거리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재는 온점이나 1,4점 등을 기준으로 각 점형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7개 교재 모두 점형 제시의 세부적인 순서를 제외하고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예시 3-4> 점형 익히기



5개 교재는 5페이지에 모든 점형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촉각을 점의 거리와 모양을 종합하여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글에서 많이 나오는 점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개 교재는 이와 같은 점형의 종합적인 연습 페이지가 제외되었다.

<예시 3-5> 점형 익히기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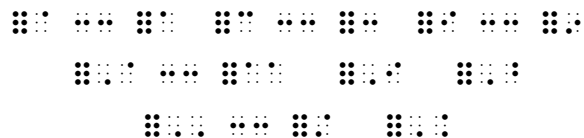
(3) 한글 익히기 구성의 특성

7종 교재는 촉각 연습이 끝난 후 한글 점자를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종은 한글을 익히는 순서는 자음, 모음, 이중 모음, 탄 |'용법, 'ㅏ'생략, 한 칸 약자(두 칸 약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종(교재D)은 모음을 먼저 제시하고 자음, 이중 모음, 탄 |'용법, 'ㅏ'생략, 한 칸 약자(두 칸 약자)으로 나머지는 다른 교재들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 기관의 점자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가 동일한 한글 점자 익히기의 순서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중도 시각 장애인이 한글을 익히는 가장 효율적인 순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이미 한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글 자모음에 해당하는 점형을 익히고 암기하는 것으로 한글 점자를 익힐 수 있다. 점자로 한글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점자 기호와 법칙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종의 교재는 모두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한글 점자를 익히는 가장 빠른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³⁾

각 교재는 자음을 모양을 기준으로 초성과 종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겹받침 쓰는 방법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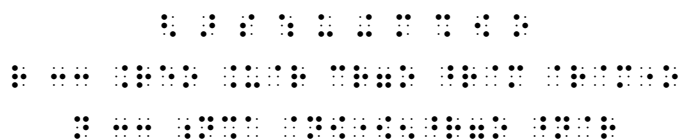
<예시 3-6> 자음(초성과 종성) 익히기



3) 아울러, 중도 시각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점자 교육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점자 교사 및 지도 사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면서 각 기관의 교재가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시각 장애인 복지관 재활부는 1994년 12월 재활 훈련 연구발표회에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쓰기·읽기 지도」를 발표하면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연구자 주)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 장애인복지회, 재활 훈련 발표회, 199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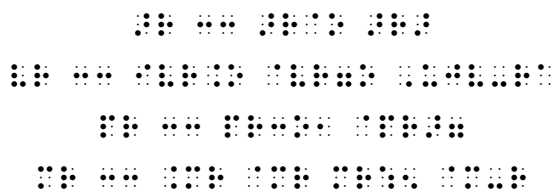
모음은 먼저 기본 모음 10개를 제시하고 한 칸으로 사용하는 이중 모음을 제시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모음은 기본적인 단어를 제시하여 자음과 모음, 이중 모음으로 구성된 단어를 통해 그동안 익힌 점자로 한글을 읽을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재 D는 모음을 먼저 제시하고 있지만 자음을 익힌 후 이중 모음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다른 교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 3-7> 모음과 이중 모음 익히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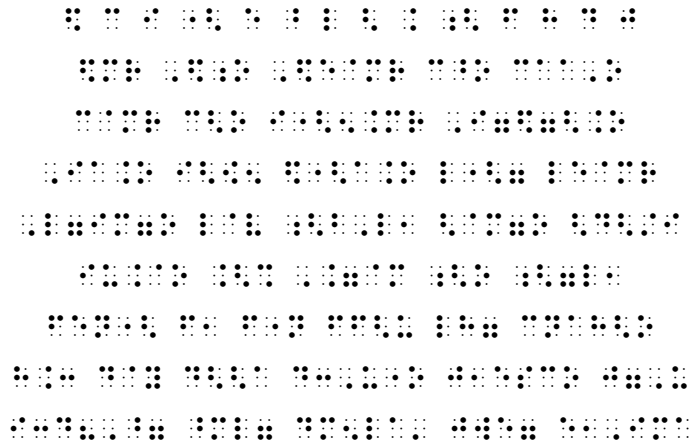
뎨 'ㅣ'용법은 이중 모음 활용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한글은 3중으로 구성된 모음인 'ㅞ, ㅟ, ㅠ, ㅡ'를 말한다. 점자는 이를 표시하기 위해 두 칸으로 하나의 모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수한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뎨 'ㅣ'용법에 대한 설명은 이중 모음과 함께 단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붙임줄(-)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예시 3-8> 뎨 'ㅣ' 용법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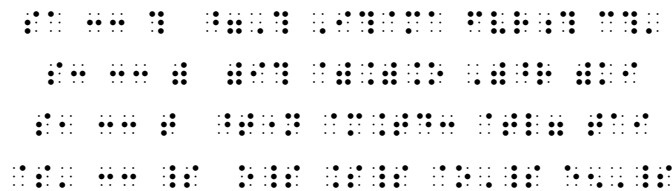
'ㅏ'생략은 한글 점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으로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7종의 교재 모두 이중 모음과 뎨 'ㅣ'용법으로 모음까지 모두 학습이 완료된 후에 'ㅏ'생략을 지도하고 있다. 뒤에 나오는 한 칸 약자는 'ㅏ'생략 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 설명을 통해 'ㅏ'생략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시 3-9> ‘ㅏ’ 생략 용법 익히기



한 칸 약자는 모음(중성)-종성으로 구성된 약자를 한 칸에 쓰도록 규정된 한글 약자이다. 모양과 형태 초성과의 조합을 통해 한글을 표현하며, 겹받침을 쓰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겹받침의 규칙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도하고 있다. 두 칸 약자는 '것'을 표현하는 약자 하나가 있으며 한 칸 약자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예시 3-10> 한 칸 약자 익히기



접속사와 문장 부호에 대해서 7종의 교재 모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지도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문장 부호의 종류를 많이 표기하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부호만 표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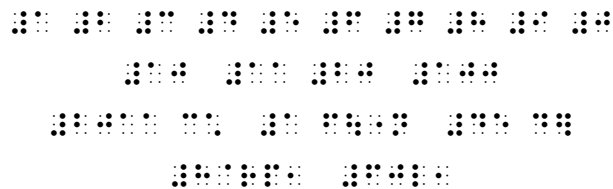
(라) 기타 기호

문장 부호까지 학습하면 한글 점자에 대한 지도는 마무리 되는데, 7종의 교재는 한글 점자 외에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숫자 기호와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을 담고 있다. 숫자와 기호는 문장 부호와 마찬가지로 교재마다 범위와 종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교과서나 기타 점자 도서를 읽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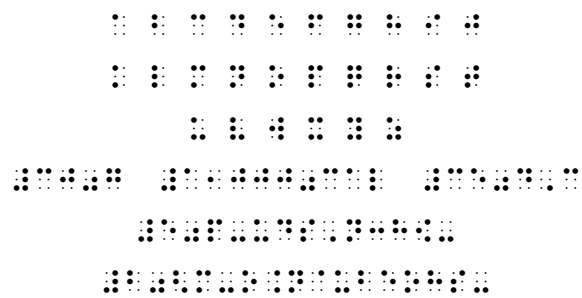
영어 알파벳은 숫자의 연장선에서 일반적으로 숫자를 다룬 후에 지도하고 있다. 7종 교

재 모두 영어 문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간단한 표기법과 한글 문장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영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예시 3-11> 숫자와 기호 익히기



<예시 3-12> 영어 알파벳과 활용 기호 익히기(예시)



7종의 교재 중 5종은 영어 알파벳과 활용 기호를 다룬 후 한글과 모든 기호들이 포함된 일반적인 문장 연습을 싣고 있다. 교재 E와 교재 G는 문장 연습을 교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교재 완료 후 다른 읽기 교재나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점자 학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종의 교재는 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다양한 문장과 이야기를 담은 읽기 연습을 싣고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글 점자 외에 숫자와 영어 알파벳이 섞인 문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알파벳을 이용하는 생활 단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4) 교재 분석의 의의와 점자 교육 발전 방향

한글 점자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재활 기관에서는 거의 동일한 구조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교재는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점자 지도 방법을 담고 있으며,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각 기관 교재 분석의 의의와 향후 점자 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공통 교재 개발

각 기관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교재의 구성과 내용만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교수 방법과 활용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교재마다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예시 단어나 문장, 종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사하지만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교재 구성만을 보아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통의 매뉴얼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공통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통 교재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지도사에 의해 점자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그 목적과 기본적인 교수 방식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공통 교재의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점자 교육의 통일성을 기하고 학습자에 대한 잘못된 학습 방법을 없애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사는 점자 지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통 교재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지도되 점자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통 교재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전달하고 지도사가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다양한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개발

중도 시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 발생의 90%를 차지하면서 촉각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현재는 기존의 중도 시각 장애인 외에 중복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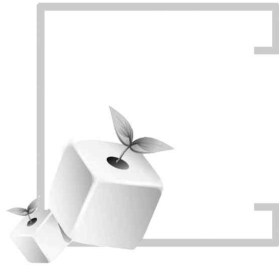
기존에는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중중의 시각 중복 장애인이나 내부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점자 교육이 필요한 시각 외 중복 장애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교수 방법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개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 교육은 지도사의 역량과 관심, 시행착오에 따른 실망스러운 결과 도출로 이어지고 있다. 소수의 성공 사례도 적절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지도사가 반복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초반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이 최근과 같은 유사한 지도 방법으로 합의되는데 걸린 기간만큼 다양한 시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비교적 초기인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각 기관은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느 기관이나 지도사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3) 국어로서의 점자의 위상 정립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국어로서, 시각 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히는 것은 단순히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체 수단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점자 교육은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수단을 익히는 과정이다. 점자에 대한 정비와 함께 점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이 국어를 익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점자의 위상과 교육의 이념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제 4 장

점자 교육의 실태 및 요구 분석



1. 초점 집단 면담

면담 조사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과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다시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자 학습에 성공하여 점자를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자와,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 활용도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문가 집단과 학습자 집단은 각 집단별로 진행되었으며 책임 연구원과 연구원 1명, 연구 보조원 1명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1) 면담 방법

(1) 면담 대상

(가) 점자 지도사

점자 지도사 면담 대상자들은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4-1>은 점자 지도사 면담 참여자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점자 지도사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3명(50.0%), 여자가 3명(50.0%)였다. 연령을 보면 50대가 3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명(33.3%), 60대가 1명(16.7%)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3명(50.0%)이었으며 중도 시각 장애인도 3명(50.0%)으로 나타났다. 점자 교육 경력은 10년 미만이 1명(16.7%), 10년~20년이 3명(50.0%), 20년 이상이 2명(33.3%)으로 면담 대상자 전원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점자 지도사 면담 참여자 특성

참여자	점자 교육 경력	성별	연령	기관 형태	시각 장애 정도	시각 장애 원인
지도사1	11년	남	45	단체	저시력	선천적
지도사2	20년	남	57	복지관	전맹	중도
지도사3	15년	여	48	한시련 지부	저시력	선천적
지도사4	11년	여	61	복지관	전맹	중도
지도사5	25년	남	56	복지관	전맹	중도
지도사6	6년	여	56	단체	전맹	선천적

(나) 점자 학습자

점자 학습자 면담 대상자들은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 점자 교육을 받고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4-2>는 학습자 집단 면담 참여자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가 8명(80.0%), 여자가 2명(20.0%)이었다. 50대가 5명(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명(20.0%), 40대가 2명(20.0%), 20대가 1명(10.0%)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중도 시각 장애인은 9명(90.0%)이었으며, 1명(10.0%)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었으나 저시력으로 뒤늦게 저자를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집단별 점자 학습자 면담 참여자 특성

번호		참여자	성별	연령	수료 기관 형태	시각 장애 정도	시각 장애 원인
1	집단 1	참여자1	남	56	점자도서관	전맹	중도
2		참여자2	여	34	점자도서관	전맹	중도
3		참여자3	남	50	복지관	전맹	중도
4		참여자4	남	50	복지관	전맹	중도
5		참여자5	남	60	복지관	전맹	중도
6	집단 2	참여자6	여	29	복지관	전맹	선천적/저시력
7		참여자7	남	44	복지관	전맹	중도
8		참여자8	남	52	복지관	전맹	중도
9		참여자9	남	45	복지관	전맹	중도
10		참여자10	남	35	복지관	전맹	중도

(2) 면담 도구

(가) 점자 지도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실시한 초점 집단 면담은 단순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상황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세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점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집단 면담 질문은 대상자와 면담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전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집단 면담 질문 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점자 지도사 면담 도구

초점 집단 면담 조사지(점자 지도사용)

1.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측면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학습자 개인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2-1. 선천성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 간 점자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성별, 연령 및 시각 장애 원인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각각 무엇입니까?
 - 2-3.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수반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 지도 시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다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5.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에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는 무엇입니까?
 - 5-1. 주로 사용하는 교재(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5-2. 주로 사용하는 교구(도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 5-3. 주로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의 장점, 단점 및 보완 방법은 각각 무엇입니까?
 - 5-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를 위해 새로운 교재나 교구를 개발한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지도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1. 집단교육과 개별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6-2. 점자 학습은 얼마나 오래 실시하고,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6-3.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환경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 7-1. 평가는 얼마나 자주 실시하십니까?
 - 7-2.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습득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7-3. 점자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도구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8.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에 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질문들은 효과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표준 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면담 대상자들은 각 질문과 관련되거나 별도의 의견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점자 학습자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교재 개발 연구를 위해 실시한 이번 집단 면담은 단순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상황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세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집단 면담 질문은 대상자와 면담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사전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집단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 점자 학습자 면담 도구

초점 집단 면담 조사지(점자 학습자용)

1.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점자를 배우고 난 후 현재 점자를 어떤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3.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한 점자 교육 실시 기간, 빈도, 환경 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학습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질문들은 효과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학습자로서 경험한 내용과 생각하는 바를 면담자들이 각 질문과 관련되거나 별도의 의견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면담 절차

(가) 점자 지도사

점자 지도사 초점 집단 면담 조사는 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기관에서 점자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사 중 경력과 성별, 기관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 6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집단 면담에 동의를 구했으며,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집단 면담은 2016년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현장 녹음과 연구 보조원에 의한 기록을 통해 확보되었다. 집단 면담 녹음 파일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분석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나) 점자 학습자

점자 학습자 집단 면담 조사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각 집단 1과 집단 2로 나누어 별도의 요일을 정하여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각각 시각 장애인 재활 기관에서 추천 받았으며, 집단 1은 점자 학습에 성공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으로 구성되었고, 집단 2는 점자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점자 활용이 다소 떨어지는 학습자 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해 집단 면담에 동의를 구했으며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이틀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집단 1의 집단 면담은 2016년 7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집단 2는 2016년 7월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내용은 현장 녹음과 연구 보조원에 의한 기록을 통해 확보되었다. 집단 면담 녹음 파일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분석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2) 면담 결과

점자 지도사 집단 면담 조사와 점자 학습자 집단 면담 조사는 사전에 발송한 질문지를 통해 내용을 미리 전달하였으며 집단 면담에서 질문별로 답변 내용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1) 점자 지도사

(가)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필요성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참여자들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점자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각 장애인으로서 자긍심, 자존감을 확립하고 점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점자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긍심, 존재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보를 귀로 들으면 내 것이 아니라 점자를 통해 내 것 지식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죠. 점자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3)

저는 중도 시각 장애인인데, 처음엔 상실감 때문에 힘들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살아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살도 생각했었죠. 그런데 점자를 배움으로써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해지고...(중략)...나도 책을 읽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책을 읽고, 불편하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4)

또한, 비장애인들이 문자를 배우는 것과 같은 목적과 원리로, 시각 장애인도 점자를 배

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자가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문자를 모르면 문맹이라 하듯이 시각 장애인도 점자를 모르면 문맹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이 정보를 얻고 문자로 재창출 할 수 있는 수단이 점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이 점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과 비장애인이 문자에 대해 중요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시대적 상황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문자를 배워야 하는 것은 일반인, 중도 시각 장애인, 선천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구체적인 말은 그 사람(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의욕을 생기게 한다든가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든가. 직업을 갖기 위해 학습을 필요로 한다든가. 다 중요성이겠지만 일단 점자가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한 종류. 시각 장애인이 크게 볼 때 정안인이 배워야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비장애인들도 요즘 문자하는거 보면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핸드폰 문자. 어법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있고... (중략)...일반 문자 보조 기기들이 발달되어서 점자의 중요성이 떨어져있다고 하지만 비장애인들도 문자에 대한 중요성, 사용에 대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각 장애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점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점자는 문자니까 문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시각 장애인도 이미 실명을 한 상황이니깐 같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문자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4)

아울러, 최근 시각 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더욱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서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활동 보조인의 활용과 음성 지원 등의 보조 기기 보급으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더 이상 점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정안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런데 활동 보조 서비스나 다른 매개체들이 있어서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막상 필요하면 점자가 있어도 그냥 주위에 물어보면 되니까...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만. 점자가 있어야 자립하는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도사 1)

(중략)...기초 재활 과정을 하면서 그 과정을 가져다가 하려면 직업 재활로 가야하는데 학교를 가야 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데, 점자를 학습의 하나의 문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요즘 보조 기기가 발달하기에 점자를 배우는 의지가 없었어요. 직업의 꽃인데 그 수단으로서도 중요하죠. (지도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는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음성으로 듣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저시력자들이 점자를 배워 사회생활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시력의 보호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략)...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그리고 그 녹음을 제가 했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녹음을 했었는데 상당히 발음에 신경을 써 가면서 녹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잘 못 알아들어서 다중 차별이라는 용어를 가정 차별이라고 알아듣고 원고에다가 썼더라구요. 그래서 아 듣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점자가 꼭 필요하구나. 문자로 직접 확인을 하였으면 실수가 없었을 걸...나중에 확인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중략) (지도사 5)

(중략)...저시력에 눈 활용 일반 확대 문자를 강조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중략) 저시력인이라도 기본적인 점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사회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1)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활용하는 일은 단순히 시각 장애인 전용 문자 기호를 익혀서 시각 장애인 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를 통해 비장애인이 문자를 활용하듯이 문자를 익히고 정보를 습득하고 재창출하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점자 지도사 전원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과 함께 점자 학습을 통해 향후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밑바탕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 시 개인 특성에 따라 고려할 점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중도 시

각 장애인이 문자나 어휘, 이해력 등이 우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한글과 각종 정보를 습득해 나가면서 점자가 기호라는 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촉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점형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중도 시각 장애인은 촉각을 통한 점자의 인지를 매우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점자를 통해 문자를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략)...선천적 중도 실명을 가르는 기준이 조금 넓게 잡으면 10대 후반까지는 중도 실명 특성보다는 선천장애인 특성이라고 할까요? 문자에 대한 어휘라든지 경험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천은 학력에 따라 다르지만 문자나 어휘 문제보다는 점을 문자에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점의 위치, 개수, 모양을 위치시키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지도사 5)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학교 제도 교육을 받은 사람, 중도 시각 장애인은 일반 학교를 나와서 나중에 시력을 잃은 사람을 중도 시각 장애인이라고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중도 시각 장애인은 이미 한글도 알고 있고,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이고...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중략)...지도할 때 인내와 배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촉각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점자 지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4)

제 경험에서 말씀 드리면 선천성은 거의 무학이면서 점자, 한글 전혀 모르는 것. 중도는 한글을 아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학은 점형을 설명할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중도 실명자인 경우에는 말만 해도 이해하시고 한글을 아니까. 읽는 면에 있어서 중도 시각 장애인이 노력을 해야 하고 조금은 늦은 것 같습니다. (지도사 3)

선천성은 저를 비롯한 점자가 기호화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일반 문자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모양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까 눈으로 확인할 일이 없으니 점자가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기호를 빨리 인지하고 잘 외우는데, 중도 시각 장애인은 기호 암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중략)...하지만 읽기에 있어서 중도 실명은 속도는 느리지만 오히려 이해는 빠른 편입니다. (지도사 6)

그러나 선천성과 후천성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점자를 습득하고 읽는 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경우이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조건이 동일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촉각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점자를 익힌다고 주장했다.

저는 선천 후천 구분 짓지 않는 편입니다...(중략)...선천, 후천 나누는 의미가 없고. 촉각은 연습에 의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 2)

(중략)... 선천이든 후천이든 동일 조건이라 생각. 점자 속도는 자기 노력이 수반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촉각 세포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감각이 우수한 것 같고요... (지도사 1)

또 다른 의견으로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감각이 좀 더 우수한 것 같지만 시각 장애 발생의 원인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었다. 당뇨의 경우에는 촉각이 둔해져서 점자를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망막 색소 변성과 황반 변성은 촉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자 학습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촉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실명 전 직업으로, 중도 시각 장애인이 중도 실명 전에 목수 일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한 경우가 사무직 등에 비해 촉각이 둔감하다는 의견이었다. 시각 장애 발생 원인과 직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도 실명, 즉 중도 시각 장애인이 촉각이 둔감하기 때문에 점자를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중략)...좀 더 어렸을 때 실명한 사람들이 나온 것 같고, 이런 차이의 일반적인 것은 연습으로 극복이 되는데...(중략)...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당뇨. 노인성 당뇨.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당뇨 중에 소아 당뇨는 괜찮습니다...(중략)...RP. 나 황반 변성은 정말 잘 읽어요. 촉각이 좋은 편입니다. 같은 연령에 다른 원인에 비하면...(중략)...또 한 가지는 직업. 그러니까 목수일, 시멘트, 노가다, 사무원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전 직에 대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도사 5)

(중략)...연령 면에서는 학령기 이후에 학습자는 읽거나 쓰기에 있어서 이해는 빠르고 암기와 촉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원인으로는 당뇨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 (지도사 6)

점자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학습자가 시각장애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장애, 즉 중복장애인에 대한 것이다. 각 재활 훈련 과정에 입소하는 시각중복 장애인이 점차 늘고 있으며 점자 지도사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각과 청각 중복 장애인은 점자 학습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며 학습 과정에서 의사소통만 해결이 된다면 청각이 점자 학습이나 촉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은 촉각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다발성근위축증은 손의 움직임에는 제약이 있으나 촉각의 어려움이 없어서 점자 학습에 성공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점자 학습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어셔증후군(Usher's syndrome)은 점자 학습에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중략)...맹농중복장애 4명과 지체중복장애 휠체어를 타는 학생 1명, 발달장애 2명, 자폐장애 1명하고 수업을 했었는데, 결론은 농아 네 명은 전부 성공...(중략)... 한글을 알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중략)...발달 장애는 판단을 잘 해서 되는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중략)... 재미있는 것만 해요. 찍는 것이 재미있으면 찍는 것만 하고 다른 걸 시키면 죽어도 안합니다. 읽는 게 재미있으면... (지도사 5)

중복장애 5~6명 상대를 하게 되었고...(중략)...뇌병변 장애를 가르쳤는데, 뇌종양을 통해 시각 장애가 온 케이스로,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사 1)

휠체어를 타는 사람 중에 다발성근위축증후군이 있었는데...(중략)...오히려 맹농 중복보다 가르치기는 쉬웠어요. (지도사 5)

저는 어셔증후군 친구를 하나 가르쳐 봤는데, 젊은 여성이어서 촉지가 좋았어요. (지도사 4)

중도 시각 장애인은 중도라는 요인으로 인해 시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장애 원인과

유형에 따라 점자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점자 지도사들은 전반적으로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후천성 시각 장애인보다 점자를 학습하는 데 더 용이하며, 그 원인은 촉각의 예민성이라고 지적했다. 중도 시각 장애인 중 당뇨로 인해 실명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촉각이 둔감한 편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촉각이 우수한 편이고, 그 외의 실명 원인은 촉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각 중복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 장애처럼 직접적으로 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촉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든 경우는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이며 노력 여하에 점자 습득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점자는 단순히 촉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점형과 기호, 암기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는 장애 원인과 유형, 장애 발생 전 직업 등 모든 요소를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점자 지도 방법을 찾아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점자 지도사의 역할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내용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점자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점자 지도사 대부분이 촉각 교육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도 시각 장애인들의 촉각이 선천성 시각 장애인에 비해 둔감하기 때문에 촉각을 개발하고 점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진행했다. 점자는 63개의 점형을 가지고 있으며 점자 한 칸이 6개의 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매우 작다. 촉각이 선천성 시각 장애인에 비해 개발되지 않은 시각 장애인은 작은 점이 숫자와 모양을 달리하는 점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초반기에는 촉각 훈련에 주력하고 있었다.

촉각이 익숙해지고 점형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한글 점자를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영어, 음악, 수학 점자를 지도한다. 재활 훈련 과정에서 점자 교육과 함께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글 점자 외에는 학습자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개별화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는데.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거. 큰 모양을 만지게 하면서 촉각 훈련을 시키고. 감각이 되는 사람은 여섯 개의 점이거 연습을 시키고. 점자 분야는 영어, 일어, 음악, 기초 교육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도사 1)

점형의 구조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63개 점형을 가지고 촉각 훈련을 하고 한글 점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수학 기호. 그리고 나서

알파벳 정도까지만 교육을 합니다. (지도사 4)

촉각 훈련 물론 합니다. 촉각의 정도에 따라서 교재의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촉각이 좋은 경우는 집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 점자 물론 하고 문장 부호 기호들, 숫자, 알파벳. 그 다음에 본인의 욕구나 진로에 따라서 영어, 일어, 수학 점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5)

기본적으로 감각 훈련 점형과 점 간격 위치. 감각 연습하고. 한글 기본 자모, 약자, 숫자, 영어, 컴퓨터까지 하고 교육 과정을 마칩니다. (지도사 2)

점자 지도사 중 한 명은 촉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교육을 실시한 학습자들이 별다른 무리 없이 점자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으며 촉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점자 지도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재활 훈련과 점자 교육이 정규 과정이 아니며, 개별 방문 학습자들에게 개별적 교육을 진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지도사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저는 중도 실명인이니까. 중도 실명한테는 굳이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점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랑 점자의 구성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촉각 훈련은 한 적이 없어요. 바로 한글 점자 쓰기로 들어갔고 그다음 문장 부호는 확실하게 합니다. 문장 부호.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읽기, 영어 알파벳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음악이 필요한 사람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여기에다가는 하지 않습니다. (지도사 6)

대부분의 점자 지도사들이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면서 촉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도 시각 장애인이 촉각이 둔감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자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 1990년대 중후반까지 촉각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재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혼재하다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촉각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촉각 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다. 대부분의 재활 훈련 기관들이 동시에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에 촉각 교육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의 방향이 율

바른 방향이라는 반증이라고 공통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 방법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방법은 앞 문항에서 강조한 촉각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촉각 교육의 중요성은 점자 지도사 모두 강조하고 있으며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촉각을 점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촉각 훈련을 하는 방법은 점자 지도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점자 쓰기와 읽기 교육 중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 방법 중 한 가지는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점자 한 칸을 크게 확대하여 점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고 점형을 익히는 과정을 먼저 시행 한 후 점자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점자 쓰기 교육을 먼저 하면서 실제 점자 크기로 촉각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점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큰 우유곽에 찌찌이를 붙여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게 여섯 개의 점을 만들어서 점형의 구조를 이해하게끔 해서, 여섯 개의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이해시킨 다음에. 열쇠고리 교재 교구를 가지고 옮겨 쓰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중략)...63개 점형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고, 3주 정도 걸려요. 매일 한다고 했을 때. 점자판으로 들어가서 점자판으로 쓰고 있고 높낮이 구분해서 감각 훈련하고...(중략)...근데 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숙제를 내주거든요. 옹표 찍어오는 연습 또 옹표 찍었을 때 칸과 칸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을 감각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지도사 4)

또 다른 지도 방법은 점자판 사용법과 함께 점자 찍기를 먼저 지도하는 것이다. 옹점 찍기를 통해 점자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히고 구조를 익히는 과정을 먼저 지도한다. 이후 점자 촉각 훈련을 통해 점자를 익히는데, 이때 한 손으로 점자를 읽으면서 한 손으로 옮겨 찍는 연습을 하게 되며, 이 경우는 점자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지도하는 방법이다. 점자판을 통해 옹점을 찍는 과정은 점자 쓰기가 아닌 촉각 훈련을 시작하는 도입 과정이며 실제로 점자 쓰기는 점자를 문자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된다.

저는 읽기부터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말씀 드릴게요. 점자판의 명칭 구조 먼저 이야기 합니다...(중략)...그다음 종이 끼우기를 하죠. 그다음에 접은 고리 그것. 왜 그것을 오른쪽 위에 올라오게 하는 이유 설명하고 종이 끼우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은 옹점 찍기입니다. 옹점 찍기를 통해서 구조를 익히는지, 찍는지 안 찍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중략)...이것이 되면 읽기 연습을 시킵니다. 읽기는 물론 촉각 훈련 먼저 시키는데, 촉각 훈련은 점의 간격이라든지 높낮이 차이...간격 연습을 시킨 다음에 점의 모양을 합니다. 점의 모양은 63가지를 다 하는 것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으면서 한손으로 찍기를 시킵니다. 읽고 찍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촉각 훈련에서 합니다...(중략)...숫자는 마지막에 합니다. 숫자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알파벳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쉬워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 읽는 교재는 맹학교 중학교 국어책을 주로 씁니다. 문장 부호 이런 것들. 그것을 통해 약자가 나오는 게 읽기 힘들다 하는 건 안 읽게 하면 되고, 오히려 그런 게 나올 때 이 건 뭐지? 라는 호기심을 느껴서 자극되어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책을 읽은 후 평가를 하는데, 한 페이지를 10분 안에 들어오면 영어 약자를 시작합니다. (지도사 5)

읽기와 쓰기 먼저냐에 대한 질문에 답은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옹점을 찍게 하는 것은 찍기 속도와 점자 구조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가 아니죠. 문자 학습을 하는 순간으로 그 단계에 가게 되면 동시에 되는 것이죠. (지도사 5)

점자의 점형을 기억해서 찍도록 하는 경우는 점자를 쓰는 과정과 읽는 과정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점형의 번호를 기억하고 실제 한글 점자의 점형을 나타내는 각 점의 번호를 외워 찍도록 함으로써 점자 쓰기를 지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쓰기와 읽기가 별도로 진행되다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느냐 보다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옹점 찍는 과정을 통해 점의 구조와 감각을 익히고, 점자를 옮겨 찍는 과정을 연습하여 결국 점자 쓰기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옮겨 찍기는 점의 번호를 암기하여 찍는 것이 아니라 촉각을 통해 읽은 점형을 다른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찍도록 하는 것으로, 옹점 찍기를 통해 각 점에 대한 감각을 몸에 체득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다. 처음 촉각 훈련 과정의 옮겨 찍기는 실제로 점자 쓰기가 아닌 촉각 훈련의 일환이며,

한글 점자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자 쓰기와 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점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각 훈련이라는 점에는 면담에 참여한 모든 지도사가 동의하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촉각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자 쓰기와 읽기 과정에서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 교재 및 교구

면담에 참가한 점자 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자체 교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점자를 지도하고 있다. 각각의 교재는 기관의 점자 교육 이념에 따라 내용과 순서, 활용법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낱자로 읽게 한 후 붙여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4)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자 기초 교재가 있고 목자로 설명된 매뉴얼이 있는데 점자 매뉴얼은 없습니다. (지도사 5)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 교재뿐만 아니라 교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점형을 이해하거나 촉각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다. 교재의 촉각 훈련 부분에 대한 연습을 통해 점자를 익히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교구 없이 점자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촉각이 둔감하거나 점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점자 한 칸을 크게 확대하여 손으로 점을 직접 구성해볼 수 있는 교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교구의 종류나 활용 방법은 교육 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교구는 한시련에서 보내준 점 동그랗게 해서 끼웠다 뺐다 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지도할 때는 일람표를 보고 지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읽기 쓰기가 되면 양성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지도사 3)

잘하는 사람에게는 교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하고 못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도사 5)

별도의 교재나 교구 사용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자의 상황이나 특성, 기관의 특성과 점자 지도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사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과 다릅니다. 이것이 그르다 옳다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재, 교구 거의 없이 참 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처음 시작할 땐 한시련에서 간단하게 나온 자료를 봤지만, 제가 평소에 지도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 교재의 사용을 느끼지 못하고 교재 없이 그냥 제가 배운 대로 그렇게 했어요. (지도사 6)

점자 교육 교재나 교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재와 교구를 통해 촉각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촉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 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교재를 사용하여 촉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자 지도사의 판단에 따라 보급되는 교구를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촉각 개발 방법을 교육에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실시 방법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과정은 면담 참여 지도사들 전원이 개별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개별 교육이 집단 교육보다 효과적이며, 집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가능한 동일한 수준인 경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1회기 당 적당한 시간은 40분~50분 정도가 좋고 휴식 시간을 10분정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였으며, 넓은 책상과 적당한 온도, 건조한 환경이 좋다고 강조했다.

개별 교육이 좋죠. 집단 교육에서는 가능한 한 학습자의 특성이 균일하면 좋고, 실시 기간과 빈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업은 가능한 한 매일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실시하는 교육 시간은 오전 2시간이 오후 3시간보다 효과가 좋고, 하루 4시간 적당 (기초 교육 시) 1회기는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도사 5)

총 시간은 2시간 적당하고 회기는 50분 정도하고 10분 휴식이 적당합니다. (지도사 2)

(중략)...개별 교육이 중심이면서 경우에 따라 집단 교육 병행하고 있는데, 하루 4시간씩 6개월이면 성과가 있습니다. 넓은 책상에 책과 점자 판이 움직이지 않은 환경이 좋고, 조용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도사 1)

개별 교육이 중요하고 책상이 넓은 환경이 좋으며, 온도는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고. 습도는 건조한 것이 좋습니다. (지도사 5)

16주 4개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집단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어요. 3개 수준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집단 교육의 장점은 지지와 격려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개별 학습이 더 좋은 편입니다. 하루 4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환경은 밝은 곳. 공간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지도사 4)

집단 교육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실력이 균일하면 11명도 가능해요.. 가장 이상적인 집단 수는 3명 정도. 초보일 경우 1:3이 적당하고 그 이상이면 보조자 필요합니다. (지도사 5)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은 가능하면 매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교육이 집단 교육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집단 교육에도 이점이 있는데, 같은 학습자들이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점자 교육 실시 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평가 방법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교육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에서 점자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점자 지도사들은 몇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우선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점자를 통해 정보 습득을 위해 점자 한 페이지 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이나 연령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자를 학습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시간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다.

점자 교육의 공식적인 종료 기준이 필요합니다. 점자를 배웠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맹학교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실력이 기준이었어요. 이후 맹학교 점자 시험이 기준이었다가, 최근에는 점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점자책 32칸 17줄을 10분 이내에 읽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5)

여러 가지 기호가 포함된 페이지를 읽을 때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내용 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도사 2)

두 번째는 시간을 설정하는 않은 입장이다. 시간보다는 점자를 익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점자를 학습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로, 점자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점자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연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자 학습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교육 중심이다 보니 느리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점자를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스펠링과 약자를 익히면 종료하는데, 집단 교육은 고령자가 많아 읽기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읽기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사 1)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에 따른 종료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점자를 기피하지 않는 정도에서 종결합니다. (지도사 6)

또 한 가지는 낱말을 습득하고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점자를 습득했다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 자체보다는 개별 점자의 습득이 평가의 기준인데,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평가한다는 점과 개인별 학습 진도에 따라 추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자 습득 기준은 시간이나 내용 파악보다 글자 수로 평가한다.

낱말을 습득하고 읽기와 쓰기를 하는 경우 습득으로 평가합니다...(중략)... 숫자, 이중 모음까지 익힌 후 25문항 읽기 50자 쓰기는 100자, 종결 평가는 모든 약자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후 열린 점자 교실에서 개인별 점자 학습 지속하고 있어요. (지도사 4)

점자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는 면담 참여 점자 지도사와 기관에 따라 방법이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교재나 교구의 활용 방법과 범위, 지도 방법 등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며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점자 지도사들은 각 평가 방법의 목적과 장단점을 파악, 인정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 후 보다 학습자에게 적합한 기관에서 점자 학습이나 평가를 진행하도록 상호 정보 교류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2) 점자 학습자

점자 학습자 집단 면담 조사는 사전에 발송한 질문지를 통해 내용을 미리 전달 하였으며 집단 면담에서 질문별로 답변 내용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학습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집단 1은 점자 습득이 빠르고 학습 후 활용도가 높은 학습자 5명으로 구성되었고, 집단 2는 점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 후에 활용도가 다소 낮은 학습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전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점자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① 집단 1

점자를 배워서 문자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시각 장애인도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것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문맹이라는 인식 때문에 점자를 배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학습자 모두 점자를 통해 엘리베이터와 지하철, 카드 종류 표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많은 활용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점자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도부터 점자 시작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안마 수련원에 점자를 이수해야만 입학 자격 부여됐어요. 점자 이수증을 가져야 입학 자격이 생겨서 아무 뜻 없이 배우다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읽기도 힘들었는데 만져 보는 것도 힘들고 간격이 제일 힘들었어요...(중략)...처음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하니 했지만, 읽

다 보니 엘리베이터에 점자가 있고, 전에는 카드를 꺼내서 일일이 물어 봤지만 이제는 모택스에다가 점자를 써서 붙이면 되니까. 책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편하니까. 처음엔 목적이 없었어요... (학습자 1)

점자 동화책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땐 점자 목자를 다 볼 수 있었는데. RP라서 시각을 점점 잃어가게 알고 있었고. 점자가 궁금해서 제가 하게 되었고 점자를 해서 편했어요. 지하철 타러 갔을 때...(중략)...점자로 출구 번호를 읽으니까 누구에게 안 물어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고. 책도 처음엔 듣기만 했었지만, 점자로 더듬더듬하니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한소네로 읽으면서 들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보게 되더라니까요. 점점 목자를 못 보니까 받침이 맞나? 이게 헛갈리지만 한소네로 보니 글자 받침이 확실히 들어오고...점자는 꼭 해야 합니다. (학습자 2)

문맹으로 살 순 없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배워야지 하다가 작년에 기초 교육을 받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자 3)

특히 권유는 없었고, 시각 장애인한테는 점자가 있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가 있으니 저는 안 보이니까 점자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눈이 나빠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자 3)

점자 학습과 관련하여 시각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점자를 배우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막연하게 시각 장애 관련 정보를 얻다가 점자를 접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명 후 복지관이나 주민 센터 발송 정보지 등을 통해 접하고 학습자 스스로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에 임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도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보다 재활 훈련 과정에 점자가 있어서 배우게 된 경우가 더 많았다.

저도 실명을 하다보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동네에 있는 복지관을 찾았었습니다....(중략)...복지관에서 상담하고 처음 나오게 됐으니까 기초 재활 과정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그 전에는 점자란 뭘지 몰랐고,..기초 재활 과정 하면서 과정 중에 점자와 컴퓨터 비중이 커서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습

자 4)

저는 점자를 꼭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직장 퇴직하고 6개월간 집에서 컴퓨터랑 보냈는데,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컴퓨터도 안 되고...(중략)...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중략)...복지관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발송을 했나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만해도 장애를 동료한테 들리기 싫어 남한테 말 안하고 혼자만 있다 보니 장애에 대해 정보가 없었어요. 주민 센터에서 보낸 안내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중략)...교육 내용이 뭔지 모르고 무작정 면담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겠다 해서 재활 훈련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점자 교육이 전체 내용이 반이 되더라고요. (학습자 5)

점자를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으며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자 학습의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점자 지도사나 같이 학습을 하는 동료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무사히 점자 학습을 마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배울 때 동료는 다 20대였어요. 30대, 연변에서 온 사람 2명. 80대 한 분은 일주일 있다가 나가시고 나머지는 다 20대였는데. 그 분들하고 받다 보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80대가 나가고 나서 “아 그 다음 내 차례인가” 했어요. 20대는 촉각이 좋아서 2주에 기초를 다하고 4주 정도에 교과서 읽을 수 있었는데, 한 달 내내 촉각 훈련 중에 있어서 중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고...선생님이 끝까지 해보라고 4개월만 하면은 책은 읽을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중략)...배우는 과정에 중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만 둘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들었고... 젊은 친구들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했는데... (학습자 5)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기초 재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고 오히려 잘 한다고 칭찬해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잘 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했던 것 같고, 점자에 대해서 갈등 없었어요. (학습자 4)

1:1로 배워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중도에 나빠진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점자하고 잘 한다고 칭

찬해 주셔서 옆에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 한다 생각하고 갈등하지 않았고...읽을 땐 스트레스 왜 안 읽어질까...찍는 것은 재밌었고...그래서 더 흥미가 가고 재미있었습니다. (학습자 2)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중략)...두 달 만에 한 줄 읽는 데 30분 걸렸는데 그게 빠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에 5분 정도...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해야 하는 거니까 했지, 이것 때문에 그만해야지 그 생각은 없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학습자 1)

점자를 배우게 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집단 1 학습자들은 대부분 점자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배우는 과정에서도 힘들지만 주변의 지지와 격려로 인해 학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② 집단 2

점자 학습의 시작과 관련하여 집단 2 학습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처음에는 중도 실명으로 인해 방황하거나 막막함에 힘들었지만, 자신 스스로 모르는 게 많고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재활 훈련 기관을 찾아 재활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밟았는데, 집단 1에 비해 점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집단 2의 학습자들은 점자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덜 적극적이었으며 재활 훈련의 한 종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습을 마친 후에도 점자 습득 속도나 활용도가 집단 1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저는 사실 선천성 무홍채증라고 병명을 받았습니다...(중략)... 대학교에 열심히 잘 해야 하겠다고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중략)...녹내장이 진행 되서 눈이 아프고. 눈물도 많고 눈을 뜨기 힘들었어요...(중략)...책 볼 수 없어서 그러면 그 동안 돋보기로 봤지만 뭔가 확대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컴퓨터 안에 있는 돋보기가 책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안과 선생님께 물어서 시각장애복지관과 연결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여 해주는 것이 있어 복지관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자 6)

저는 몸이 안 좋아지고 집에 쭉 있으면서 식구들에게만 의지하다가 몸이 나으면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선가 점자 교육을 집에 와서 해주

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복지관 연결해 주었습니다. (학습자 7)

저는 시각 장애 판정받고 중도 시각 장애인들이 하듯이 방황도 하고... 어쨌든 재활이라는 것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복지관에 방문하고 기초 재활이라는 과정이 있었고...(중략)...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고 시각장애복지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재활 과정을 그 땐 잘 보여서 큰 그게 되겠나 하면서 배웠지만,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맹학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자꾸 나빠지면서 책을 보기 힘들니까 더 절실함을 느끼겠더군요. (학습자 8)

저는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고 나서 방황을 하다가 제가 느꼈을 때 내가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맹학교만 입학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자를 전혀 모르고. 맹학교를 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첫 마디가 점자를 아세요? 점자도 모르세요? 하더니 글씨를 찍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점자를 읽냐 난 모른다 점자를 처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죠.... (중략)...그렇게 돼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조금 늦게 입학해서 억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중략)...연습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배우게 된 동기는 내가 글자는 못 보니까 점자라도 좀 알면 다만 조금이라도 글씨를 점자로 조금 읽을지 조그만 기대감을 안고 시작했는데 잘 읽지는 못 하는데 띄엄띄엄 읽으면서 막히는 것이 많아요. 이게 무슨 글자지 하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습자 9)

저는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막막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방법이 점자가 떠올랐습니다...(중략)...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데 점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점자가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서 기초 재활을 받으면서 점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이외에도 소리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이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중략)...여동생이 인천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봐 주었고 동생이 복지관에 연결해 주어서 기초 재활을 배우다 보니 처음이 점자였습니다. (학습자 10)

집단 1보다 집단 2가 점자에 대한 초반 인식이나 중요성의 확신이 낮은 편이나

재활 훈련 과정 참여도나 노력이 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집단 2의 점자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다른 질문에서 좀 더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나) 점자 학습 후 주요 활용 분야

점자 학습을 마친 후 주로 어느 분야에 점자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집단 1과 집단 2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점자 활용이 높은 경우는 점자를 주요한 정보 습득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자 활용이 낮은 경우는 점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① 집단 1

집단 1 학습자들은 점자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음성만으로 파악이 안 되거나 쉽게 잊히는 경우에는 점자를 읽고 사용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본어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는 등 점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점자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재생산하고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문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를 다녀서 교과서를 볼 때 점자를, 교과서를 음성으로만 들으면 듣는 순간에는 아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점자로 학습 교재 공부를 하고 좋은 글들. 마음이 힘들 때 수양한다 생각하고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점자판에다가 따라 쓰고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학습자 2)

아직도 점자 속도는 느린데요...점자책으로 좋은 글을 읽게 됩니다. 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시각 장애인이 안마 아니면 점자밖에 없더라고요. 안마는 아직 배우기 싫어서 점자 공부 계속하다 보니 좋은 글도 읽고 그래서 점자 실력도 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4)

4개월 훈련 마치고 나올 때 한 페이지 15분 걸렸어요. 집에서 오는 점자 정보지 읽을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배웠습니다....(중략)...도우미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빌려 왔더라고요. 보통 소설책 한 권이

점자책으로 4권 정도 하잖아요. 4권을 다 못 읽으니 1권을 읽었는데 내용도 귀에 들어오면서 책을 읽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중략)...3주 만에 읽어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빌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점자 읽을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중략)...작년도 계획을 점자를 힘들게 배웠는데 활용해보자 해서 점역·교정사 과정을 3개월 받고 전반기 시험 떨어지고 후반기 시험 붙었어요....(중략)...도서관에 일자리가 나서 거기서 교정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배웠지만 잘 활용하고 있어요. (학습자 5)

저는 기초 교육 받으면서 재미있었어요. 점자 읽는 것이 보물찾기 같았습니다...4개월 동안 20권 읽었는데, 교육 받으면서 옆에 책이 많은데 기초 교육 끝나고 거기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성경책도 끝까지 다 읽고, 읽다 보니 소설책도 읽고 일요일, 토요일은 심심하지 않게 보냈습니다. 올해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 점자책을 사서 읽어 보니 읽히더라고요. 일본어 처음 배웠는데 일본어 책을 펴면 영문 기호 한국 발음이 적혀 있어요. 특별히 안 배워도 쓱 읽어 보면 다 읽히더라고요. 일본어 책 3권 쯤 봤는데 점자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3)

또한 점자를 통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찍힌 점자를 통해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났으며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물건에 점자 표기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점자 표기와 같은 편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생활이 일단 점자를 앞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지 않나요? (학습자 5)

처음에 기초 교육을 받으면 지하철에 있는 점자를 읽는 것부터 되잖아요. 편리해지죠. 지하철 되고 엘리베이터 되고 하니까. (학습자 3)

지하철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몇 칸인지, 항상 스크린 도어가 없을 땐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 누구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점자하고 상관없지만 단점은 스크린 도어에 없는 것도 있고, 위치도 일정하지

않아서... (학습자 2)

...물건에 점자 표기기 늘어나는데...점자를 제대로 해 주려면 시각 장애인에 잘 닿는데 해야 하는데 다 보면 눈에 잘 보이는 데에 점자가 되어 있어요. 시각 장애인 손이 닿는 데면 어디야. 허리높이가 가슴 높이란 말이야. 근데 얼굴 높이만큼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이 보이게끔 찍혀 있단 말이야. 그것도 못 찾는 사람이 많아 지하철에 몇 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몇 칸인지 어디에 있나요 이러더라고. 편리한 건 점자로서 편한데 사회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형식적인 겁니다. 그런 것이 미흡해요. (학습자 1)

집단 1 학습자들은 비교적 점자를 빠르게 습득한 경우로, 점자를 통해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직업 생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회 활동과 함께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② 집단 2

집단 2 학습자들은 개인차가 있지만 점자를 활용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점자를 통해 원활하게 책을 읽거나 전문 서적을 보는 정도는 못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점자가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간단한 정보지는 점자로 읽고 있지만 전문적인 활용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맹학교의 교과 과정에 공부하는 데 이용하고 있고 전문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맹학교 같은 경우는 점자로 표시를 군데군데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생활관 같으면 여기는 생활관 몇 호.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에 표시해 놓는 것을 본다던지. 특히 엘리베이터 층 찾아갈 때 점자가 좋아요. 아직은 점자로 전문 서적을 본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학교에서 통지문 정도를 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8)

서울맹학교 기본 교과서가 점자책으로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프린트 된 점자는 읽고, 엘리베이터가 요긴하죠. 그리고 사실 그 외 다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읽는데 불편한감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것처럼 딱딱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하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전문 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못합니

다. (학습자 6)

또한 시각 장애인으로서 점자 사용을 강조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시험을 보기 위해 점자를 활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점자를 학습 전반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 답안지 작성 등에서는 점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점자의 활용도는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학생이다 보니 그냥 시험보기 위해서 하는 정도 밖에 안 돼요...(중략)...학교에서 점자로만 답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9)

맹학교다 보니까 학교의 정체성 때문이기도 하고 답안지만큼은 점자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자를 보는 사람이든 점자를 하는 사람이든 대독관을 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점자로 해야 한다고... (학습자 8)

집단 2 학습자 중 2명은 집단 1 학습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점자 사용 능력과 활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학습 초기에 점자 습득이 빨랐던 경우가 아니라 학습 시간과 노력으로 현재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면담 대상에서 점자 습득의 어려움으로 집단을 분류했기 때문에 집단 2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점자 학습을 통해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점자 지도사로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점자를 통해 음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점역·교정사로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도 시각 장애인 가르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소네 쓰면서 문서 작성도 하고 일기도 쓰고 파일 정리도 하고 책도 담아 보고...한소네를 쓰기 때문에 계속 점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고....(학습자 7)

저는 점자를 평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집에 갈 때는 익숙하거든요. 낯선 곳에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점자를 찍게 되어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중략)...교재를 보게 될 때 점자 교재를 받아 써서 유용했고 전문 서적은 소리만으로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리와 병행하면서 점자 교재를 봐야지 정확한 용어를 알 수 있어서 점자 교재를 이용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점역·교정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점자를 꾸준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점자가 필요한 경우더라고요. 제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점자를 항상 끼고 살고 있습니다.....(중략)...책도 소리로 듣는 경우가 흔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것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점자 교재를 이용해서 점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10)

점자 활용과 관련하여 두 집단 학습자 모두 학습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점자를 통해 음성이나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통해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점자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시각 장애인의 정체성과 점자 표기 확대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학습의 내용

점자 학습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단 1과 집단 2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점자 학습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용 자체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집단 1은 점자 학습을 위한 도구 중 점자판과 한소네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집단 2는 실제 학습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점자 학습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집단 1

집단 1 학습자들은 학습 내용 자체보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기존에 점자판을 사용해 점자 쓰기를 지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점자 정보 단말기(점자판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식 점자 단말기)인 한소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기존의 점자 쓰기는 점자판을 사용하여 지도함으로써 점자를 뒤집어서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한소네는 찍은 것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찍은 것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학이나 학습자 혼자 점자 학습을 이어가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주장이었다. 학습자들은 한소네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모든 학습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는 ‘ㄱ’ 하고 밑에 기억자를 쓰고 목자를 읽었으니까 목자를 양각화해서 프린트해 주시고 그 옆에 옹점 찍으셔서 점이 확인 되게끔, 4 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고 옆에 받침 글자도 같이 알려

주셨어요.....(중략)...그리고 쉬운 단어를 순서로 훨씬 학습할 땐 편하고 좋았어요. 목자가 있으니 누구한테 안 봐달라고 해도 되구요. 옆에 기억이 있으니까 옆에서 만질 때 기억자와 미음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스스로 학습이 되고. 한소네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한소네는 찍을 때 음성이 바로 나오니까. 하지만 비싸고 중도 시각 장애인은 다 한소네를 가질 수 없으니까. 교육할 때 한소네로 교육하는 것만큼 중도 시각 장애인한테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학습자 2)

(중략)...제 생각에는 점자 교육의 방법을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한소네가 비싸다면 점자 타자기라도 보급해서 처음부터 내가 점 순서대로 찍은 대로 나오게 공부를 한다면 배우는 입장에서 편하고 이후에도 한소네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책 읽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읽는 것도 사실 공부를 그렇게 했을 때는 쓰는 것과 읽는 것이 동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습득하리라 보이는 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점자판과 점필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학습자 3)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점자판으로도 글씨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지금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한다면 완전 그냥 점자판부터 내놓고 1,2점이 어디 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중략)...한소네에서 점을 찍으면 그 점을 잘 됐는지 안 되었는지 밑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요령을 알려주고 거기서 바로 가독성을 키워야 하면 그 때서야 점자판을 찍을 때에는 반대로 되니까 끝에 가서 며칠 정도 연습을 해서 익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듯합니다. (학습자 5)

시험도 한소네로 보고 시험지 제출하고 이렇게 국가 시험도 마찬가지로 찍어서 시험을 보는 게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거 짚으면 빵점 처리인데요. (학습자 3)

또 다른 학습자는 한소네부터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점자판으로 기초를 익히고 차츰 한소네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학습자도 한소네가 확실히 편리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처음엔 점자판으로 배워서 거부감 크게 없습니다. 한소네 대역해서 배

웠는데 확실히 편합니다...(중략)...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초를 다져 놓고...(중략)...처음 배울 때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한소네 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4)

실제 점자 학습의 내용보다 한소네를 통한 학습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답변이 많았으며 실제로 한소네가 점자 학습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소네의 활용은 점자 학습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문제이며, 한소네 사용과 관련하여 학습의 진행 순서와 개인의 이해도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한소네는 컴퓨터 사용 방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점자와 관련하여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의 문제와, 점형을 나타내는 점 번호의 암기 문제, 정자와 약자의 학습 순서, 촉각의 개발 등 다양한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

한편으로, 집단 1 학습자들의 한소네에 대한 의견은 이들이 촉각의 우수성이나 기본적인 지적 기반에 따라 점자 학습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도 향후 분석해야 할 사항이다.

② 집단 2

집단 2 학습자들은 점자 교육의 기간이나 점자 쓰기 학습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육 기간과 시간이 짧아서 점자를 익히는 데 힘들었으며, 점자 교육의 비중이 낮아서 아쉽다고 했다. 학습자의 재활 훈련 참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점자가 재활 훈련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점자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는 의견이었다.

집단 1에서 논쟁이 되었던 한소네와 관련하여, 점자 쓰기 과정에서 점자 찍기를 먼저 익히고 한소네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점자 찍기를 통해 점자의 구조와 읽기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한소네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이 없어서 한소네 없이 점자를 찍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결국 점자 쓰기와 읽기는 점자판을 이용한 점자 찍기와 한소네를 활용하는 과정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볼 때는 중도 시각 장애인한테 솔직히 기초 재활이라고 하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한 3개월 4개월이면 끝나는데 보통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점자 배우는 시간이 2~3일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습자 9)

저는 점자를 배울 때 점자 찍기는 반드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

데 요즘에는 한소네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한소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찍기 과정 없이 한소네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흔하죠. 찍기 과정을 우선 배우고 돌려서 읽는 과정도 배우고 그 다음 한소네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중략)...찍는 과정부터 먼저하고 뒤집어서 읽게 된다는 이런 과정도 알려주고 그것의 연속선상으로 한소네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도 찍기 과정 먼저 배우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습자 10)

점자 학습과 관련하여 각 기관마다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자 학습 교재가 없거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점자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촉각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촉각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형을 익히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이 점자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촉각 훈련을 통해 점자를 익히는 과정은 점자 지도사의 지도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학습자가 촉각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도 반복 훈련을 통해 천천히 촉각을 익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복지관에서 배워서 어떤 점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교과서라고 하는 기본 틀이 없는 것 같다. 점자 교재에 있어서 복지관마다 점자 교재가 다르고 어떤 곳은 점자 교재가 없기도 하고. 실제로 맹학교에도 없습니다. 일단 교재가 있는 것이 우선이고 교재 구성 연구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작은 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촉각 훈련이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시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은 앞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음을 들어가든 모음을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점 사이에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숫자가 아니라 모양으로 읽잖아요. 점자를요. 그렇기 때문에 촉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6)

제 생각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반복이 최고로 중요하고... (학습자 8)

개인차가 심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촉각 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포기자가 가장 많아요. (학습자 10)

촉각도 초반에 사용하지 않은 곳을 사용하다 보니 촉각이 어렵다가도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그 부분의 촉각. 뇌 부분도 활성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반복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반복 할 때도 초반에는 움직이듯이 위아래 훑으면서 촉각을 익히기는 하는데 나중에 되면서 움직임이 위아래를 적게 사용하면서 쪽 일자로 읽는 것은 연습은 반복밖에 없는 것 같고. 개인차도 심해서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10)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분들은 안대를 끼고 촉각 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점에 대한 힌트를 준다. 예를 들어, 하나처럼 느껴지는지 여러 개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쓰러져 있냐 아니면 쪽 길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점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 힌트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촉각 훈련을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점의 형태를 익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6)

이를 위해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구 활용이 이와 같은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데, 한글 자모를 양각으로 만들어 주거나, 점을 조합해 볼 수 있는 열쇠고리나 점이 튀어나오게 구성할 수 있는 확대 점자 모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가 있다. 이와 같은 교구를 통해 초반기에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촉각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중도 포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흥미를 유발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울산에서 하는데 처음에 찾아가서 혼자 점자를 하고 싶는데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하니까 책자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바로 점자가 나오지 않고 한글 자모 양각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게 손의 감각을 처음 시작할 때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양각 되어서 기억, 니은.. 숫자도 그렇게 양각을 해서 주니까 좋았어요. 점자가 아닌... 처음 시작할 땐 좋았어요. (학습자 8)

다른 복지관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울 때 열쇠고리 모양으로 되어서 펜이 있어서 뒤에서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누어 주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손으로 계속 만졌어요. 그게 한 6글자인가 8글자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기가 계속 찍고 풀고 할 수

있어서... (학습자 7)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장난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정육면체 맞추는 것. 그런 것처럼 된 것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학습자 8)

도구가 몰랐는데 꽤 많더라고요. 못처럼 되어서 쫓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했을까 생각도 합니다. 도구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책으로만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도구를 크게 자기가 쫓으면서 응 이거구나 하면서 가는 게 조금 흥미 유발이 될 것 같아요. (학습자 7)

중도 시각 장애인들이 모두 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자가 시각 장애인의 문자라는 점을 모르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점자의 중요성과 문자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학습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 실명인데 저희가 점자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초등학생이 한글을 배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그런 식으로 생각하면...호기심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습자 9)

(중략)...제 생각에는 처음에 점자를 배울 때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눈이 나쁜데 이 상태로 고정이면 굳이 점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이 진행성이지만 그 당시의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 필요성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방법이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습자 8)

집단 2의 학습자들은 점자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촉각 훈련과 흥미 유발을 통한 동기 부여를 강조했다. 점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집단 1 학습자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촉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촉각은 개인차가 있으며 학습자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점자 지도사와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점자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 중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점자 지도 방법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촉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점자를 익히는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① 집단 1

점자 학습자들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히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촉각 훈련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실명 전 촉각을 통해 점자 크기 정도의 작은 기호를 촉각을 이용해 판별해야 하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명 후 점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촉각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촉각 예민도와 경험의 정도, 개인 특성에 맞춰 촉각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처음에는 연령별로 촉각이 발달한 사람은 쉽게 하겠지만. 50살 넘어서 50 중반에서 했다 보니까 처음에 옹점을 집으면 뭉툭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옆에 일점이 붙어도 잘 몰랐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서 그게 촉각 훈련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알게 된다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훈련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옆에 한 점이 있구나, 밑에 한 점이 있구나, 옆에 두 점이 붙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유형들을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학습자 5)

14점, 14점, 14점, 14점이 쪽 나오다가 25점 나오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점의 위치를 딱 1점 자리인지 3점 자리인지 하나만 딱 떨어져 있을 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1점이 어느 위치에 촉지가 되더라고요. 3점은 어느 위치에서 촉지가 되고, 손이 자기 마디에서 인식을 하니까 필요합니다. (학습자 5)

촉각 훈련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습자 3)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차가 빨리하는 사람은 짧게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습자 4)

집단 1은 비교적 점자 학습이 빠른 경우이기 때문에 촉각 훈련에서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익힌 경우가 많으나, 촉각의 개인차 외에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과 지도사의 격려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반기에 점자 학습에 촉각 문제의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개인적인 노력과 꾸준한 반복 연습이 점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② 집단 2

집단 2는 점자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은 학습자들로, 이로 인해 점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점자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쓰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거나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일상생활에서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점자를 통해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글자보다 숫자를 배우는 것이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제가 처음 짚은 것이 자신의 이름이었는데, 그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런 것을 쓸 때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중략)...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학습자 7)

맞아요. 제 이름을 썼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학습자 10)

사실 감흥 별로 없었습니다. 내 이름 이렇게 짚는 것...지금 생각하면 숫자를 먼저 배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습자 8)

(중략)...엘리베이터를 생각해도, 그 다음에 숫자가 처음 짚을 때 한 개 짚으면 1이고, 두 개 짚으면 2이니까 그런 개념적인 면에서 숫자가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포의 개념이 들어가고 해서 숫자를 먼저 하기에는 복잡하게 생각 될 수 있지만 점의 개념 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습자 7)

저도 숫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고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교재의 쪽수, 선생님이 5페이지 펴라고 했는데 도 대체 어디 있는지. 읽을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알게 되면 조금 답답한 것이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숫자는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학습자 6)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워야 할 듯해요. 수표가 글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학습자 9)

집단 2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점자 학습 방법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소네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앞 문항에서 집단 1에서 진행된 내용이 집단 2에서는 본 문항에서 진행되었는데, 한소네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집단 1과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는 한소네 사용에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자 학습과 관련하여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므로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점자판을 기본으로 하고 한소네를 이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단 1 학습자들도 이와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한소네를 주로 사용한다면 점자 도서관의 자료 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한소네를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모두 보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소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점자를 쓰는 일에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비장애인 젊은 세대가 실제로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언어인데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하는데, 정상인이 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당연하게 배웁니다...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잘 못쓰고...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필기를 하라고 하면 글씨가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혀 점자를 찍는 것 읽는 것을 모르면 안 되겠지만, 한소네 등에 대한 정보화 기기에 대한 활용도는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습자 8)

저도 한소네가 다 갖추고 있으면 점자판을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대중화 되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만 한소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 10)

한소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시각 장애인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학습자 8)

저는 한소네 배우는 상태로 배우는 것을 봤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훨씬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학습자 10)

아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뒤집어 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깐. 점자 그 자체를 찍기 때문에 점자 위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빨리 배우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중화 되어서 익숙하게 사용되었다면 한소네로 점자를 알려주고 읽는 것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10)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점자 도서관에서 종으로 된 책을 만들면 안 되고 거기 자체가 한소네를 키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종으로 찍힌 책이 없어서 한소네로 바뀐다면 좋은 거죠. 읽는 사람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정상 전혀 호환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소네를 읽는다고 해서 교과서를 읽을 수는 없어요. 교과서와 한소네는 완전 다른 거니까요. 한 번 점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한소네 간격과 책 간격이 천지 차이 라는 거죠. (학습자 9)

한소네만 익숙하신 분들은 점자책을 읽는 게 어색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도 한소네로 익히신 분들이 점자책을 못 읽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빨리 익히세요. 한소네로 시작하시는 분이... (학습자 10)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어려움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소네를 하든 점필이든 방식, 도구의 차이이지, 굳이 한소네를 먼저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도 따라 주지 않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7)

기본적으로 언어의 시작인데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도 찍고, 빨리 하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하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한소네를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물론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학습자 8)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공부가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습니다. 한소네는 점자를 기본으로 해서 응용이 된 것인데 학습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습자 6)

저는 한소네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10)

실제로 보니까 처음부터 젊은 사람한테 한소네를 직접 주어도 쓰는 데 문제가 없고 읽는 것도 훨씬 빨리 읽으시고 문제가 없더라고요...(중략)...그래서 점자판부터 활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젊으신 분들한테는 한소네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 받은 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점자판보다도 직접적으로 해 보시겠어요? 하면서 있던데요. 그래도 받아들이시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점자판을 안 해서 찍는 것은 솔직히 못 하실 수도 있죠. 그건 안 했으니까. (학습자 10)

한소네 활용과 관련하여 집단 1과 집단 2의 의견을 종합하면, 점자 교육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지속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자판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전근대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촉각 훈련은 한소네를 이용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소네 보급의 문제와 함께 점자판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점자 쓰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자판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촉각을 개발하고 몸에 체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촉각 훈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소네 활용의 문제는 향후 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의 기간과 환경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기간과 학습 환경을 묻는 질문에서 학습자들은 집중적인 교육과 공통 교재, 점자 지도사의 지도 능력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교재의 경우 통일된 교재가 없어서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점자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점자 학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전 학습자가 동의했다.

① 집단 1

집단 1은 점자를 학습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통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과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점자를 학습하는 시간이 짧으면 촉각 훈련이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며 혼자서 학습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통 교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중도 시각 장애인이 어디에서든 같은 내용을 배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매일 같이 한 열 시간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책을 읽을 정도로 점자를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각종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하면 중도 시각 장애인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해야 배우지. 젊은 분들이야. 그래야 재활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략)... 대부분 일주일에 두 시간씩 오셔서 배우고 가시는데 그분들은 1년도 받고, 2년도 받고 끝이 없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학습자 5)

복지관마다 교재가 딱 통일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통일된 교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촉각 부분과 연결되는 듯. 촉각 관련된 것이 먼저 앞에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은 순서 정하기 나름인데... (중략)... (학습자 4)

통일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방에는 점자를 배우기 열악하니까요. 서울 경기권에는 점자를 배우겠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지방은 배우기도 힘들시고 그런 부분들... 중도 시각 장애인여도 쉽게.. 혼자서 촉지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만 있으면... (학습자 2)

공통 교재의 필요성과 함께 점자 지도사의 자질과 능력,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통 교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잘못된 학습 습관이나 촉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사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점자를 체계화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점자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치

더라고. 근데도 무조건 시각 장애인들이 가르쳐요. 쉽게 외우는 법을 엮피쓰리에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만 조금씩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하면 쉽게 접근할 것 같아요...(중략)...가르치는 데는 많지만 공통적인 교과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가르치는 것도 쉽고 배우는 것 쉽게 접근될 듯한데...읽는 거야 뭐 그 사람 감각이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학습자 1)

점자를 읽는데 뭘 하다가 손끝이 베었는데 그 손끝으로 만지니까 잘 잡히더라고. 점이 또렷하게. 그게 근데 상처가 아물면서 굳어요. 딱딱해지더라고. 단단해져서 물에 불려서 손톱 가는 것에다가 걸어내 본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걸어 내니까 잘 잡히긴 하는데 걸어낸 자리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한 두 번 하다가 말았어요. (학습자 1)

사포는 안 해봤고, 점자가 워낙 안 잡히니까 점필을 뽀족하게 하면 잘 잡힐까 싶어서 점필을 뽀족하게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점자지가 구멍나고. 찍었다가 뽑을 때 종이가 딸려 올라오더라고. 절대 갈면 안 될 듯... (학습자 5)

집단 1의 학습자 중 촉각이 예민하고 다양한 기본 지식의 활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 방법을 터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점자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개발하여 응용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자존감과 향후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저는 점 번호를 몰라요. 처음 배울 때 가는 1246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모양으로, 그림처럼 외워서...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처럼. 처음 배울 때 점 번호로 외우지만. 점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림처럼... 그림으로 일람표를 봤었던 기억을 해서. 그림으로 기억을 해서 저는 점자를 배울 때 점 번호가 아니라 그림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습자 2)

(중략)...제가 만약에 점자를 가르친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이라는 게 여섯 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6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점형이 전부 합쳐서 63개인데. 없는 것 까지 감안

하면 64개가 되겠죠. 그걸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옹자 옆에 1점, 옹자 옆에 2점 이런 식으로 63개 도형을 전부 그려 놓고 그것을 읽는 연습부터 시키게 되면 점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1점이 한글, 숫자, 영어, 받침이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읽을 때부터 점은 63개만 읽으면 점자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심어 주고 점자 하나를 한 개 한 개만 읽기만 하면 어떤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점간 같은 것만 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 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셔서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습자 3)

공통 교재의 필요성과 일관적 지도 방법이 면담 조사 전체에 걸쳐 지적되었으며, 이 점이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현재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 기관에서는 자체 교재를 활용하여 점자를 지도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점자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모든 기관이나 지도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통 교재의 개발이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점자를 학습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중에는 기존의 점자 지도 방식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명 이전의 경험이나 촉각의 예민함으로 인해 점자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자 지도에서도 기본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지켜야 하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보고 시험해보고 개인별 특성을 살려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집단 2

집단 2에서도 집단 1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점자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반복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반복과 지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혼자서 학습해야 하는데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점자는 매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고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중략)...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쉬면 월요일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반복이 중요한 것 같은데 반복보다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고, 쉬지 말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학습자 9)

저는 3개월 배웠는데 하시는 분들 중에 진도가 빠른 편이었어요. 딱 3개월을 채우고 읽기까지 진도가 나가고 말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붙는 시간은 3개월은 짧아요. 그런데다가 어르신들은 3개월은 너무 짧죠. 읽기조차 못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개인차가 심해서 보조 지도사를 영입해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자 10)

(중략)...5명에서 처음엔 단체로 같이 하다가 2달 뒤에는 따로 따로 하게 되요. 같이 진도를 나가니까 항상 그 자리죠. 처음엔 흥미를 가졌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발전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항상 그 자리니까. 2달 동안 똑같으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빠지니까 왜 빠지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재미가 없다고 점자 재미가 없다고.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그 때 개별 지도를 받았죠. (학습자 9)

점자 교육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일정 교육 기간이 끝나고 학습자 스스로 점자를 익혀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며, 점자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적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습득 기준

점자를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시각 장애인 재활 훈련 기관들은 각각 교육 기간, 학습 진도와 교재 학습 완료 여부에 따라 점자를 습득했다고 판단하고 교육을 종료한다. 또는 기관이 정한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경우 점자를 습득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① 집단 1

집단 1 학습자들은 점자 학습과 관련하여 특별한 방법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자 습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나이를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점자 지도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학습자의 점자 습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자 빨리 배우려면. 초반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매일 하면 좋겠지만 꾸준히 이삼일에 한 번씩 책 놓지 않고, 처음엔 책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인 점자책 하나 구독도 좋고. 읽으면서 좋은 글을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쓰기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4)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개인차에 의해 똑똑한 사람은 일주일이면 할 거. 좀 끈기 가지고 하면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릴 차이일 뿐... (학습자 4)

(중략)...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또 선생님이 계속 잘못된 것을 지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분위기가 점자를 배우게 된 큰 동기가 되었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과 밤새워서 점자를 배워가면서 뭔가를 얻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자라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지도해 줄 사람이 항상 가까이서 좀 있어 주고. 우리가 자음, 모음을 배우고 단어를 연결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읽다 보면 부호나 점형이 잘못 되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꼭 알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중략)... 물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대 같으면 한 달 내에 교과서 읽더라고요. 20대는 영어까지 다 배우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습자 5)

제가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40~50대는 집중적으로 해야 할 듯 내 느낌에... 20~30대는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학습자 5)

점자를 지도하는 방법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학습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모든 학습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점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체기가 오는 경우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점자 지도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집중 교육과 여유 있는 교육 방식을 학습자에게 맞게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혼자서 점자를 연습해야 하는 시기에는 멘토가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음성 파일이나 보조 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는 조금씩 오래 한 스타일이에요. 선생님하고도 오래. 계속 동기 부여를 해주셨어요. 점자가 필요한 이유, 중도에게 점자가 필요한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 부여고.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점자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2)

제 생각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숫자, 자음, 모음 등. 외우는 시기까지는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빨리 빠르게 해야 할 것 같고, 읽는 것은 계속 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습자 3)

점자를 배우면 정체기가 있습니다. 읽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되면 안 늘더라고요. 속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 많이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면 올라서는데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는 그게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학습자 2)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그냥 집중적으로 동기 부여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습득이 빠를 듯합니다... 아까 통일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 큰 글자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걸 소리로 설명하는 음성 파일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기가 외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고 집에서 테이프 틀어 놓고 들으면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학습자 4)

개인차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시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촉각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합니다. 건성으로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제 생각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자세한 건 다 못 봐 주니까. 시각장애 점자를 아시는 분들로 1:1 멘토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점자 배우는 시간 외에 허심탄회하게 점자를 지도 받을 수 있는 소개를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습자 5)

점자를 습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은 한글과 숫자, 영어 알파벳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점자 교재는 한글과 숫자, 영어 알파벳까지를 담고 있으며, 단문 연습이나 짧은 이야기를 실어 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교재의 완료를 수료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자를 습득한 기준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완료한 경우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글, 영어 했고, 교재 보면 실제로 읽는 책처럼 줄들이 다 붙어 있고, 기호 다 나와 있는 것, 그런 부분까지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것 읽고 한 권 동화책 읽고,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까지 읽는 것이 일차적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그 다음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영어 약자까지 다 나오니까. (학습자 3)

쓰고 읽는 것에서 영어 약자까지는 아니고 영어를 풀어쓴 기본적, 숫자, 문장 부호도 다 아니고 물음표, 마침표 기본적인 것. 그 정도까지 읽는 정도면 거기까지 교육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더 배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숫자, 한글 자모, 영어 알파벳 정도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 부록으로 단어보다는 단문으로 하는 것이 몇 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짧은 문장 같은 것, 한 페이지 이내인 것으로 몇 개 읽기 연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영어 약자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따로 필요하면.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 문장 부호까지만... (학습자 4)

점자를 처음 배울 때 자음, 모음, 문장 부호 다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잡지 소설 교과서 접하면 새로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페이지 표시, 목자의 표시라던가 표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중략)...영어 알파벳 정도는 배워야 할 것 같고 자음, 모음, 문장 부호를 배우고 소설책과 교과서는 한 두 권 정도는 읽으면서 기본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경험해야 하는 것까지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습자 5)

한글 정도하고 숫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 읽는 것은 고급반으로 넘어가야 하고....처음부터 책 읽는 것을 생각해서 하면 사람들이 질려. 하다못해 상표만 읽으면 됩니다. 뭐 책까지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중략)...어느 정도 점자를 읽으면 그 때가서 배우면 된다. 영어 알파벳만 읽으면 돼요. (학습자 1)

점자 습득의 기준이 한글, 숫자, 문장 부호와 영어 알파벳 수준으로 보는 기준은 재활 훈련 기관마다 사용하는 점자 교육 교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교재의 완료는 사실상 일반적인 점자 도서를 읽는 정도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교재 완료 외에 점자 읽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읽기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자 쓰기와 읽기 속도를 측정하여 기관 고유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점자 학습을 통해 개인이 활용하는 정도는 학습자 개인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교재를 통해 점자를 습득했다 해도 스스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읽기 속도의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점자 습득의 기준은 학습자의 필요성과 노력 여하로 결정된다.

② 집단 2

기본적으로 점자 습득의 기준은 점자를 읽고 쓰는 데 있으며,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 점자로 학습과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점자를 배우는 과정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점자를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느낀 정도를 말씀 드리면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 (학습자 7)

저는 조금 더 욕심내서 쓴 일기를 읽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쓴 일기를 쓰기만 하고 못 읽으면... (학습자 10)

저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쓰고 읽는 게 보는 글씨처럼 그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용하려고 배우는 것인데 배우고 활용하지 못하면 고생만 한 거지 의미가 없죠. (학습자 6)

저는 제 기준을 둔다면 학교 시험 칠 정도... (학습자 8)

집단 2 학습자들은 점자 학습을 위한 동기 부여를 매우 강조했다. 점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시작하도록 하는 동기와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점자를 배우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도 시각 장애인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자 학습을 시작하면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동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기관과 점자 지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점자를 배워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동기 부여가 되죠.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자는 필요 없고 소리로만 들어도 되지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점자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소리 듣고 말지 뭐. 책도 소리 듣고 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배우고 난 다음에도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습자 10)

기초 재활을 시작할 때 상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기초 재활하면서 서로 마음 아픈 사람들끼리 만나서 시작하는 건데, 중도 장애인 분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 먼저 매만져 주면서 어느 정도 선배가 자기가 왔던 길을 이야기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또 왜 살아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먼저 세워주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 7)

(중략)...점자건 뭐건 내가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고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도 실명인들은 특히 그런 것이 많은데 자포자기가 많아요. (학습자 8)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을 봤는데 면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시간 정도... 다른 사람은 3시간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층 면담 실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라도 작은 상담 형식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점자가 필요 없다고 할 마음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배우겠다고 하는 거겠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굳이 데려다가 하는 것은 좀 서로 괴로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학습자 6)

동기 부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자 학습을 마친 후 직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 방법이며 사회 각 방면에 시각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점자 학습을 마친 후 다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에서 보조자나 멘토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점자를 배우는 과정이 결국 직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업 전 준비 교육이므로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자 학습의 동기 부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자가 배우면서 직업적인 것과 연관되었으면 열심히 할 듯한데, 이렇게 연계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지도사 쓸 때도 점자를 실제로 배우셨던 분을 계속 배출해서 그 다음 단계 그런 분들에게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짧게라도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 10)

(중략)...제일 좋은 방법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라든지. 꾸준한 일거리를 주는, 그렇다고 폐돈을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학습자 8)

(중략)...배우셨던 분들을 계속 배출하고 하면서 계속 점자를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 분들이 철자법을 잘 틀리셔서 게시판에 보면 철자가 놀라울 정도로 틀리거든요. 점자를 배우면 해결할 수 있을 듯한데... 공적인 자리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을 배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적인 자리에서 점자를 해서 철자를 바르게 익혀야 될 것 같긴 한데... 공적인 자리에서 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거든요. (학습자 10)

(중략)...기초 재활을 넉넉하게 하려면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조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무조건적으로 한 달에 얼마 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보조 지도사라든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조금 자세 교정이 라든가 점필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자립을 할 수 있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학습자 6)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이. 직업 프로그램은 훈련 수당이 나와요. 근데 직업 훈련을 하려면 첫 번째가 기초 재활이 기본인데 거기서 훈련 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거쳐야 직업 재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네요. (학습자 7)

중도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인식이 낮아지면서 한글 철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직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점자에 대한 중요성을 시각 장애인 스스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점자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일을 하더라도 점자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어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시각 장애인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은 철자 관련해서 목자로 봤을 때 철자 관련해서 너무 취약해요. 이것만이라도 알았을 때 점자가 필요한 부분. 점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비장애인과 우리가 동등하게 서려면 쓰는 말부터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말은 잘 아는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취약하거든요. 이게 점자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10)

점자 학습은 결국 점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학습을 완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학습 동기 부여 방법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학습을 통해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고 사회 진출을 한다는 점에서 점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점자를 배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집단 1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들은 점자를 활용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점자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점자 지도사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 장애인계 전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점자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보면 점자 몰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중략)... 그래서 안마업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점자 자음, 모음 정도는 알 정도로 테스트를 거쳐서 안마계라든가, 시각 장애인은 안마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조금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습자 5)

삶이 남의 눈을 덜 빌릴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 일상생활에서, 카드에 농협 카드, 복지 카드, 하나 카드 적어 놓으면 누군가에게 카드 하나 꺼낼 때도 무슨 카드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 점자는 대부분 다 있으니까 숫자 번호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다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알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출구 찾을 때만 해도 밑에 번호 확인만 해도 내가 몇 번 출구로 나가는지 가능하니까 지하철에서 역무원을 부를 때에도 몇 번 홈에서 댕습니다가 되니까. 점자는 생활 속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더 독립성을 더 가질 수 있다. 점자를 앎으로 인해서... (학습자 2)

(중략)...일상생활에 점자를 앎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시각 장애인이 하다못해 식당 가서라도 점자 메뉴판이라도 있고 하면 필요성에 의해 메뉴도 확인 할 수 있잖아요. 뭐든 그런.... (학습자 4)

동기 부여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각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도 장애자를 점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중략)...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합회 차원이나 점자 경진 대회를 해서...프로그램으로 점자를 배워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습자 5)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임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에 점자 표기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이를 다시 시각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각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집단 2

집단 2 학습자들은 동기 부여와 관련하여 앞 문항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집단 교육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점자 학습이 개인차가 심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의 방법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제가 점자를 배울 때 거기서 막내였습니다. 4명이 같이 하는데 같은 50대인데 조금 많은 50대였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빨리 안 읽혀지고 하니까. 근데 제가 잘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빨라요. 근데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느리신 분들을 같이 가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저희한테는 흥미가 떨어진다. 그것을 어떻게 절충을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반을 한다든지 능력별 수업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기간이 짧지 않나 교육 기간이...3개월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한 시간 반씩 하다보니까. 물론 숙제를 많이 내줘서 집에서 막 짚고 하면 되겠지만. 많이 접하면 그래도 조금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학습자 8)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사용하지 않던 촉각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거나 목표가 없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자 지도사와 관계자들은 적절한 동기 부여와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면담의 시사점

점자 지도사와 학습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점자 지도사와 점자 학습자라는 입장에서 점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은 다소 달랐으나 점자 지도사 역시 과거 점자 학습자의 입장에

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자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더 많았다. 점자 학습자가 향후 점자 지도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점자 교육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1) 촉각 교육의 강화와 교구 활용

중도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각을 충분히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점자 지도사와 학습자가 모두 강하게 주장했다. 실명 전 비장애인은 점자 크기 정도의 작은 물체를 촉각을 이용하여 구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자를 접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자를 읽기 위한 촉각을 개발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촉각 훈련 부분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촉각 훈련의 중요성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점자 지도사마다 촉각을 지도하는 방법이 다양하며, 촉각 훈련을 위한 교구가 개발되지 못하거나 일부 존재하는 것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촉각 훈련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촉각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같은 나이와 비슷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자 지도사는 이를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결국 촉각 교육을 위해서는 점자 지도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에서 촉각 교육을 위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포함해야 함과 동시에 촉각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점자로 문자를 익히기 전에 촉각 교재를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촉각 교재가 발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위해 다양한 촉각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보급해야 한다.

(2) 공통 교재의 개발과 매뉴얼 제작

점자 교육을 위해 재활 훈련 기관은 점자 교육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 또는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마다 내용의 구성이나 순서,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기관의 교육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점자 지도사의 교육 방침이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점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선택한 교육 기관에 따라 점자 교육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점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재의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교구나 기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재를 가르치는 방법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지도 방법에서도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공통 교재를 통해 교육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지도 방법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 방법을 결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공통 교육의 내용을 확실하게 한 후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마구잡이로 교육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점자 교육을 위한 공통 교재의 개발과 매뉴얼 제작은 교육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3)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려

점자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점자판을 이용하는 방식이 도전받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가 확대되면서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소네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소네는 점자 셀을 탑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이며, 시각 장애인에게 매우 각광받고 있다.

점자 학습자는 면담을 통해 한소네 활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점자판을 통해서 점자 찍기와 쓰기 등을 교육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한소네 활용을 원하고 있다. 한소네는 6점식 점자를 바로 입력하면서 본인이 입력한 글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음성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쓴 것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주장의 이유이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한소네를 통해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다른 무리 없이 점자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점자 쓰기에 취약하거나 기존의 점자 서적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점자판은 점필을 통해 점 칸 안에 고유의 점 번호를 기억하고 찍어야 하지만, 한소네는 6개

의 손가락으로 한 번에 점을 찍어야 한다. 점 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지만 점자판은 점을 찍으면서 점의 모양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촉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소네는 그런 과정 없이 찍는 것과 읽는 것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학습자에 따라서는 학습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 역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주로 사용하면서 펜으로 글자를 쓰는 것에 취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미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정보 습득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 방법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와 함께 환경 구축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 시각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점자 사용 환경 구축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활용하는 분야는 개인의 정보 활용 외에 엘리베이터와 지하철, 각종 대상에 대한 점자 표기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표기된 점자 표기는 시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자립 생활은 시각 장애인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자 사용 환경의 구축은 단순히 사회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점자 표기가 보다 많이 확산되도록 사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압력이 가해지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점자 사용 환경의 구축은 점자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점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점자 지도사와 학습자는 점자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각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격려와 지지를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시각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장 없이 점자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문자이며, 국어 정책의 일환으로 그 교육과 활용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2. 설문 조사

1)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대상은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점자 지도사와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였다. 조사 대상은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의 지부 및 지회, 시각 장애인 복지관,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이하 “한시도협”)에 가입한 점자도서관, (사)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련원 등 시각장애 유관 기관·단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지에 응답한 점자 지도사는 총 63명이었다. 지도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4-5>와 같다.

〈표 4-5〉 점자 지도사의 기본 정보

변인	범주	명	%
성별	남	44	69.8
	여	19	30.2
연령대	20대	6	9.5
	30대	9	14.3
	40대	14	22.2
	50대	13	20.6
	60대	15	23.8
	70대	6	9.5
학력	고졸 이하	24	38.1
	대졸	32	50.8
	대학원 졸	7	11.1
장애등급	1급	53	94.6
	2급	1	1.8
	3급	2	3.6
	정안인	7	
점자 교육 기관	지부·지회	46	73
	복지관	10	15.9
	점자 도서관	7	11.1
	기타	0	0

설문지에 응답한 지도사 63명의 배경 정보를 분석해 보면 남자가 69.8

%로 여자에 비해 많았다. 점자 지도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와 50대 및 60대가 각각 2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였고, 70대인 점자 지도사도 9.5%나 되었다. 지도사의 과반수(50.8%)가 대학 졸업자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8.1%였다. 지도사 총 63명 중 56명이 시각 장애인이었고, 시각 장애인 중 장애 등급 1급이 53명(94.6%)이었다. 지도사의 소속을 보면 한시련 지부 및 지회가 73%, 시각 장애인 복지관 15.8% 및 점자 도서관 11.1%였다.

이 연구의 설문지에 응답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학습자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점자 학습자의 기본 정보

변인	구분	명	%
성별	남	65	55.1
	여	53	44.9
연령대	20대	7	5.9
	30대	8	6.8
	40대	21	17.8
	50대	43	36.4
	60대	25	21.2
	70대	14	11.9
학력	고졸 이하	92	79.3
	대졸	19	16.4
	대학원 졸	5	4.3
등급	1급	75	65.2
	2급	9	7.8
	3급	13	11.3
	4급	2	1.7
	5급	5	4.3
	6급	11	9.6
점자 교육 기관	지부·지회	63	53.8
	복지관	21	17.9
	점자 도서관	4	3.4
	기타	29	24.8

설문지에 응답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학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55.1%)가 여자(44.9%)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36.4%), 그 다음으로는 60대(21.2%), 40대(17.8%), 70대(11.9%) 등의 순위였고, 20대와 30대 학습자의 비율이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9.3%였고, 대학 졸업이 16.4%, 대학원 졸업이 4.3%였다. 응답자의 장애 등급은 1급이 65.2%였는데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시각장애 6급 응답자가 시각장애 2급, 4급 및 5급 응답자보다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응답자가 점자 교육을 받은 기관·단체를 보면 한시련 지부 또는 지회가 53.8%였고, '기타'라는 응답자가 24.8%로서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나 점자 도서관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설문지였다. 점자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구분하였다. 이는 지도사가 제시할 수 있는 응답과 학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의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점자 교육에 관한 문헌, 초점 집단 면담 결과 및 교육 과정 모형을 근거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점자 교육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초점 집단 면담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설문지에 포함시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될 교육 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사와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도사 대상 설문지는 점자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15 문항,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사항을 묻는 15 문항 및 개인 배경에 관한 사항을 묻는 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문항을 세부적으로 질문한 경우도 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는 점자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요구를 묻는 16 문항과 개인 배경 정보를 묻는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 참조).

(3) 조사 절차

연구진은 한시련과 한시도협을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조사 대상을 모집하였다. 한시

련의 경우 지부 또는 지회 총 208개 단체에 연락하였고, 그 중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부 또는 지회가 113개 단체였다.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부 또는 지회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에 응할 점자 지도사와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참여를 동의한 지부 또는 지회는 91개 단체였다. 지부 또는 지회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점자 지도사는 91명이었고, 학습자는 80명이었다. 동의를 구한 점자 지도사 91명에 대해 전화를 통해 면담 또는 전자 우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39명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결과 한시련 소속 지부 또는 지회를 통해 추천받아 최종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점자 지도사는 52명이었다.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한시련을 통해 총 80명을 추천받았는데 실제 조사 과정에 설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화 연락이 결국 닿지 않은 학습자가 총 22명이었다. 그 결과 이 연구의 설문지에 응답한 한시련 추천 학습자는 58명이었다. 모집 및 자료 수집 단계별 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제시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모집 및 자료 수집 단계별 조사 대상 비율

지부·지회	전체①	점자 교육 실시②	모집 시 동의(C)	조사 시 거부(D)	조사 참여(E)
사례 수	208	113	91	39	52
비율(%)		54.3 (B/A)	80.5 (C/B)	42.9 (D/C)	57.1 (E/C)

한시도협을 통해 파악된 점자 도서관은 총 37개관이었다. 연구진이 개별 점자 도서관을 접촉한 결과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총 9개관이었고, 설문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 조사에 응답한 점자 도서관 지도사는 7개관이었다.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한시련 소속이 아닌 시각 장애인 복지관은 연구진이 직접 참여를 요청하여 서울 소재 시각 장애인 복지관 4개관 소속 지도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점자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교육받은 경험을 고려하여 안마수련원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점자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전자 우편 또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이 미리 확보된 조사 대상 목록을 보며 전화로 접촉하여 전자 우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는 전화로 면담할 것인지 조사 대상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최종 응답자 63명 중 전자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준 점자 지도사는 30명이었고, 전화 면접을 통해 응답한 점자 지도사는 33명이었다. 점자 지도사 대상 설문 조사는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전화 면접과 집체식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를 통해 파악된 점자 학습자 61명은 모두 전화를 통한 면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련원 학생은 약 15명 단위의 학급별로 집단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점자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는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1) 점자 교육 실태 조사 결과

(가) 점자 교육 목표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교육 목표에 대한 점자 지도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점자 지도사는 점자 수험서 활용 등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점자 사용 능력 개발,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점자 확인 등 편의 시설이나 생활 용구의 점자 식별 능력 개발, 점자 도서나 점자 잡지 읽기 등 여가나 교양을 위한 점자 독서 능력 개발 등 모든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목표 중에서 편의 시설 관련 점자 사용 능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그 다음은 독서를 위한 점자 사용이었으며,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점자 사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점자 교육 대상이 40대 이후가 많다는 사실을 볼 때 진학이나 취업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점자 사용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4-8〉 점자 지도사의 점자 교육 목표에 대한 의견

목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진학이나 취업	3	4.8	11	17.5	7	11.1	25	39.7	17	27
편의 시설이나 생활용품	0	0	0	0	1	1.6	20	31.7	42	66.7
여가 생활	1	1.6	0	0	9	14.3	25	39.7	27	42.9

(나) 수준별 점자 교육

수준별 점자 교육 실태에 관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수준별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자 지도사는 47.6%였고,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자 지도사는 52.4%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수준별로 구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다.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도사 중 초급과 중급 및 고급의 3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자 지도사가 46.7%였고, 초급과 고급의 2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자 지도사가 43.3%였다.

<표 4-9> 수준별 점자 교육 실태

	실시		미실시	
	명	%	명	%
수준별 교육	30	47.6	33	52.4

<표 4-10> 점자 교육의 수준 구분 실태

	2수준		3수준		5수준	
	명	%	명	%	명	%
수준 구분	13	43.3	14	46.7	3	10

(다) 공식적인 교재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점자 교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46%였고, 없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54%였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다고 응답한 점자 지도사 중 지도사가 직접 개발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60.7%였고, 외부 기관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39.3%였다.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없을 경우 점자 지도사는 대부분(73.5%) 점자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공식적 교재 사용 여부의 실태

	있다		없다	
	명	%	명	%
교재	29	46	34	54

〈표 4-12〉 교재의 출처에 관한 실태

	외부 구입		자체 개발	
	명	%	명	%
교재 출처	11	39.3	17	60.7

〈표 4-13〉 교재 미확보 시 교육 자료 확보 방안

	지도사 제작 자료		학습자 쓰기 자료		출판된 점자 인쇄물		기타	
	명	%	명	%	명	%	명	%
자료 확보 방안	25	73.5	3	8.8	5	14.7	1	2.9

(라) 점자 교육 내용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포함시키는 점자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점자 지도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점자 이전 교육 내용으로서 점자 모양 식별을 다루는 지도사는 85.7%, 촉각개발을 하는 점자 지도사는 74.2%,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하는 지도사는 56.5%였는데 비해 점자 도형 인식을 다루는 지도사는 38.1%에 불과하였다. 한글 점자 자음과 모음 및 숫자는 모든 지도사가 다루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한글 약자 및 약어를 지도하는 지도사는 91.9%, 문장 부호를 다루는 지도사는 76.2%로서 비록 한글이더라도 일부 지도사는 약자 및 약어나 문장 부호를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고연령층 학습자가 한글 점자 자음과 모음 및 숫자 이외에는 학습 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정자만 지도하는 지도사가 55.6%였고, 약자를 지도하는 지도사는 23.8%로서 영어 약자 지도는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학 점자를 다루는 지도사는 23.8%, 과학 점자를 지도하는 지도사는 9.5, 컴퓨터 점자를 교육하는 지도사는 14.3%, 서양 음악 점자를 가르치는 지도사는 3.2%, 한국 음악 점자를 포함시키는 지도사는 1.6%의 순이었다.

〈표 4-1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내용 실태

내용	실시		미실시	
	명	%	명	%
촉각 개발	46	74.2	16	25.8
점자 모양 식별	54	85.7	9	14.3
점자 도형 인식	24	38.1	39	61.9
점선 따라가기	35	56.5	27	43.5
한글 점자 자음	62	100	0	0
한글 점자 모음	62	100	0	0
한글 점자 약자 및 약어	57	91.9	5	8.1
숫자	63	100		
문장 부호	48	76.2	15	23.8
영어 알파벳	35	55.6	28	44.4
영어 약자	15	23.8	48	76.2
수학 점자 기호	15	23.8	48	76.2
과학 점자 기호	6	9.5	57	90.5
컴퓨터 점자 기호	9	14.3	54	85.7
서양 음악 점자	2	3.2	61	96.8
한국 음악 점자	1	1.6	62	98.4

(마) 점자 교육 집단 구성 형태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선택하는 집단 구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중도 시각 장애인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38.1%, 학습자 수에 따라 집단 지도와 일대일 지도를 달리 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33.1%, 일대일로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24.4%였다.

〈표 4-15〉 점자 교육 시 집단 구성에 대한 실태

	집단 지도		일대일 지도		병행		기타	
	명	%	명	%	명	%	명	%
집단 구성	24	38.1	16	25.4	21	33.3	2	3.2

(바) 주별 점자 교육 실시 횟수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점자 교육의 주별 횟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지도사의 과반 수 이상인 63.4%가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교육을 주당 2회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별 교육 횟수가 1회라고 응답한 지도사는 24.5였고, 3회 이상으로 응답한 지도사는 총 11.2%에 불과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은 주당 1회 또는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주별 점자 교육 실시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명	%	명	%	명	%	명	%	명	%
주별 횟수	16	25.4	40	63.5	3	4.8	2	3.2	2	3.2

(사) 1회당 점자 교육 시간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1회당 실시하는 점자 교육 시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1회당 2시간 교육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54%였고, 1회당 1시간 교육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23.8%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는 1회당 대부분 1시간 또는 2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1회당 점자 교육 시간에 대한 실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교육 시간	15	23.8	34	54	9	14.3	3	4.8	2	3.2

(아) 점자 교육 편성 시간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하루 중 편성 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오전에 편성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46%였고,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이 편성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30.2%였으며, 오후에 편성한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23.8%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을 대체로 오전에 실시하고 있지만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이 실시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18>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 편성 실태

	오전		오후		상관없음	
	명	%	명	%	명	%
편성 시간	29	46	15	23.8	19	30.2

(자) 점자 읽기와 쓰기의 지도 순서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의 지도 순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점자 쓰기를 우선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74.2로서 점자 읽기를 먼저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 11.1%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점자 지도사들은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쓰기를 먼저 지도한 다음 점자 읽기를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9〉 점자 읽기·쓰기 지도 순서

	읽기 우선		쓰기 우선		동시 지도		상관없음	
	명	%	명	%	명	%	명	%
지도 순서	7	11.1	47	74.2	8	12.7	1	1.6

(차) 점자 정보 단말기 지도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점자 정보 단말기를 아예 지도하지 않고 오직 점자판만 사용하여 점자를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85.7%였고, 점자판을 사용해 점자를 지도한 후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도한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12.7%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점자 정보 단말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점자 정보 단말기 지도 실태

	미실시		점자판 후 지도		실시 후 점자판 지도		실시	
	명	%	명	%	명	%	명	%
점자 정보 단말기 지도	54	85.7	8	12.7	0	0	1	1.6

(카) 점선 따라가기 점형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각 운동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선 따라가기에서 채택하는 점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하고 있는 지도사는 전체 응답자 63명 중 35명이었다.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하고 있는 응답자 중 '123456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70%였고, '14, 25, 36점' 등 가로로 된 두 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지도사가 17.1%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지도사들이 점선 따라가기를 지도할 때 '123456점'을 제일 먼저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21〉 점선 따라가기 점형에 대한 실태

	점 여섯 개		점 두 개		점 세 개		점 한 개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점형	28	80	6	17.1	1	2.9	0	0	0	0

(타)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동시에 제공하는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점자 지도사들에 따르면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 중 보행 65.1%, 보조 공학 41.3%, 재활 상담 39.7%, 사회 적응 31.7% 및 일상생활 27%의 순이었다.

〈표 4-22〉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별 제공 현황

영역	실시		미실시	
	명	%	명	%
보행	41	65.1	22	34.9
일상생활	17	27	46	73
재활 상담	25	39.7	38	60.3
사회 적응	20	31.7	43	68.3
보조 공학	26	41.3	37	58.7

(파) 점자 교육 평가 기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평가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61.9%였고, 평가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38.1%였다.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의 71.8%는 점자 지도사의 판단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문서화된 평가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12.8%였으며, 정확한 수치를 활용한 평가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사는 7.7%에 불과하였다.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지도사 중 45.8%는 정해진 학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점자 교육을 종료한다고 응답하였고, 25%는 학습자의 상황에 의해 점자 교육을 종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8%는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자 교육을 종료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3〉 점자 교육 평가 기준의 실태

	있다		없다	
	명	%	명	%
평가 기준	39	61.9	24	38.1

〈표 4-24〉 평가 기준

	진도를 마치는 경우		점자 지도사 판단		문서화된 평가 기준		정확한 수치화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평가 기준	2	5.1	28	71.8	5	12.8	3	7.7	1	2.6

〈표 4-25〉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의 교육 종료 결정

	학습 기간		학습자 상황		재학습 가능		기타	
	명	%	명	%	명	%	명	%
교육 종료 기준	11	45.8	6	25	5	20.8	2	8.3

(2) 점자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가) 점자 교육 목표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목표에 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와 점자 지도사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점자 교육 목표에 대한 요구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엘리베이터 점자 확인 등 편의 시설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자 해독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도사들은 학습자들에 비해 세 가지 목표 즉 진학이나 취업, 일상생활 및 독서와 여가 생활 각각을 위해 점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 시각 장애인의 79.3%는 잔존 시력이나 청력이 추가로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점자를 배워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66.4%는 시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점자를 익혀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점자 교육 목표에 대한 요구

목표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진학 이나 취업	학습자	3	2.5	17	14.4	33	28	28	23.7	37	31.4
	지도사	2	3.2	6	9.5	9	14.3	25	39.7	21	33.3
편의 시설 이나 생활 용품	학습자	1	0.8	6	5.1	23	19.5	27	22.9	61	51.7
	지도사	0	0	0	0	1	1.6	21	33.3	41	65.1
여가 생활	학습자	6	5.1	14	11.9	35	29.7	29	24.6	34	28.8
	지도사	0	0	0	0	7	11.1	27	42.9	29	46

〈표 4-27〉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목표에 관한 요구

목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명	%	명	%	명	%	명	%	명	%
시력 저하 대비	7	6	4	3.4	13	11.2	40	34.5	52	44.8
시각 장애인의 문자	6	5.2	8	6.9	25	21.6	32	27.6	45	38.8

(나) 수준별 점자 교육

수준별 점자 교육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학습자는 67.5%가 수준별 교육에 찬성하였고, 지도사는 60.3%가 수준별 교육에 대해 찬성하였다.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교육에 찬성한 학습자 초급과 중급 및 고급의 3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71.6%로 가장 많았고, 초급과 중급의 2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16%였으며, 5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12.3%였다. 또한, 수준별 점자 교육에 찬성하는 지도사 중에서 초급과 중급 및 고급의 3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63.2%였고, 초급과 고급의 2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26.3%였으며, 5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10.5%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와 지도사가 점자 교육을 초급, 중급 및 고급의 3수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28〉 수준별 점자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별 교육	찬성		반대	
	명	%	명	%
학습자	79	67.5	38	32.5
지도사	38	60.3	25	39.7

〈표 4-29〉 점자 교육의 수준 구분에 대한 요구

	2수준		3수준		5수준	
	명	%	명	%	명	%
학습자	13	16	58	71.6	10	12.3
지도사	10	26.3	24	63.2	4	10.5

(다) 점자 교육 내용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0>과 같다. 점자 자체를 익히기 전 개발하여야 할 촉각, 점자 모양 식별, 점자 도형 인식, 점선 따라가기 등에 대해 학습자와 지도사가 대부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학습자가 지도사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각 관련 내용 요소 중 점자 도형 인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내용 요소에 대한 요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의 86.4%와 지도사의 68.3%가 요구하였는데 이는 촉각 개발, 점자 모양 식별 및 점선 따라가기에 대한 요구 수준보다 낮다.

한글 자음, 모음, 약자 및 약어, 숫자 그리고 문장 부호를 점자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학습자와 지도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알파벳과 영어 약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학습자와 지도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알파벳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73.7%였고, 지도사가 81.0%였다. 또한 영어 약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학습자가 57.6%였고, 지도사가 58.7%였다.

수학, 과학, 컴퓨터, 서양 음악 점자 및 한국 음악 점자를 점자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학습자가 지도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점자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가 61.9%였고, 지도사는 46.0%였다. 과학 점자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가 39.8%였고, 지도사가 27.0%였다. 컴퓨터 점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학습자가 63.6%였고, 지도사가 38.1%였다. 서양 음악 점자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가 36.4%였고, 지도사가 19.0%였다. 한

국 음악 점자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가 33.9%였고, 지도사가 19.0%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습자는 지도사보다 촉각 관련 내용 요소뿐만 아니라 현재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별로 지도되고 있지 않는 수학 점자, 과학 점자, 컴퓨터 점자, 서양 음악 점자 및 국악점자 등도 일정 수준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점자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내용	의견	찬성		반대	
		명	%	명	%
촉각 개발	학습자	105	94.6	6	5.4
	지도사	56	88.9	7	11.1
점자 모양 식별	학습자	112	94.9	6	5.1
	지도사	59	93.7	4	6.3
점자 도형 인식	학습자	102	86.4	16	13.6
	지도사	43	68.3	20	31.7
점선 따라가기	학습자	109	92.4	9	7.6
	지도사	51	81	12	19
한글 점자 자음	학습자	114	96.6	4	3.4
	지도사	63	100	0	0
한글 점자 모음	학습자	117	99.2	1	0.8
	지도사	63	100	0	0
한글 점자 약자 및 약어	학습자	108	93.9	7	6.1
	지도사	62	98.4	1	1.6
숫자	학습자	112	95.7	5	4.3
	지도사	63	100	0	0
문장 부호	학습자	101	85.6	17	14.4
	지도사	59	93.7	4	6.3
영어 알파벳	학습자	87	73.7	31	26.3
	지도사	51	81	12	19
영어 약자	학습자	68	57.6	50	42.4
	지도사	37	58.7	26	41.3
수학 점자 기호	학습자	73	61.9	45	38.1
	지도사	29	46	34	54
과학 점자 기호	학습자	47	39.8	71	60.2
	지도사	17	27	46	73
컴퓨터 점자 기호	학습자	75	63.6	45	36.4
	지도사	24	38.1	39	61.9
서양 음악 점자 악보	학습자	43	36.4	75	63.6
	지도사	12	19	51	81
한국 음악 점자 악보	학습자	40	33.9	78	66.1
	지도사	12	19	51	81

(라) 점자 교육 집단 구성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적절한 집단 구성 형태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1>과 같다. 학습자와 지도사 모두 점자 교육 시 바람직한 집단 구성 형태로 일대일 지도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는데 일대일 지도에 대한 요구는 지도사가 61.9%, 학습자가 38.1%로서 지도사가 일대일 지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지도이든지 일대일 지도이든지 학습자 수에 따라 결정해도 된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31.4%였고, 지도사는 20.6%였다.

<표 4-31> 점자 교육 시 집단 구성 형태에 대한 요구

교수 형태	집단 지도		일대일 지도		학습자 수		기타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33	28	45	38.1	37	31.4	3	2.5
지도사	10	15.9	39	61.9	13	20.6	1	1.6

(마) 주별 점자 교육 횟수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별 점자 교육 횟수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2>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지도사들보다 주별 점자 교육 실시 횟수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중에서는 주별 3회 실시를 요구한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회, 5회, 1회 및 4회의 순위였다. 지도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2.4%가 주 2회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다음으로는 3회, 5회, 1회 및 4회의 순위였다.

<표 4-32> 중도 시각 장애인의 주별 점자 교육 실시에 대한 횟수에 대한 요구

주별 교육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명	%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11	9.3	39	33.1	46	39	7	5.9	15	12.7
지도사	5	7.9	33	52.4	16	25.4	1	1.6	8	12.7

(바) 1회당 점자 교육 시간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1회당 교육 시간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3>과 같다. 1회당 적절한 교육 시간에 대해 학습자와 지도사가 모두 2시간이라고 요구한 비율이 각각 가장 높았다. 학습자의 경우 2시간을 요구한 비율이 5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시간이라고 요구한 비율이 22%였다. 지도사의 경우 2시간이라고 요구한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시간이라고 요구한 비율

23.8%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은 1회당 2시간이나 1시간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33〉 1회당 점자 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26	22	68	57.6	16	13.6	6	5.1	2	1.7
지도사	15	23.8	35	55.6	10	15.9	2	3.2	1	1.6

(사) 점자 교육 시간 편성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시간을 하루 중 언제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4>와 같다. 학습자는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였고, 오전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였으며, 오후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12.7%였다. 학습자들은 점자 교육을 오전에 편성하든지 오후에 편성하든지 상관없지만 오전에 편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사는 오전에 편성할 것을 더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비율이 51.6%였고,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였으며, 오후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지도사가 17.6%였다. 지도사들도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오전에 편성하는 것을 더 높게 요구하였다.

〈표 4-34〉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 편성에 대한 요구

편성 시간	오전		오후		상관없음	
	명	%	명	%	명	%
학습자	44	37.3	15	12.7	59	50
지도사	32	51.6	11	17.7	19	30.6

(아)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의 순서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교육을 실시할 때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의 순서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5>와 같다.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지도 또는 학습 순서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점자 쓰기를 우선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62.7%로 과반 수 이상이었고, 지도사도 68.3%였다. 이러한 결과는 점자판을 주로 사용해 지도하고 있는 현황과 관계가 있다.

〈표 4-35〉 점자 읽기·쓰기 학습 순서에 대한 요구

	읽기 우선		쓰기 우선		동시 학습		상관없음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14	11.9	74	62.7	27	22.9	3	2.5
지도사	7	11.1	43	68.3	12	19	1	1.6

(자)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6>과 같다. 학습자가 지도사보다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65.8는 점자판을 사용해 점자를 익힌 다음 점자 정보 단말기도 학습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점자 정보 단말기를 먼저 익힌 다음 점자판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비율이 7.7%였으며,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만 학습하여야 한다는 비율도 6.8%나 되었다. 이에 비해, 지도사는 48.4%가 점자판만 지도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점자판을 지도한 후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비율은 45.2%였으며, 점자 정보 단말기를 먼저 지도한 후 점자판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지도사는 1.6%, 점자 정보 단말기만 지도하여야 한다는 지도사는 4.8%에 불과하였다.

〈표 4-36〉 점자 정보 단말기 학습에 대한 요구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	점자판만		점자판 후		정보 단말기 후		정보 단말기만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23	19.7	77	65.8	9	7.7	8	6.8
지도사	30	48.4	28	45.2	1	1.6	3	4.8

(차) 점선 따라가기 점형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각 운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선 따라가기의 점형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7>과 같다. 학습자나 지도사 모두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할 때 '123456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1%, 75.8%로 가장 높았다.

〈표 4-37〉 점선 따라가기 점형에 대한 요구

	점 여섯 개		점 두 개		점 세 개		점 한 개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학습자	72	62.1	16	13.8	9	7.8	16	13.8	3	2.6
지도사	47	75.8	6	9.7	2	3.2	3	4.8	4	6.5

(카)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교육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8>과 같다. 기초 재활 서비스 영역 중 학습자와 지도사가 모두 가장 많이 요구한 영역은 보행으로서 각각 64.4%, 79%였다. 다른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가 지도사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훈련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59.3%, 지도사의 41.9%가 요구하였고, 재활상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58.5%와 지도사의 58.1%가 요구하였으며, 사회적응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62.7%와 지도사의 41.9%가 요구하였고, 보조공학훈련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60.2%와 지도사의 56.5%가 요구하였다.

〈표 4-38〉 기초 재활 영역에 대한 요구

영역	의견	찬성		반대	
		명	%	명	%
보행	학습자	76	64.4	42	35.6
	지도사	49	79	13	21
일상생활	학습자	70	59.3	48	40.7
	지도사	26	41.9	36	58.1
재활 상담	학습자	69	58.5	49	41.5
	지도사	36	58.1	26	41.9
사회 적응	학습자	74	62.7	44	37.3
	지도사	26	41.9	36	58.1
보조 공학	학습자	71	60.2	47	39.8
	지도사	35	56.5	27	43.5

(타) 점자 교육 평가 기준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평가하는 데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학습

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9>와 같다.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점자 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는 52.5%가 찬성하였고, 지도사는 44.4%가 찬성하였다.

〈표 4-39〉 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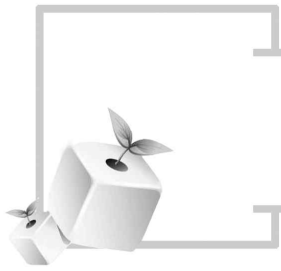
읽기 속도	찬성		반대	
	명	%	명	%
학습자	62	52.5	56	47.5
지도사	28	44.4	35	55.6

(파) 점자 교육 발전 방안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 점자교재 보급 및 점자 지도사 양성에 대한 학습자와 지도사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40>과 같다.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습자는 85.6%였고, 지도사는 92.1%였다. 통일된 점자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습자는 89.7%였고, 지도사는 93.6%였다. 점자 지도사 양성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습자는 88.4%였고, 지도사는 90.4%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점자 지도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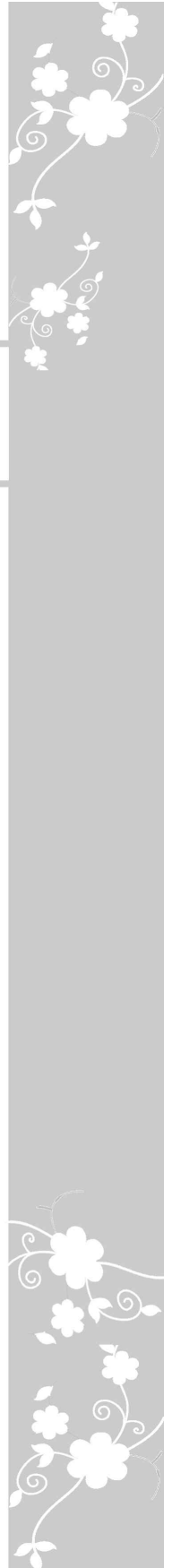
〈표 4-40〉 점자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요구

발전 방안	의견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명	%	명	%	명	%	명	%	명	%
교육 과정 개발	학습자	1	0.8	2	1.7	14	11.9	28	23.7	73	61.9
	지도사	0	0	4	6.3	1	1.6	26	41.3	32	50.8
교재 보급	학습자	1	0.9	0	0	11	9.5	35	30.2	69	59.5
	지도사	0	0	1	1.6	3	4.8	20	31.7	39	61.9
점자 지도사 양성	학습자	0	0	1	0.8	12	10.3	36	30.8	68	57.6
	지도사	0	0	1	1.6	5	7.9	29	46	28	44.4



제 5 장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1. 성격

교육 과정의 성격은 교과, 학습자, 환경이라는 3요인으로 규명할 수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과정에서 점자가 교과에 해당하고, 중도 시각 장애인이 학습자이며, 21세기 지식정보 사회가 환경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성격은 점자 자체의 본질, 중도 시각 장애인의 특성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가 공존하는 지식 정보 사회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점자는 촉각의 특성에 적합하게 고안된 문자이다. 일반 문자는 선 중심의 상징 체계로서 정보를 매순간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시각에 적합한데 비해, 점자는 점 중심의 문자로서 시각의 범위가 좁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용하는 촉각에 적합하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하는 매체이다. 점자 읽기는 단지 촉각을 활용한 정보 처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수반한다. 또한 뇌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연령기이든지 간에 점자를 학습하면 점자 사용은 뇌를 활성화시킨다.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문화 향유 및 직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이 장애로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는 장애 발생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일반 문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교육이 필요하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과 사용은 선천 시각 장애인과 차이가 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일반 문자를 이미 익혀 사용해 오다가 점자를 새로 익히는데 비해, 선천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최초의 문자로 익혀 사용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실명 적응 단계에 따라 점자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 수 있는데 비해, 선천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과거 시각에 의존해 오다가 새롭게 촉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감각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비해, 선천 시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촉각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은 점자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선천 시각 장애인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계획·실행·평가하여야 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장애 발생 시기, 장애를 초래한 원인 질환, 장애를 수반하는 다른 장애 여부 등 개인마다 특성이 다양하며,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은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대나 20대에 시각 장애인이 된 학습자와 50대나 60대에 시각 장애인이 된 학습자를 위한 점자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은 달라야 할 것이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실명한 학습자에게는 촉각 개발이 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교육 목표, 내용 선정, 지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각 장애 이외에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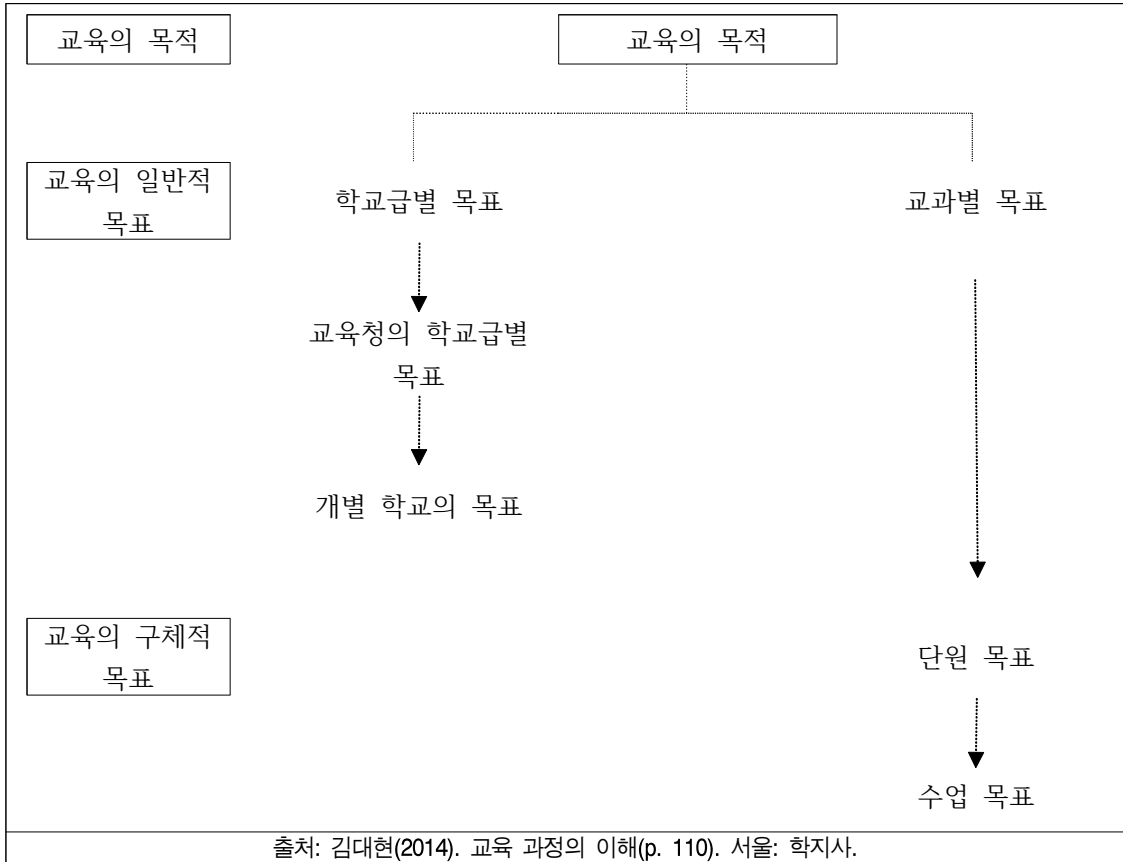
중도 시각 장애인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은 지식 정보 사회이다. 실명은 일반 문자 및 디지털 매체의 정보 접근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도록 시각 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지만 다양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언어 사용 능력도 개발하여야 한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은 실명으로 인해 직면한 정보 소외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정보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점자는 일반 문자를 통한 정보를 대체하는 매체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정보를 변환하기 용이한 매체이기도 하다.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점자보다는 음성 위주의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점자는 문자로서 음성 매체로 환원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음성 매체와 점자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이 실명으로 인해 일반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음성 매체와 점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지식 정보 사회에서 자립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2. 목표

교육 과정의 목표는 적용 범위의 포괄성, 적용 기간의 길이, 수단의 구체화 등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 목표, 교육의 구체적 목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김대현, 2014).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 목표, 교육의 구체적 목표들 간의 관계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교육의 목적,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들 간의 관계



교육의 목적은 교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 일반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개발되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을 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것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총론에 명시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다. 2015년 개정 특수 교육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또한 2015년 개정 특수 교육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서 점자 교육의 목적을 도출한다면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이다.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교육의 목적으로부터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도출되며, 교육의 목적에 비해 덜 포괄적이고, 적용 기간이 짧으며,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 교육청의 학교 급별

목표, 개별 학교의 목표 등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목표는 목표의 위계 체제에서 볼 때 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해당한다.

교육의 구체적 목표는 비교적 단기간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단위 목표와 차시별 수업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 목표는 교과와 내용을 분석하여 설정되며,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고, 수업 목표에 의해 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과정의 내용 영역이 각각 단위 목표이다. 차시별 수업 목표는 하루의 교수 활동을 위한 목표로서 이 연구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에 해당한다.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주로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분한다. 그리고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포함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되도록 제시하고자 하므로 하위 목표를 각각 등급별 목표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총괄 목표, 하위 목표, 과정(등급)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총괄 목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지식을 익히며, 점자 사용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 하위 목표 1: 점자를 적극적으로 익히고 사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 [기초 과정(초급 단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점자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점자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

- [숙련 과정(중급 단계)]: 문화 향유를 위해 점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점자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전문 과정(고급 단계)]: 진로와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 하위 목표 2: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점자에 관한 지식을 갖춘다.

- [기초 과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자에 관한 지식을 갖춘다.

- [숙련 과정]: 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점자에 관한 지식을 갖춘다.

- [전문 과정]: 진로와 직업 생활에 필요한 점자에 관한 지식을 갖춘다.
- 하위 목표 3: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점자 활용 능력을 개발한다.
 - [기초 과정]: 일상생활을 위해 점자를 활용한다.
 - [숙련 과정]: 문화 향유를 위해 점자를 활용한다.
 - [전문 과정]: 진로와 직업 생활을 위해 점자를 활용한다.

3. 내용 체계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내용은 계열성, 계속성, 포괄성, 통합성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점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점자 지도사와 점자 학습자의 요구 조사 등을 기초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기초 과정(초급 단계)’, ‘숙련 과정(중급 단계)’, ‘전문 과정(고급 단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 구분은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적게는 3단계, 많게는 7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중도 시각 장애인 학습자와 점자 지도사의 요구를 반영하였다(이정희·김은애·김현진·심상민·송금숙, 2015; 허용·강현화·김선정, 2007; 허용·강현화·이미혜·최은규, 2009). 각 과정마다 다루어야 할 점자 교육 내용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초 과정’은 점자 수용, 촉각 개발, 한글 점자 및 기초 영어 점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숙련 과정’은 점자 유창성 및 영어 점자로 구성하였으며, ‘전문 과정’은 수학·과학·컴퓨터 점자와 음악 점자로 구성하였다.

각 과정별 영역은 주요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핵심 개념은 각각 내용 요소와 기능 등을 포괄하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진술하였다. 핵심 개념마다 두 개 이상의 내용 요소로 규명하였다. 핵심 개념은 단원 목표 설정이 용이하도록 제시하였으며, 내용 요소는 해당 단원의 차시별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핵심 개념별로 학습자들이 행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과정별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 체계 표

(1) 기초 과정

〈표 5-1〉 기초 과정 내용 체계 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점자 수용	점자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학습자 사례 소개 일상 환경의 점자 탐색 점자 정보 기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청하기 탐색하기 발표하기 공감하기 토의하기
	점자 학습 동기 강화	시각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 단계에 적절한 점자 학습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 장애에 대한 자기 감정 공유 점자 학습 목표 확인 	
촉각 개발	사물 촉지	다양한 사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촉각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 모양 등이 다른 사물 촉지 표면의 거칠기 등이 다른 사물 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하기 변별하기 이동하기 비교하기 짝 맞추기
	촉각 도형 변별	점자로 그려진 여러 형태의 도형을 손으로 만져 변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양, 크기, 위치, 숫자가 다른 점자 도형 변별 밀도가 다양한 점자 도형 변별 	
	점선 탐색	다양한 점형으로 된 점선을 따라 촉지하며 이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3456점, 1245점, 1346점, 25점 등 다양한 점형으로 그려진 점선 탐색 빈 칸이 들어 있는 점선 탐색 	
	점형 구조 촉지	점의 수, 위치, 모양 등을 달리하는 점형을 촉각을 통해 식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점 촉지 세 점 촉지 네 점 촉지 다섯 점 촉지 한 점 촉지 	
한글 점자	자음자	한글 점자의 자음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성 자음 된소리 표 종성 자음 겹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쓰기 활용하기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모음자	한글 점자의 모음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모음 복모음 	
	숫자와 문장 부호	숫자 점자와 한글 점자의 문장 부호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자 문장 부호 	
	약자	약자 점형을 익혀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생략 약자 '모음 + 받침' 약자 쌍시옷 받침 약자 '것' 약자 	
	약어	약어의 점형을 익혀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의 약어 	
1급 영어 점자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점자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알파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쓰기 활용하기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기본 기호	통일 영어 점자의 기본기호를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문자 기호 1급 점자 기호 주요 문장 부호 	

(2) 숙련 과정

〈표 5-2〉 숙련 과정 내용 체계 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점자 유창성	읽기 유창성	점자를 유창하게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위주의 짧은 글 읽기 • 텍스트 위주의 긴 글 읽기 • 시각 자료를 포함한 점자 자료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 쓰기 • 활용하기 •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쓰기 유창성	점자를 유창하게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정보 단말기 기본 기능 사용하기 • 점자 정보 단말기 고급 기능 사용하기 • 다양한 점자 필기구 사용하기 	
2급 영어 점자	영어 약자	통일 영어 점자의 규정에 따라 영어 약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벳 단어 약자 • 온칸 단어 약자 • 온칸 약자 • 온칸 묶음 약자 • 하위 단어 약자 • 하위 묶음 약자 • 어두 약자 • 어미 묶음 약자 • 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 쓰기 • 활용하기 •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문장 부호	통일 영어 점자의 주요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장 부호 • 기타 주요 기호 	

(3) 전문 과정

〈표 5-3〉 전문 과정 내용 체계 표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수학 · 과학 · 컴퓨터 점자	수학 점자	수학 점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일반 • 문자와 식 • 정수론·대수 • 기하 • 함수 • 미적분 • 집합과 명제 • 확률과 통계 • 기타 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 쓰기 • 활용하기 •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과학 점자	과학 점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점자 일반 • 영역별 점자 	
	컴퓨터 점자	컴퓨터 점자를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코드 • 컴퓨터 점자 기호 일반 	
음악 점자	서양 음악 점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양음악 점자를 익혀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기호 • 성악에 관한 기호 • 악기별 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 쓰기 • 활용하기 •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하기
	한국 음악 점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 음악 점자를 익혀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5음 악보 • 기호 표, 전·후치 기호 및 기보 원칙 • 악기별 기호 	

2) 성취 기준

(1) 기초 과정

[기1-1]: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 경험에 대해 경청한다.

[기1-2]: 점자로 표기된 생활 환경을 탐색한다.

[기1-3]: 점자 관련 도구와 정보 기기의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기1-4]: 시각 장애 및 점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기1-5]: 점자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기2-1]: 크기, 모양 등이 다른 사물을 손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2]: 표면의 거칠기가 다른 사물을 손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3]: 촉각적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물을 비교한다.

[기2-4]: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점자 도형을 변별한다.

[기2-5]: 배치와 숫자가 다른 점자 도형을 변별한다.

[기2-6]: 점의 밀도가 다른 점자 도형을 변별한다.

[기2-7]: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4점, 25점 또는 3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단 없이 이동한다.

[기2-8]: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4점, 25점 또는 3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빈칸에서 멈춘다.

[기2-9]: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45점 또는 23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단 없이 이동한다.

[기2-10]: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45점 또는 23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빈칸에서 멈춘다.

[기2-11]: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4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단 없이 이동한다.

[기2-12]: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4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빈칸에서 멈춘다.

[기2-13]: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3점 또는 4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단 없이 이동한다.

[기2-14]: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3점 또는 4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빈칸에서 멈춘다.

[기2-15]: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34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단 없이 이동한다.

[기2-16]: 두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123456점의 점선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빈칸에서 멈춘다.

[기2-17]: 방향과 위치가 다른 두 점의 점형을 집게손가락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18]: 방향과 위치가 다른 세 점의 점형을 집게손가락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19]: 방향과 위치가 다른 네 점의 점형을 집게손가락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20]: 방향과 위치가 다른 다섯 점의 점형을 집게손가락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2-21]: 위치가 다른 한 점의 점 번호를 집게손가락으로 만져 식별한다.

[기3-1]: 한글 점자의 기본 모음 10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2]: 한글 점자의 복모음 11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3]: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두 점으로 구성된 6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4]: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세 점으로 구성된 4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5]: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한 점으로 구성된 3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6]: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된소리 표가 적용된 5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다.

[기3-7]: 받침 없는 단어를 점자로 읽는다.

[기3-8]: 두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9]: 세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0]: 네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1]: 한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2]: 겹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3]: 개별적으로 의미 없는 단어를 점자로 읽는다.

[기3-14]: 한 자리의 숫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5]: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점자로 읽는다.

[기3-16]: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등이 들어 있는 짧은 문장을 점자로 읽는다.

[기3-17]: 소괄호,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등이 들어 있는 짧은 문장을 점자로 읽는다.

[기3-18]: 한글 점자의 기본 모음 10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19]: 한글 점자의 복모음 11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0]: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두 점으로 구성된 6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1]: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세 점으로 구성된 4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2]: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한 점으로 구성된 3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3]: 한글 점자의 초성 자음 중 된소리 표가 적용된 5자와 모음이 조합된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4]: 받침 없는 단어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5]: 두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6]: 세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7]: 네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8]: 한 점으로 표기된 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29]: 겹받침이 들어 있는 글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0]: 개별적으로 의미 없는 단어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1]: 한 자리의 숫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2]: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3]: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등이 들어 있는 짧은 문장을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4]: 소괄호,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등이 들어 있는 짧은 문장을 점자판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에 쓴다.

[기3-35]: ‘아 생략 약자’가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기3-36]: ‘사, 가 약자’가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기3-37]: (모음 + 받침 약자)가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기3-38]: ‘쌍시옷 받침 약자’가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기3-39]: ‘것 약자’가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기3-40]: 한글 점자 약어를 읽고 쓴다.

[기4-1]: 영어 알파벳 a~j 10자와 이 글자들로 구성된 단어를 점자로 읽고 쓴다.

[기4-2]: 영어 알파벳 k~t 10자와 이 글자들이 포함된 단어를 점자로 읽고 쓴다.

[기4-3]: 영어 알파벳 u~z 6 글자와 이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점자로 읽고 쓴다.

[기4-4]: 통일 영어 점자의 대문자 기호와 1급 점자 기호를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기4-5]: 통일 영어 점자의 주요 문장 부호를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기4-6]: 한글 점자와 통일 영어 점자가 함께 사용된 문장을 점자로 읽고 쓴다.

(2) 숙련 과정

- [숙1-1]: 시나 노래 가사 등 텍스트 위주의 짧은 글을 점자로 유창하게 읽는다.
- [숙1-2]: 소식지나 잡지의 기사 등 텍스트 위주의 긴 글을 점자로 유창하게 읽는다.
- [숙1-3]: 표, 도표, 그래프 등이 들어 있는 점자 자료를 유창하게 읽는다.
- [숙1-4]: 자신이 선택한 점자 도서를 유창하게 읽는다.
- [숙1-5]: 점자 정보 단말기의 기본 기능을 활용한다.
- [숙1-6]: 점자 정보 단말기의 고급 기능을 활용한다.
- [숙1-7]: 노트용 점자판 등 다양한 점자 필기구를 활용한다.
- [숙2-1]: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알파벳 단어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2]: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온칸 단어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3]: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온칸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4]: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온칸 묶음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5]: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하위 단어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6]: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하위 묶음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7]: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어두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8]: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어미 묶음 약자를 읽고 쓴다.
- [숙2-9]: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축어를 읽고 쓴다.

(3) 전문 과정

- [전1-1]: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수학 일반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2]: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문자와 식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3]: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정수론과 대수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4]: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기하에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5]: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함수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6]: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미적분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7]: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집합과 명제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8]: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확률과 통계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9]: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기타 수학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10]: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과학 일반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11]: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과학의 영역별 점자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12]: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컴퓨터 점자의 점자 코드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1-13]: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컴퓨터 점자의 일반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전2-1]: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서양 음악 점자의 기본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전2-2]: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서양 음악 점자의 성악에 관한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전2-3]: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서양 음악 점자의 악기별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전2-3]: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한국 음악 점자의 정간보와 5음 약보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전2-4]: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한국 음악 점자의 전·후치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전2-5]: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한국 음악 점자의 악기별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4. 교수·학습 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 숙련 과정, 전문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과정별 운영 기간은 기본 과정 16주, 숙련 과정 12주, 전문 과정 12주로 계획하였다. 과정별 주당 수업 차시는 기본 과정 3차시, 숙련 과정 2차시, 전문 과정 2차시로 각각 제안하였다. 한 차시의 수업은 50분을 기본으로 하고, 휴식 시간을 10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도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은 총 40주, 96시간 동안 운영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운영 지침을 고려하되 점자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및 점자 교육 기관의 실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점자 교육은 점자지도사와 학습자의 일대일 교수·학습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소집단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오전에 편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기관의 실정에 따라 오후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한다.

1)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별로 의미 있는 점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와 교수·학습을 연계시킨다.

2) 교수·학습 전략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주요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점자 학습 초기 단계에는 수업 시간을 짧게 하고 수업 차시를 늘리는데 비해, 점진적으로 수업 시간을 늘리고 차시 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일정을 조절한다.
- 온도와 습도가 점자학습에 적절한 교수 장소를 선정한다.
- 높이와 넓이가 적절한 책상 등 점자 학습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
- 점자를 바른 자세로 읽고 쓰도록 학습 초기 단계부터 지도한다.
- 일상생활에 점자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활동 중심 수업을 계획·실시한다.
- 학습자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그것을 반영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실시한다.
- 차시별 수업 목표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수업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 차시별 수업 내용과 학습자의 점자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구를 확보해 사용한다.

3) 과정별 교수·학습 방법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과정별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Harley, Truan, & Sanford, 2003; Wormsley, 1997).

(1) 기초 과정

- 점자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 엘리베이터의 점자, 점자가 표기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용 카드 등 실제 생활에 유용한 점자를 만지게 한다.
- 학습자의 주요 관심사, 연령, 문해 수준 등을 고려한다.
- 점자를 학습해 활용하고 있는 중도 시각장애인을 초청하여 대화하게 한다.
-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공학 기기를 소개한다.
- 점자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 처음에는 두 손을 사용해 점자를 읽도록 지도한다.
 - 왼손으로 줄의 왼쪽 부분을 읽고 난 후 오른손이 줄의 오른쪽 부분을 읽도록 지도한다.
 - 오른손이 줄의 오른쪽 부분을 읽는 동안 왼손은 해당 줄의 왼쪽 끝으로 이동해 다음 줄을 미리 찾도록 지도한다.
 - 두 손 중 어느 한 손의 촉각이 예민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손을 주로 읽는 손으로 지도한다.
 - 손 이동의 시범을 보이면서 점자 학습자가 점자 지도사의 손을 만져 보도록 한다.
- 두 손의 집게손가락은 편안하게 구부려 페이지와 직각이 되고, 손가락 끝 앞면이 점칸의 상단, 중단, 하단의 점 6개를 모두 만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집게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을 때 다른 손가락들도 가능한 한 점자 줄을 만지며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자나 연필을 등을 줄 바로 위에 두고 손가락이 위로 움직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점자 줄을 따라 이동할 때 일정한 속도로 순조롭게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점선 따라 가기를 지도할 때 처음에는 점선 간에 두 줄 또는 세 줄 비워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점선 따라가기를 지도할 때 점선의 길이를 달리하고, 빈 칸을 군데군데 두기도 하며, 점차 다른 점형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를 제공한다.
 - 점선 따라가기를 지도할 때 점자 자료 아래 미끄럼 방지용 패드나 고무판 등을 놓아 둔다.
 - 학습자가 촉각 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도중 감각이 무뎠지거나 피로하다는 것을

- 발견하면 휴식 시간을 허용하고, 긴장을 줄이도록 도와준다.
- 점을 문지르거나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점을 가볍고 고른 압력으로 만지도록 지도한다.
-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감을 줄이도록 바른 자세를 지도한다.
 - 손과 팔이 일직선이 되도록 손목을 만지거나 들어 올려 지도한다.
 - 상체를 지나치게 숙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 두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두도록 지도한다.
 - 머리 돌리기, 몸 앞뒤로 흔들기, 눈 찌르기 등과 같은 상동 행동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 점자 도서나 자료를 편안한 위치에 둔다.
 - 점자를 읽고 쓸 때 두 손이 허리 또는 팔꿈치 높이에 오는 책상을 선택한다.
 - 책과 책상 가장자리가 평행이 되도록 둔다.
 - 책은 팔꿈치보다 높지 않은 곳에 둔다.
- 점형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다.
-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점자 단어 카드로 만들어 읽도록 지도한다.
 - 제시할 단어는 학습자의 이름, 좋아하는 음악이 들어 있는 CD 제목,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 등 일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점자는 종이보다 모택스 테이프 등 비교적 견고한 재질을 사용한다.
- 점자 쓰기 도구를 만져 가며 설명한다.
 - 점자판, 점간, 점필, 점자 용지 등 전통적인 점자 쓰기 도구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 노트용 점자판, 수첩용 점간, 점자 지우개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점자 필기구를 소개한다.
- 점자판의 구조에 맞게 점자 용지 끼우는 법을 만져 가며 설명한다.
- 점필 쥐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지도한다.
- 점자판으로 쓸 때 점 번호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각 바뀌는 것을 이해시킨다.
- 점필은 오른손에 쥐게 하고, 왼손의 집게손가락이 점필 축을 안내하며 점을 찍게 한다.

- 다양한 점형을 짚도록 지도한다.
 - 14점의 줄을 짚게 한다.
 - 36점의 줄을 짚게 한다.
 - 1346점의 줄을 짚게 한다.
 - 123점의 줄을 짚게 한다.
 - 456점의 줄을 짚게 한다.
 - 123456점을 짚게 한다.
 - 기본 모음을 받아쓰게 한다.
 - 복모음을 받아쓰게 한다.
 - 받침 없는 글자나 단어를 받아쓰게 한다.
 - 받침 있는 글자나 단어를 받아쓰게 한다.
 - 짧은 문장을 점자로 받아쓰게 한다.
- 점자 정보 단말기의 구조를 손으로 만져가며 설명한다.
- 점자 정보 단말기의 입력 자판 위에 두 손을 얹게 한다.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은 띄어쓰기 키 위에 두게 한다.
 - 왼손의 2지, 3지, 4지는 각각 1점, 2점, 3점 키 위에 두게 한다.
 - 오른손의 2지, 3지, 4지는 각각 4점, 5점, 6점 키 위에 두게 한다.
 - 왼손의 5지는 백스페이스 키, 오른손의 5지는 엔터 키 위에 각각 두게 한다.
- 문서 작성을 지도한다.
 - 한 칸에 들어가는 점은 동시에 누르도록 지도한다.
 - 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 문서 작성 후 저장 등 점자 정보 단말기의 기본 기능을 지도한다.

(2) 숙련 과정

- 읽기 연습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 글자나 단어를 단서로 활용해 연이어 나오는 글자나 단어를 예측해 읽도록 지도한다.

-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고 의미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 읽기의 정확성을 우선 시하고 그 후 유창성을 증진시킨다.
- 일정한 길이의 자료를 반복해 읽도록 하는 반복 읽기 전략을 활용한다.
 - 2~3일 동안 측정한 학습자의 평균 읽기 속도를 산출한다.
 - 3~4회 읽으면 도달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읽기 속도 목표를 설정한다.
 - 자료를 주어 학습자가 소리 내어 읽게 하면서 읽기 속도를 측정한다.
 - 목표를 달성하면 칭찬 등 강화를 제공한다.
 - 회기마다 새로운 글을 제시한다.
 - 같은 목표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 속으로 읽을 때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교정해 준다.
 - 윗입술이나 아래 입술을 만진다.
 - 껌을 씹게 하거나 무해한 사물을 입에 넣게 한다.
- 기능 중심 접근부터 의미 중심 접근까지 다양한 읽기 지도 전략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택·적용한다.
 - 읽기 기초 접근(basal reading approach)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언어 경험 접근(language experience approach)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문헌기반 접근(literature-based approach)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총체 언어 접근(whole language approach)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읽기 교육 모형의 수업 절차를 적용한다(이정희·김은애·김현진·심상민·송금숙·이보라미, 2015).
 - 읽기 전 단계에는 주제에 대한 질문, 글에 나오는 기본 개념 확인 등을 통해 글을 읽기 전에 주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도하고 읽는 목적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읽기 단계에는 개인 활동, 짝 활동, 소집단 활동을 통해 글을 읽게 한다.
 - 읽은 후 단계에는 학습자가 읽은 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연결하거나 읽은 것을 다른 활동으로 연계시키도록 지도한다.
- 의미 중심 쓰기 과정을 지도한다.

- 쓰기 전 주제나 구성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하게 한다.
- 초안을 작성한다.
- 초안을 수정한다.
- 수정된 초안을 편집한다.

(3) 전문 과정

- 학습자가 희망하는 전문 분야를 확인한다.
- 「한국 점자 규정」을 사용한다.
- 관련 분야의 점자 자료를 확보한다.
- 전문 분야의 점형 구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 「한국 점자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점자 관련 규정을 설명한다.
- 전문 분야의 점자 자료를 활용해 읽기와 쓰기 과제를 내 준다.
- 점자 기호에 상응하는 묵자 기호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5. 평가

1) 기본 방향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목표를 반영하여 평가 방법, 평가 내용 등을 계획·적용한다.
- 평가 목적, 내용, 학습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구술 평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평가를 계획한다.
- 평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효과적인 점자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 전략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주요 평가 전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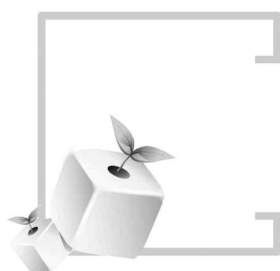
- 학습자의 감각 특성, 인지 능력, 배경 지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문해 매체 평가를 실시한다.
- 학습자의 시각장애 특성,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점자 학습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 점자 학습 단계에 따라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를 계획·실시한다.
- 점자 학습자가 과도한 긴장을 느끼지 않도록 평가 시간과 장소를 조절한다.
- 학습자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도구 등을 선택한다.
- 점자 읽기 및 쓰기의 오류 분석 결과를 활용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한다.
-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측정하여 점자 읽기 및 쓰기의 유창성을 증진한다.

3) 평가 방안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Layton,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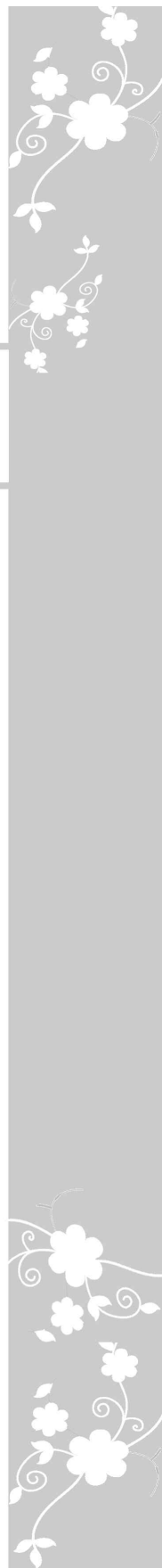
- 기준 중심 또는 준거 중심 표준화 검사를 활용한다.
 -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준 집단에 맞는 국내 읽기 또는 쓰기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확보하여 점역한다.
 - 표준화 검사 도구를 사용할 때 시각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항을 검토 후 조정한다.
- 비형식적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
 - 이미 제작되어 있는 비형식적 읽기 또는 쓰기 도구를 조사하여 활용한다.

- 점자 지도의 과정, 영역, 핵심 개념 등을 고려하여 점자 지도사가 검사를 제작·활용한다.
- 학습자의 읽기 및 쓰기 행동을 직접 관찰, 기록한다.
 - 점자 읽기 자세를 관찰·기록한 후 지도하는 데 참고한다.
 - 읽기 및 쓰기 수행 과정의 행동을 관찰한다.
- 학습자의 읽기 및 쓰기 수행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분석한다.
- 진단적 교수를 실시한다.
 - 음운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등을 통한 예측하기 능력 평가 등 단어 재인을 위한 진단적 교수를 실시한다.
 - 반복 읽기, 읽기 회복 전략 등 읽기 속도 관련 진단적 교수를 실시한다.
 - ‘알기, 바라기, 배우기(know, want, learn)’ 전략 등 내용 이해를 위한 진단적 교수를 실시한다.
- 읽기 및 쓰기 오류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 학습자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글을 선정하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게 하면서 녹음한 후 대체, 생략, 삽입, 순서 역행 등 오류 유형을 표시한다.
 - 표시된 오류 유형을 정리한다.
 - 오류 유형을 음운 오류, 구문 오류, 의미 오류로 재분류한다.
 - 오류 유형별 비율을 산출한다.
 - 오류 유형을 고려하여 지도 방법을 수정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점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점자 실용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자 교육의 이론적 근거 제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실제 조사, 우리나라 점자 교육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 등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 목표에 적합하게 문헌 조사, 초점 집단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은 읽기와 쓰기의 일반적인 이론 이외에도 중도 시각 장애인의 심리 적응을 다루는 재활 상담 이론과 뇌의 가소성 등에 관한 신경생리학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 실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셋째, 점자 지도사와 점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 집단 면담과 설문 조사 결과는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이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초 과정, 숙련 과정, 전문 과정 등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2. 제언

이 연구를 마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을 반영한 점자 지도사용 교수 자료와 점자 학습자용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점자 학습 교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점자 읽기와 쓰기의 지도 순서, 점자 정보 단말기와 전통적인 점자 필기구의 효과

성 비교, 점선 따라가기의 전형 순서 등 점자 교육의 실제와 이론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 김대현 (2014), 『교육 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영일 (2010), 『시각 장애인복지론』, 서울: 집문당.
- 김영일 외 (2014), 시각 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서울: 국립국어원.
- 박순희 (2014),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이정희, 김은애, 김현진, 심상민, 송금숙, 이보라미 (2015), 『한국어 읽기 교육 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임안수 (2008), 『시각장애아 교육』, 서울: 학지사.
- 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 (2004), 『한국맹인근대사』, 서울: 저자.
- 허용, 강현화, 김선정 (2007), 『세종학당 교육 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허용, 강현화, 김선정, 이미혜, 최은규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서울: 국립국어원.
- 홍성계·김영일·김호연 (2011), 『촉각으로 여는 세상: 점자의 창안자 루이 브라유의 삶과 업적』, 서울: 도서출판 하상점자.

[일본어]

- 文部科学省 (2003), 点字学習指導の手引(平成15年改訂版), 大阪書籍.
- 澤田真弓·原田良實 (2005), 中途視覚障害者への点字触読指導マニュアル, 読書工房.
- 立花明彦·松谷詩子 (2002), 点字入門 2002年版—中途失明者の点字学習のために, 日本点字図書館.
- 大内 進 (2006), 点字指導法のレビュー.
- 牟田口辰己 (2013), 中途失明児童の点字読速度の発達. 国立特別支援教育総合研究所研究紀要 第40巻.

[영어]

- Buchel, C., Price, C., Frackowiak, R. S. J., & Friston, K. (1998). Different activation patterns in the visual cortex of late and congenitally blind subjects. *Brain*, 121, 409~419.
- Burton, H., Snyder, A. Z., Conturo, T. E., Akbudak, E., Olinger, J. M., & Raichle, M. E. (2002). Adaptive changes in early and late blind: A fMRI study of braille reading. *Journal of Neurophysiology*, 87, 589~607.
- D'Andrea, F. M. (1997). Making the transition from print to braille. In D. P. Wormsley, & F. M. D'Andrea (Ed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braille literacy* (pp. 112~143). New York: AFB Press.

Hannan, C. K. (2006). Review of research: Neuroscience and the impact of brain plasticity on braille reading.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0, 397~413.

Harley, R. K., Truan, M. B., & Sanford, L. D. (2003). *Communication skills for visually impaired learner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Layton, C. A. (1997). Assessing the literacy skills of students who are blind or visually impaired. In D. P. Wormsley, & F. M. D'Andrea (Ed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braille literacy* (pp. 231~263). New York: AFB Press.

Ponchillia, S. (2006). Diabetes management and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0, 867~871.

Ponchillia, P. E., & Ponchillia, S. V. (1996). *Foundations of rehabilitation teaching with persons who are blind or visually impaired*. New York: AFB Press.

Rex, E., Koenig, A., Wormsley, D., & Baker, R. (1995). *Foundations of braille literacy* (2nd ed.).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Swenson, A. M. (1999). *Beginning with braille: Firsthand experiences with a balanced approach to literacy*. New York: AFB Press.

Wormsley, D. P. (1997). Learning to read, reading to learn: Teaching braille reading and writing. In D. P. Wormsley, & F. M. D'Andrea (Ed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braille literacy* (pp. 57~110). New York: AFB Press.

Wormsley, D. P. (2004). *Braille literacy: A functional approach*. New York: AFB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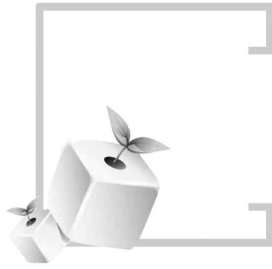
[인터넷 누리집]

미국 시각 장애 분야 전문가 자격 검정 협회, 시각 재활 치료사의 지도 영역과 세부 내용 (<http://www.acvrep.org>)

연합세계선교회, 우리나라의 초기 점역 사업 (http://www.bokji.or.kr/sub/sub01_06.php)

하상장애인복지관, 점자 세상 (<http://www.braillekorea.org/>)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 장애인 서비스 제공 체계로서의 점자 교육 (<http://www.kbuwel.or.kr/Intro/History>)



부 록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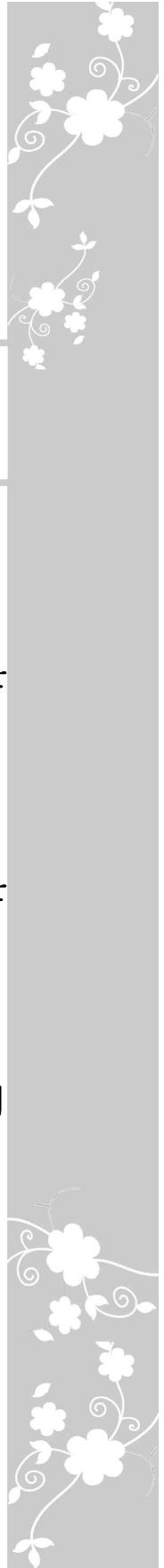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요구 조사 설문지: 점자 지도사용

<부록 2>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설문지: 점자 학습자용

<부록 3>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연구 자문 회
의



<부록 1>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요구 조사 설문지:
점자 지도사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점자 교육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이며,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가 책임연구자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올림

I. 실태 조사

■ 다음은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다음과 같은 목표를 현재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1. 점자 수험서 활용 등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점자 사용 능력 개발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한 편이다
- ⑤ 매우 중요하다

1-2.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점자 확인 등 편의 시설이나 생활 용구의 점자 식별 능력 개발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한 편이다
- ⑤ 매우 중요하다

1-3. 점자 도서나 점자 잡지 읽기 등 여가나 교양을 위한 점자 독서 능력 개발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수학 점자 기호
- 과학 점자 기호
- 컴퓨터 점자 기호
- 서양 음악 점자 악보
- 한국 음악 점자 악보

5.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 ① 집단 지도(5-1번으로)
- ② 일대일 지도(5-2번으로)
- ③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에 따라 달라짐
- ④ 기타()

5-1. 점자를 집단으로 지도할 때 집단별 학습자 수는 평균 몇 명입니까?

- ① 2~3명 ② 4~5명 ③ 6~7명
- ④ 8명이상

* 한 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숫자이며 참여자가 매 강좌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 인원수로 기재

5-2. 일대일 학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1명씩 개별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 ② 학습 참여자가 적어서
- ③ 학습자의 요구로
- ④ 기관이나 선임자, 기관장의 교육 원칙에 따라
- ⑤ 기타()

6.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얼마나 자주 지도하십니까?

- ① 주 당 1회
- ② 주 당 2회
- ③ 주 당 3회
- ④ 주 당 4회
- ⑤ 주 당 5회

7. 한 시간을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할 경우,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하루 평균 몇 시간 지도하십니까?

- ① 1시간
- ② 2시간
- ③ 3시간
- ④ 4시간

⑤ 5시간 이상

8.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총 몇 주 동안 지도하십니까?

9.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은 언제 배정하십니까?

① 오전

② 오후

③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그 날 그 날의 상황에 따라 다름

10.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중 어느 것을 먼저 지도하십니까?

① 점자 읽기

② 점자 쓰기

③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동시 지도

④ 순서는 상관없음

11.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한소네와 같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한글 점자 읽기와 쓰기를 익힐 때까지 점자판 등 전통적인 점자 도구만 사용한다.

② 점자판 등을 사용해 기본적인 점형을 익힌 다음에는 점자 정보 단말기도 함께 익히게 한다.

③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해 지도하고, 기본적인 점자를 익힌 다음 점자판 등을 사용하게 한다.

④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점자를 지도하고 점자판 사용은 별도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

12.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지각을 개발하기 위해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점형은 무엇입니까?

① 1-2-3-4-5-6점

② 1-4점, 2-5점 또는 3-6점 등 두 점

③ 1-2-3점

④ 1점 등 한 점

⑤ 기타

13.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다른 재활 서비스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① 보행

② 일상생활 훈련

③ 재활 상담

- ④ 사회 적응 훈련
- ⑤ 보조 공학 기술 훈련
- ⑥ 기타

14.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5. 중도 시각 장애인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① 있다(15-1번으로)
- ② 없다(15-2번으로)

15-1. 학습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교재의 진도와 교육 과정 진도를 마치는 경우
- ② 학습자의 점자 활용 능력에 대한 점자 지도사의 판단으로
- ③ 점자 활용 능력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서 작성
- ④ 정확한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 방법 사용
- ⑤ 기타()

15-2. 학습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점자 학습을 종결하고 있습니까?

- ① 정해진 학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
- ② 정해진 기간 없이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종료
- ③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학습자의 재학습이 가능하여 자동으로 종료
- ④ 기타()

II. 요구 조사

■ 다음은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다음 각 목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점자 수험서 활용 등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점자 사용 능력 개발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1-2. 엘리베이터에 표기된 점자 확인 등 편의 시설이나 생활 용구의 점자 식별 능력 개발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1-3. 점자 도서나 점자 잡지 읽기 등 여가나 교양을 위한 점자 독서 능력 개발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1-4. 기타 점자 교육 과정 개발 시 반영하여야 할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목표를 등급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2-1번으로)

② 반대한다

2-1. 점자 교육 목표를 등급으로 나눌 경우 몇 개의 등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초급과 고급의 2등급

② 초급, 중급 및 고급의 3등급

③ 1~5등급

3. 점자를 지도할 때 다음 내용을 각각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 중 선택)

촉지각 개발

점형 구조 식별

점자 도형 인식

점선 따라가기

한글 점자 자음

한글 점자 모음

한글 점자 약자 및 약어

숫자

문장 부호

영어 알파벳

영어 약자

수학 점자 기호

- 과학 점자 기호
- 컴퓨터 점자 기호
- 서양 음악 점자 악보
- 한국 음악 점자 악보

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지도를 위해 바람직한 집단 구성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 지도(4-1번으로)
- ② 일대일 지도
- ③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에 따라 달라짐
- ④ 기타()

4-1. 점자를 집단으로 지도할 때 바람직한 집단별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3명 ② 4~5명 ③ 6~7명
- ④ 8명 이상

* 한 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숫자이며 참여자가 매 강좌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 인원수로 기재

5.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얼마나 자주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당 1회
- ② 주 당 2회
- ③ 주 당 3회
- ④ 주 당 4회
- ⑤ 주 당 5회

6. 한 시간을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할 경우,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하루 평균 몇 시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 ② 2시간
- ③ 3시간
- ④ 4시간
- ⑤ 5시간 이상

7.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주 5회 즉 매일 평균 2시간씩 점자를 지도한다면 점자 교육 기간은 총 몇 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하루 중 점자 교육 시간 편성으로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 ② 오후
- ③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음

9.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중 어느 것을 먼저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점자 읽기
- ② 점자 쓰기
-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동시 지도
- ④ 순서는 상관없음

10.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한소네와 같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한글 점자 읽기와 쓰기를 익힐 때까지 점자판 등 전통적인 점자 도구만 사용한다.
- ② 점자판 등을 사용해 기본적인 점형을 익힌 다음에는 점자 정보 단말기도 함께 익히게 한다.
- ③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해 지도하고, 기본적인 점자를 익힌 다음 점자판 등을 사용하게 한다.
- ④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점자를 지도하고 점자판 사용은 별도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

11. 중도 시각 장애인의 촉지각을 개발하기 위해 점선 따라가기를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점형은 무엇입니까?

- ① 1-2-3-4-5-6점
- ② 1-4점, 2-5점 또는 3-6점 등 두 점
- ③ 1-2-3점
- ④ 1점 등 한 점
- ⑤ 기타

1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활 서비스 영역을 모두 고르시오.

- ① 보행
- ② 일상생활 훈련
- ③ 재활 상담
- ④ 사회 적응 훈련
- ⑤ 보조 공학 기술 훈련
- ⑥ 기타

13.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14.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1. 체계적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14-2. 통일된 점자 교육 교재 보급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14-3. 점자 지도사 양성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15.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III. 참여자 배경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4. 귀하는 시각 장애인이십니까?

4-1. 그렇다면 시각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5. 귀하가 점자를 지도한 총 경력은? ()년 ()개월

6. 귀하가 점자를 지도한 기관 또는 단체 유형은?

- 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또는 지회
- ② 시각 장애인 복지관
- ③ 점자 도서관
- ④ 기타 단체 또는 기관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설문지:
점자 학습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점자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이며,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가 책임연구자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 올림

I. 요구 조사

■ 다음은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에 답을 써 주십시오.

1.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진학이나 취업하는 데 필요한 시험 문제지 등 점자로 된 자료를 읽기 위해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응답:

1-2. 일상생활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점자 등 편의 시설이나 생활 용품에 적힌 점자를 읽기 위해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

1-3. 여가 생활에 필요한 점자 도서를 일기 위해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응답:

1-4. 현재의 잔존 시력이나 청력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응답:

1-5.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문자로서 시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하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응답:

2.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등급별로 나누어 교육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2-1번으로) ② 반대한다

응답:

2-1. 점자 교육을 등급으로 나눌 경우 몇 개의 등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급과 고급의 2등급
- ② 초급, 중급 및 고급의 3등급
- ③ 1~5등급

응답:

3.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학습할 때 다음 각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해 주세요.)

촉각 개발 응답:

점자 모양 식별 응답:

점자 도형 인식 응답:

점선 따라가기 응답:

한글 점자 자음 응답:

한글 점자 모음 응답:

한글 점자 약자 및 약어 응답:

숫자 응답:

문장 부호 응답:

영어 알파벳 응답:

영어 약자 응답:

수학 점자 기호 응답:

과학 점자 기호 응답:

컴퓨터 점자 기호 응답:

서양 음악 점자 악보 응답:

한국 음악 점자 악보 응답:

4.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 지도(4-1번으로)
- ② 일대일 지도
- ③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에 따라 달라짐
- ④ 기타()

응답:

4-1. 점자를 집단으로 학습할 때 바람직한 집단별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3명 ② 4~5명 ③ 6~7명
- ④ 8명 이상

응답:

5. 중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당 1회
- ② 주 당 2회
- ③ 주 당 3회
- ④ 주 당 4회
- ⑤ 주 당 5회

응답:

6. 한 시간을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할 경우,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 ② 2시간
- ③ 3시간
- ④ 4시간
- ⑤ 5시간 이상

응답:

7.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이 매일 평균 2시간 실시된다면 점자 교육 기간은 총 몇 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8. 하루 중 점자를 학습하기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 ② 오후
- ③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음

응답:

9.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점자 읽기
- ② 점자 쓰기
- ③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 동시 지도
- ④ 순서는 상관없음

응답:

10.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학습할 때 한소네와 같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한글 점자 읽기와 쓰기를 익힐 때까지 점자판 등 전통적인 점자 도구만 사용한다.
- ② 점자판 등을 사용해 기본적인 점형을 익힌 다음에는 점자 정보 단말기도 함께 익히는 것이 좋다.
- ③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해 점자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점자를 익힌 다음 점자판 등을 사용한다.
- ④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점자를 학습하고, 점자판 사용은 별도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

응답:

11.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처음 배울 때 다음 중 몇 점을 사용해 점선 따라가기를 연습하는 것이 손으로 점자를 읽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섯 개의 점 즉 1-2-3-4-5-6점
- ② 가로로 된 두 개의 점 즉 1-4점, 2-5점 또는 3-6점
- ③ 세로로 된 세 점 즉 1-2-3점 또는 4-5-6점
- ④ 점 한 개 즉 1점 등
- ⑤ 기타

응답:

12.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교육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기초 재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두 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 ① 보행
- ② 일상생활 훈련
- ③ 재활 상담
- ④ 사회 적응 훈련
- ⑤ 보조 공학 기술 훈련
- ⑥ 기타

응답:

13.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14.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다음 사항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1.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응답:

14-2. 통일된 점자 교육 교재 보급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응답:

14-3. 점자 지도사 양성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필요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한 편이다
- ⑤ 매우 필요하다

응답:

15. 점자를 학습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16.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III. 배경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응답:

2. 귀하의 연령은?

응답: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응답:

4. 귀하는 시각 장애인이십니까?

4-1. 그렇다면 시각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5. 귀하가 점자를 교육받은 기간은?

응답: ()년 ()개월

6. 귀하가 점자를 교육받은 기관 또는 단체 유형은?

- 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또는 지회

- ② 시각 장애인 복지관
- ③ 점자 도서관
- ④ 기타 단체 또는 기관

응답:

7. 실명 후 점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연구 자문 회의

□ 일시: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16:40~18:30

□ 참석자 : 자문위원 7명(오윤진, 이태훈, 최세운, 박민규, 김경옥, 김기현, 김동복)
책임연구원(김영일), 공동연구원(백혜련)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오윤진	세종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이태훈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기현	대구대학교 직업 재활학과	외래교수	재활상담전공
최세운	서울맹학교	교사	중도시각 장애인
김경옥	대린직업훈련원	외래 강사	점자 지도사 중도 시각 장애인
박민규	하상장애인 복지관	직원	점역·교정사 중도 시각 장애인
김동복	도서출판 한국점자	대표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책임연구자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공동연구원

□ 목 적 : 연구진이 마련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

□ 자문내용

1. 교육 과정의 성격

중도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과정의 성격은 점자 자체의 본질, 중도 시각 장애인의 특성 및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가 공존하는 지식정보 사회를 살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참석자들의 자문을 구함.

김영일: 점자는 뇌의 시각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습득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성격은 중도 시각

장애인과 선천 시각 장애인에 따라 다르고,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점자가 문화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능력 또한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교육 과정의 성격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진: 점자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이 20세 이후와 이전은 학습자의 점자 습득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의 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연령에 따라 점자 학습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명 시기에 따른 점자 학습의 차이를 점자 교육 과정의 성격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일: 그 부분을 학습자의 특성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이태훈: 교육 과정의 성격에 서술된 용어가 너무 어려운 듯합니다. 좀 보편적인 용어로 풀어 쓸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복: 그리고 학습자 특성을 추가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맹 등 중복 장애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고, 기타 다른 장애 영역과 중복장애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또한 실명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와 급작스런 실명에 따른 심리적 상황 설명도 서술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세윤: 학습과 관련하여 점자가 다른 매체와 연계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가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그런 매체들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김동복: 교육 과정에서 점자와 음성 매체를 동시에 언급하고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음성을 문자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매체로 보는 것인지 등이 그 것인데요.

김영일: 음성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자와 음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중도 시각 장애인은 점자보다 학습에 음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세윤: 점자 정보 단말기로 점자가 옮겨가는 경우 등 현재는 다양한 매체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자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사실 중도 시각 장애인이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아직은 점자판에 의존하거나 음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선천 시각 장애인이 오히려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세윤: 맹학교에서 상담을 해보면 중도 시각 장애인은 복지관을 통해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접한 사람은 편리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이 강조된다면 점자 외에 다른 매체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박민규: 선천 시각 장애인과 중도 시각 장애인의 구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도 시각 장애인도 실명 시기의 폭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중도 시각 장애인으로 뭉뚱그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 과정의 목표

점자 교육 과정의 목표는 적용 범위의 포괄성, 적용 기간의 길이, 수단의 구체화 등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 목표와 교육의 구체적 목표로 나눌 수 있다는 일반 교육 과정의 목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함.

이태훈: 서술된 목표의 내용이 어렵고 의미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좀 더 표현을 쉽게 하고 읽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목표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서술이 '재활'이라는 맥락보다는 '교육'이라는 맥락으로 전개되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윤진: 읽기와 쓰기라는 표현 자체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느낌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에게 점자로 써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끼리 사용하는 것이며, 점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컴퓨터로 해결하기 때문에...

김경옥: 일상생활에서 모택스 사용 등 사실상 쓰기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쓰기도 읽기 못지않게 중요하며, 읽기 속도보다는 글자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중요하구요.

이태훈: 후기 단계는 속도가 중요하죠.

김영일: 중도 시각 장애인의 점자 교육 과정 목표를 일상생활 관련 문자 사용으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학업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문자 사용까지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은 연령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점자 교육 과정의 목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자 읽기·쓰기만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 취업에 대한 점자 사용 능력 개발까지 포함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윤진: 취업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김경옥: 저도 취업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세윤: 실제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교육 과정이 학습 특성에 따라 개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점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김기현: 재활의 맥락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령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므로 저도 취업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개인의 차이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점자와 생활에 필요한 점자, 국어, 영어, 음악, 컴퓨터 점자까지를 포함해야겠죠.

김영일: 그렇다면 학습의 목표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김동복: 점자 학습의 목표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측면에서 목표를 앞에서 일상생활이나 여가 문화, 취업 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설정하고, 읽고 쓰기보다는 점자 활용 능력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점자 활용 능력으로 규명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맞춰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김영일: 그렇다면 교육 과정의 성격에서 중도 실명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교육 과정의 목표도 취업까지로 넓게 설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 과정 내용

점자 교육 과정의 내용은 계열성, 계속성, 포괄성, 통합성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을 고려하여 점자 수용, 촉각 개발, 한글 점자, 영어 점자, 수학·과학·컴퓨터 점자, 음악점자 등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함.

김영일: 점자 교육의 내용 면에서 점자 수용에 대해 다루기 위해 점자 자체와 재활 상담의 영역 접합이 필요합니다. 촉각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점자 교육 과정에서는 점선의 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른데, 점이 적은 상태에서 점이 많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에는 가능한 점형 중 촉각이 쉬운 순서로 점형을 재배치하여 지도하는데, 촉각의 식별 수준에 따라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문자의 의미가 아닌 점형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윤진: 경험상 미국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세윤: 촉지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박민규: 우리나라는 온점의 구조와 칸과 칸 사이 구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온점을 붙여서 32칸을 제시한 상태에서 손가락의 움직임과 손가락을 이동하는 속도를 익히도록 하고, 온점과 다른 기호들을 붙여서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점의 위치와 점의 이름을 위해 온표를 쓰고 읽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칸과 칸 사이의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하지만 온점 자체보다는 점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점이 점 6개가 다 있는 것이기에 때문에 감각이 느린 사람은 처음부터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가 안 되면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점이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익혀가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분명히 온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점을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같은 생각입니다. 온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인지가 어려운 경우는 개별화된 연습이 필요하겠죠.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향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점을 맨 마지막에 지도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태훈: 전반적으로 용어의 구분과 명칭이 어렵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역, 학습주제, 학습 목표, 학습내용, 주요활동, 세부 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가 아닌 이상 쉽게 와 닿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촉각 개발이 아니라 촉각의 발달이라고 명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물탐색, 촉각 변별, 촉독 운동, 점자의 위치와 번호, 점의 모양과 형식도 쉬운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윤진: 본 교재가 출간되면 주로 보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김동복: 우리나라 점자 교육이 복지관이나 한시련 지부, 안마사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점자 지도사들이 활용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맹학교 점자 익히기 교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점자 교육의 내용 체계를 점자 익히기 체계에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태훈: 그러면 기존의 점자 익히기 교재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차별성이 필요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을 신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과 용어는 좀 더 쉽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촉각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강압적인 감각 연습보다는 좀 더 학습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라, 미국식의 지도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복: 개별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적에 따라 지도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지도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그것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일: 그럼 교육 과정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씀들이신가요? 전반적으로 점자의 활용에 따라 개별적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김동복: 네. 성격이나 목표에 따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이 높은 중도 시각 장애인이 수학이나 컴퓨터 점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반면에 한글을 하고 자신의 여가문화 욕구에 따라 음악점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단계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김경옥: 맞습니다. 개인적인 필요가 목표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맞구요. 실제로 처음에는

목표가 아니었다가 진행 과정에서 목표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학습자 개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교육 내용은 개인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점자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영일: 지도 방법 중 혹시 자음이나 모음 중 어느 것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오윤진: 습관처럼 자음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모음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음은 좌우대칭이 되니까 점 번호보다 모양으로 익히기 쉽고, 또 모음만으로도 간단한 단어가 되잖아요.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사실 단어의 모양에 치중해서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쉽고 주변의 물건이나 제가 관심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음부터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되는 학습자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해 볼만 합니다.

4. 교수·학습 방법

효과적으로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 개별 학습의 중요성과 점자를 익히는 환경과 차시별 학습 내용과 교구의 활용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김영일: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점자를 익히는 과정은 단순히 학습자의 촉각만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환경적인 요인과 교수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복: 점형의 변화와 구조 익히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기보다는 읽기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개별화란 학습자 1명이 점자를 효과적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하면 중도 시각 장애인의 개인의 특성, 과거 경험을 고려하여 점자의 목표 수위를 정하고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화를 강조하면 실제 교육 과정에서 적용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명 전 영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면 각자 개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별화의 의미를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김기현: 저도 동의합니다. 개별화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동복: 중복장애로 인해 모택스, 스티커, 네임택 등 점자를 익히는 재료나 사용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촉각이나 학력, 목표 등에 따라 전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학습자 개인이

가진 장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박민규: 실명 원인(질환 등)에 의한 점자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를 초래한 질환에 대한 점자 지도사의 이해가 없는 경우 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에 따라 촉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도나 온도 등 환경적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학습 지속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와 개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세윤: 점자 읽기 재료(재질 등)가 점자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도 시각 장애인의 경우 점자의 경도가 중요합니다. 단단한 재질의 점자가 읽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가 좋은 게 점자가 뭉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도 시각 장애인이나 초보자에게 좋다고 봅니다. 또 점자의 크기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줄여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판 방법에 따라 점자의 크기가 달라서 한국이나 일본의 프린터기는 점이 너무 작고 미국 프린터기는 점자가 큰 편이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5. 평가

점자 학습의 평가는 학습자가 얼마나 점자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는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이태훈: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쓰기와 읽기의 정확도 산출식(계산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규: 평가 기준은 책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평가 산출식이나 기타 평가의 내용의 난이도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옥: 사실 점자 학습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마다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평가하는 기관은 한두 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복: 사실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면 속도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면 평가는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준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학습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에서 얼마나 점자 읽거나 쓰기에 익숙한지 알아보고 미달된다면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속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일: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동복: 점자 읽기에 패턴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양손 읽기, 한손 읽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는 점자 읽기 패턴이 읽기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윤진: 사실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 후 한손 읽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가 한 줄로 나오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민규: 점자를 처음 배우던 초기에는 왼손 읽기를 주로 했고, 이후 점자 속도가 붙으면서 양손 읽기를 연습해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점역·교정사로 일하고 있는 현재는 오히려 오른손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복: 당뇨 및 약물 사용 환자는 오른손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도 시각 장애인 은 자신의 손가락 중 가장 예민한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개별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세윤: 학교에서는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점자의 재질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재활 상담사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수용이나 적응, 자신의 장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중도 시각 장애인에게 중요한데 결국 점자 지도사의 역할과 함께 재활 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점자를 읽어서 실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 동의합니다. 점자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수용과 공감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촉각 훈련에 중점을 두고 흥미가 생기면 한글 점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규: 개별화가 매우 중요하고 교재 내용은 대상에 따른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세윤: 읽기부터 학습한 학생(예시)의 경우 쓰기의 점형이 역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 점형에 익숙해지고 난 후 다음에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짚어 주시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을 마무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김영일

공동연구원 김정호, 강완식, 박성수, 백혜련, 이승철, 오태민, 류현

연구보조원 손민희, 김명한, 문희원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6년 12월 10일
발행일: 2016년 12월 10일
인 쇄: 한국엠디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중도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과정 개발'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